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가정학 박사 학위논문

정약용의 생애에 나타난 역경과 성격강점,
생태체계 및 가족 레질리언스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dversity, Character Strengths,
Ecological System, and Family Resilience in the
Life of Jeong Yak-Yong

울산대학교 대학원
아동가정복지학과
박혜숙

정약용의 생애에 나타난 역경과 성격강점,
생태체계 및 가족 레질리언스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dversity, Character Strengths,
Ecological System, and Family Resilience in the
Life of Jeong Yak-Yong

지도교수 정민자

이 논문을 가정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4년 7월

울산대학교 대학원
아동가정복지학과
박혜숙

박혜숙의 가정학 박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김 영 주



심사위원 전 호 태



심사위원 이 승 미



심사위원 허 은 정



심사위원 정 민 자



울 산 대 학 교 대 학 원

2024년 7월

목 차

<감사의 글>

<국문초록>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문제	5
II. 이론적 배경	6
1. 생애사 연구	6
1) 생애사 연구의 개념	6
2) 생애사 선행연구 고찰	7
2. 성격강점	9
1) 성격강점 개념	9
2) 성격강점 분류체계	10
3) 성격강점 선행연구 고찰	13
3. 생태학적 체계이론	16
1) 생태체계이론의 개념 및 구성	16
2) 생태체계 선행연구 고찰	18
4. 가족 레질리언스	20
1) 가족 레질리언스 개념	20
2) 가족 레질리언스 구성요인	21
3) 가족 레질리언스 선행연구 고찰	26
III. 연구 방법	29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29
2. 연구방법 및 내용	30
3. 연구절차 및 타당도	31

IV. 연구 결과 34

1. 정약용의 생애	34
1) 수학기(修學期)	35
2) 사환기(仕宦期)	36
3) 유배기(流配期)	38
4) 해배(解配)이후	39
2. 정약용의 생애에 나타난 역경	40
1) 천주교 탄압	40
2) 채제공과 정조의 죽음	41
3) 정치적 탄압	42
4) 가족원의 죽음	43
3. 정약용의 역경을 통해 본 성격강점	44
1) 지혜 및 지식	44
2) 용기	47
3) 인간애	49
4) 정의	51
5) 절제	53
6) 초월	55
4. 정약용의 생태체계	58
1) 정약용의 개인체계	59
2) 정약용의 가족체계	71
3) 정약용의 사회체계	75
5. 정약용의 가족 레질리언스	82
1) 가족신념체계	83
2) 가족조직과정	90
3) 가족 의사소통 과정	97

V. 결론 및 제언 105

참고문헌 112

ABSTRACT 126

표 목 차

<표 1> 핵심덕목과 성격강점	11
<표 2> 가족 레질리언스 구성요인	25
<표 3> 연구절차	32
<표 4> 정약용 수학기 주요 연보	35
<표 5> 정약용 사환기 주요 연보	37
<표 6> 정약용 유배기 주요 연보	38
<표 7> 정약용 해배기 주요 연보	39
<표 8> 정약용의 학문 범주와 주요 내용	67
<표 9> 다산학의 학맥	70
<표 10> 정약용의 가족신념체계	83
<표 11> 정약용의 가족조직과정	91
<표 12> 정약용의 가족 의사소통 과정	98

그 립 목 차

<그림 1> 생애사 연구 구성요인	34
<그림 2> 정약용의 생태체계도	59
<그림 3> 두 아들에게 보낸 하피첩	60
<그림 4> 딸에게 보낸 매조도	60
<그림 5> 정약용 가계도	71

사 진 목 차

<사진 1> 다산 생가	36
<사진 2> 거중기	37
<사진 3> 수원화성	37
<사진 4> 다산 초당	38
<사진 5> 다산 묘소	39

감사의 글

장마가 시작되는 6월 하순, 빗소리와 함께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 바퀴 소리가 싫지 않은 것은, 아마도 논문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불안하고 예민했던 내 마음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음이라 짐작해 봅니다.

논문을 쓰면서 시나브로 지나온 시간들과 정민자 지도교수님의 얼굴이 떠오르며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교수님의 열정과 사랑이 미흡하고 부족한 제자이지만 나를 가족학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게 한 밑거름이 되어 주신 것 같아 이 장을 빌어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애정을 가지고 지도해 주신 전호태 교수님, 허은정 교수님, 김영주 교수님, 이승미 교수님께도 머리 숙여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합니다. 개성 넘치는 논문방 동기 선생님들과 좋은 에너지로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 동문 선배로서, 그리고 직장 상사로서 성장발전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장현희 센터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스킷치 지나면서, 잘되어 가고 있는지 관심 가져주고, 격려해주신 선배 김지현 선생님과 직장 동료 선생님들께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나를 알아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 누군가에서 정말 소중한 존재가 된다는 것은 행복하고 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약용에게 자신을 알아주는 지기(知己) 중형 정약전이 있었듯이, 내게 남편이 그런 사람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나의 멋진 수호천사! 남편, 김창환님께 깊고 넓은 사랑과 감사를 보냅니다. 아울러, 존재만으로 빛나는 사랑스런 나의 아들, 딸 주엽과 수민에게도 고마움을 포함합니다.

가족학을 공부하면서 잊고 있었던 나의 원가족에 대한 고민과 생각이 많았습니다. 당연시했던 부모님의 희생과 원망에 대한 미안함과 후회가 하나씩 올라왔습니다. 지금 나의 건강함과 성실함의 토대가 원가족에서 나왔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지만,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이 마음을 엄마, 아빠께 전하며, 가장 큰 나의 인적자원인 하나뿐인 나의 형제, 언니 박수정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인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2024년 7월 박혜숙 올림

국 문 초 록

정약용의 생애에 나타난 역경과 성격강점, 생태체계 및 가족 레질리언스에 관한 연구

아동가정복지학 전공 박혜숙
지도교수 정민자

본 연구는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갈수록 다양하고 복잡한 삶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에 봉착한 현대인들에게 역경에 놓였을 때 이를 해결하는 방법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2012년 유네스코가 세계기념 인물로 지정한 정약용의 역경의 삶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문헌자료를 토대로 생애사 연구를 기초로 한 내용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의 목적은 다양한 위기와 역경에 놓인 위기 가족들에게 본 연구가 고난을 이겨내는 가족 긍정모델로 작용하여 개인의 위기상황을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가족의 안정성과 건강성을 회복하는 길잡이가 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건강 가족 모델로 제시되어 가족 문제에 대한 실천적 개입에 성격강점과 가족 레질리언스와 같은 강점관점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정약용의 생애에 나타난 역경과 성격강점, 생태체계 및 가족 레질리언스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약용의 생애를 분석한 결과, 수학기, 사환기, 유배기, 해배 이후로 살펴보았다. 정약용의 생애에서 유배기는 천주교 문제가 대두되어 경상도 장기와 전라도 강진으로 18년을 집을 떠나 귀양살이했던 혹독한 고통의 시기였다. 그러나, 정약용의 학문과 사상의 체계가 완성된 커다란 업적을 남긴 가장 의미 있는 시기로 나타났다.

둘째, 정약용의 역경을 분석한 결과, 천주교에 대한 서적을 받아 읽고 잠시나마 관심을 가졌던 것에서 비롯된 천주교 문제는 당시 지배사회의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 받아들여져 거센 탄압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혹독한 탄압에서 정약용을 지켜주던 재상 체제공과 정조의 죽음으로 인해 유일한 보호 체계가 사라졌고 당쟁으로 치달았던 정치탄압과 어린 아들과 조카, 세상 하나뿐인 지기 중형 정약전의 죽음은 정약용을 오랜 시련에 빠트리는 역경으로 작용하였다.

셋째, 정약용의 성격강점을 분석한 결과, 학구열은 오랜 유배 생활 동안 학자로서의 업적을 확고히 하는 결과로 나타났고, 용감성과 끈기는 권력에 타협하지 않고 어려운 현실에도 포기하지 않으며 힘든 상황을 곳곳이 견디게 해주었다. 사랑과 이타성은 가족들이 더욱 화합하여 서로 위해주고,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먼저 나서서 도와주는 태도로 나타났다. 시민성과 공정성은 피폐한 백성들의 삶에 통탄하여 목

민관으로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행동으로 나타났다. 신중성과 자기조절은 폐족으로 떨어진 가문이라고 하여 함부로 경솔한 언행을 삼가고, 일상에서 흐트러짐 없이 스스로의 언행을 점검하도록 하였다. 낙관성과 심미안은 고통스러운 현실을 유연하게 받아들여 고통에 적응하고 자연에 심취하여 오랜 유배 생활을 견고하게 지탱할 수 있게 작용하였다.

넷째, 정약용의 생태체계를 개인체계, 가족체계, 사회체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개인체계에서는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야 하는 환경에서도 서간을 통해 변함없는 사랑과 정성으로 가정교육을 수행한 훌륭한 아버지였으며, 학자로서의 정약용은 위기의 순간을 학문연구를 위해 주어진 시간이라는 긍정의 의미로 받아들여 500여 권의 방대한 저서를 완성한 대학자의 업적을 이루었다.

가족체계에서는 8대 옥당 가문의 본가와 시화에 뛰어난 자질을 가진 해남 윤씨 외가, 그리고 경제적으로 운택한 처가의 도움은 정약용에게 득이 되는 환경이었다.

정약용의 사회체계는 사회적 친분 관계와 시대적 배경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지역사회에서 친분 관계를 형성한 사람들이 정약용이 가진 학자로서의 자질과 학문적 능력을 높이 사 유배 생활 동안 관계자본의로써 도움을 주었고, 시대적 배경은 권력층의 당파싸움과 천주교 대 탄압으로 혹독한 시련을 안겨주었다.

다섯째, 정약용의 가족 레질리언스를 살펴본 결과, 가족신념체계에서는 역경을 학문연구를 하기 위한 의미 있는 시간으로 받아들이고, 역경에서 오는 괴로움도 영원하지 않다는 긍정적 시각으로 바라보며, 고통에 매몰되어 있지 않도록 하였다. 가족 조직과정에서는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생계문제를 선비로서의 품격을 해치지 않고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국화재배와 양잠을 하도록 하는 융통성을 발휘하였다.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환경의 제한에도 서간을 통해 자녀교육을 수행하였고 사회적 관계자본의 적절한 활용은 유배 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친가, 외가, 처가의 우수한 집안배경은 정약용의 학자로서의 자질과 발전에 도움이 되었다.

가족 의사소통 과정은 가족 기능을 활성화하는 명료성과 개방적인 정서표현으로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고 문제 상황에서는 합리적인 해결방법을 찾아 대안을 제시하고 미래의 도전에 대한 준비자세를 취하였다.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는 삶의 형태에 따라 양상을 달리하는 가족 형태의 변화에 맞물려 가족의 중요성이 간과되고 가족 해체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가족학적 관점에서 현시대에 추앙받고 있는 역경을 극복한 위인의 삶에 대한 생애사 연구를 진행하여 가족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가족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주제어: 정약용, 역경, 생애사, 성격강점, 생태체계, 가족 레질리언스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누구나 뜻하지 않게 소중한 사람의 죽음 및 학업이나 직업에서의 어려움과 재해 및 각종 사건 등의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순간 즉, 역경을 경험하게 되고, 그 상황에서 유발된 심리적인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러한 역경들은 사전에 예방이나 통제가 어렵다는 점에서 개인의 안녕감에 상당히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서미, 이자영, 2012).

스물셋에 교통사고로 전신화상을 입고 30번 넘는 수술을 견뎌낸 ‘지선아 사랑해’ 저자로 잘 알려진 이지선씨가 모교의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강단에 서게 되었다. 이 교수는 지난 2000년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치고 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 음주 운전자가 낸 7중 추돌사고로 전신 55%에 3도의 중화상을 입었다. 사고로 30번이 넘는 대수술과 재활치료를 받았지만,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여덟 개의 손마디를 절단하고 3급 장애진단을 받았다. 그녀는 사고로 인한 역경에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원망 대신 감사할 것을 찾으며 고통을 버텼다고 말했다(다음뉴스, 2023).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구나 처할 수 있는 역경에 대한 자세는 개인이 가진 긍정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 역경을 통해 성장과 발전을 이루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좌절과 부정적인 태도로 실패감과 무력감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다. 긍정적인 사고와 태도는 개인의 삶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Byrne, 2006; Osteen, 2005). 개인이 가지는 긍정자원에 따라 삶의 방향이 확연히 달라지는 것을 보면 현대사회에서는 개인이 스스로 자신을 돌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회가 되었다(권석만, 2008).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갈수록 다양하고 복잡한 삶 속에서 개인은 끊임없는 문제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강점을 활용하여 역경에 기인한 부정적 사고를 예방적 차원에서 적절히 대처해야 하는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Peterson과 Seligman(2004)이 체계화한 성격강점은 개인의 행복과 자아실현에 기여함과 동시에 삶의 역경에 대처하는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역경 가운데서도 안녕감을 증진시키는 내적 자산으로 작용한다. Seligman(2002)에 따르면 강점은 시간과 환경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심리적 특성이며 그 자체로 가치가 있고, 김광수와 한선녀(2015)는 인간의 발달에서 성격강점을 인식하고 활용하여 계발하는 것은 전 생애에 걸친 긍정적 발달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하였다. 개인의 일시적인 행운보다 경험에 기반을 두고 형성되는 폭넓은 강점은 역경에 제대로 맞설 수 있는 요소가 된다. 이러한 강점은 타고나기도 하지만 역경을 경험하며 형성되기도 한다(Brown et al, 2017).

Niemiec(2019)는 인간에 대한 역경의 유익함을 강점과 관련하여 제시하였는데, 역경이 인간에게 유익한 기능적인 측면은 강점을 활용하여 문제 발생을 예방하고, 문제를 재해석하여 설명하는데 기존의 강점을 응용하고, 삶의 보호 경계를 지탱하여 강점을 활용한다고 하였다.

성격강점의 개입이 행복이나 삶의 만족도, 주관적 안녕감 증진과 우울의 감소와 같은 정서적 긍정 변화뿐만 아니라 진로준비 행동이나 이타 행동 등의 행동적 긍정 상태와 대인관계 등의 사회적 긍정상태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인간의 전반적인 긍정 상태변화를 위해서 지속적인 성격강점 개입 연구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이민아, 김광수, 2019).

정민자(2016)는 모든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다양한 역경들을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역경은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역경을 극복해 나가는지 알아보는 것은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하였다.

개인이 처한 갑작스러운 사건이나 사고는 가족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가족을 체계로 보는 가족체계이론 관점에서는 개인의 문제를 단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가족 단위로서의 상호작용과 연결성 속에서 해석하고 접근해야 한다. 이는 결국 가족 구성원 중 누군가가 위기상황에 빠지게 되면 그로 인한 영향은 당사자를 포함한 가족 전체로 확산된다. 즉, 가족원 개인이 겪는 위기와 역경은 그 가족원이 가정 내에서 자기 역할을 못하여 균형이 깨어지게 되고, 가족 문제나 역기능성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가족 전체가 위기에 빠지게 되고 현재의 가족생활에 위협을 받게 된다(박정윤, 2012).

결국, 현대사회는 위기와 역경을 우리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되, 위기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시키는 위기관리에 대한 사회화의 필요성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현대사회가 갈수록 위협해지고 개인은 끊임없이 문제 상황에 직면하기 때문에 이러한 위기와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대처능력이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체계 내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이정연, 2011).

가족의 위기에 대한 대처능력은 각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에 의해 규정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역경이나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능력인 가족 레질리언스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가족 레질리언스는 문제 중심에서 벗어나 강점을 지닌 가족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회복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기능적 단위로 적응하는 과정을 의미한다(박혜란, 전귀연, 2012). 이러한 가족 레질리언스 관점의 접근은 가족의 위기를 문제로 보기보다 강점에 초점을 맞추고 가족이 어떻게 성공하는가에 중점을 두므로 위기에 처한 가족을 지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예방과 개입을 안내하는 중요한 지침으로 작용할 수 있다(양옥경, 김연수, 2003).

가족은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단위로 하나의 체계를 이루고 있으며, 개인과 사회의 중간에 위치한 미시체계이며, 개인과 사회환경에 따라 구조적, 기능적으로 변화하는

체계이다.

인간 생태학적 관점에 의하면, 인간과 환경은 근본적으로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의존적인 관계에 놓여 있으며, 일련의 순환작용으로 구성하고 있다 (Bronfenbrenner, 1979, 이영 역, 1995). 미시체계에서부터 다양한 하위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체계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환경과 상호호혜적인 반응을 지속해 나간다 (이정연, 2011).

그러므로, 역동적인 인간의 삶의 과정에서 다양한 위기상황을 경험하는 가족은 가족을 둘러싼 생태체계적 관점에 입각하여 가족이 지닌 강점을 찾아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가도록 가족 레질리언스적 접근방법으로 위기 가족의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효과적인 개입일 수 있다(김밀양, 2014).

역경 극복 및 가족 레질리언스에 관련한 연구는 역경 후 성장에 이르게 하는 매개 효과를 밝히는 연구(장 에스더, 2021; 전지예, 2020; 서유진, 2018; 이정신, 2016)와 가족 레질리언스가 특정 대상의 스트레스와 적응 및 생태체계 변인을 밝히는 연구가 대부분이다(권혜민, 2018; 김밀양, 2014; 곽은실, 2012; 김은정, 2008; 김안자, 2005).

위기와 역경을 이겨 낸 인물의 강점 및 가족 레질리언스를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연구한 결과들은 많지 않다. 그러나, 가족학 연구자들에 의해서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김현정, 2023; 이정희, 2020; 한복희, 2019; 김지현, 2017).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기와 역경에 놓이게 되면 사람들은 이와 유사한 삶을 살아낸 사람들의 경험을 접함으로써 극복하여 용기를 얻고자 한다. 우리가 위인의 삶을 본보기로 하여 인생의 지혜를 얻고자 하는 것이 이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복잡하고 다변화되는 현대사회에서 수많은 어려움에 봉착한 현대인들에게 “역경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해결방법의 방향성을 제시하려 한다. 이에 연구자는 2012년 유네스코가 세계기념 인물로 지정한 다산 정약용(1762~1836)의 생애에 나타난 역경의 삶을 살펴보고자 한다. 정약용의 생애사를 통해 위기와 역경을 이겨 낸 근원적 힘인 성격강점과 가족 레질리언스를 생태체계를 기반으로 밝히고자 한다. 정약용의 생애사적 접근을 통해 역경 극복의 원천을 살펴보려 하는 이유는 가족 생애사라는 것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한 개인과 환경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개인의 변화를 의미하며, 생애사적 관점이란 가족사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하는 틀으로써 시간의 변화에 따른 생활 사건과 개인과 관계의 발달, 사회적·역사적 사건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방식과 생애 초기 시기가 후기 시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기 때문이다(David L. Morgan & Margaret T. Spanish, 1985).

역경을 이겨 낸 대표적인 인물로 위인의 반열에 올라있는 정약용은 유배기라는 시기를 통해 큰 위기와 시련의 고통을 겪으면서 수많은 고초를 경험했지만, 역경의 삶 속에서도 행복을 구현하였다. 18년의 유배 생활이라는 극단적 환경에서도 500 여권에 달하는 저술을 완성해 후대에 위대한 업적을 남긴 다산 정약용의 삶은 복잡하고 다변화되는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로 고통받는 현대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양한 위기와 역경에 놓인 이 시대의 위기 가족들에게 본 연구가 고난을 이겨내는 가족 긍정모델로 작용하여 개인의 위기상황을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가족의 안정성과 건강성을 회복하는데 길잡이가 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개인의 역경 극복과 가족 문제를 해결하는 기초교육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건강 가족 모델로 제시되어 가족 문제에 대한 실천적 개입에 성격강점과 가족 레질리언스와 같은 강점관점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2. 연구 문제

정약용의 생애에 나타난 역경을 통해 본 성격강점과 생태체계 및 가족 레질리언스를 통해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정약용의 생애에 나타난 역경은 어떠한가?

연구 문제 2. 정약용의 역경을 통해 본 성격강점은 어떠한가?

연구 문제 3. 정약용의 생애에 나타난 생태체계는 어떠한가?

연구 문제 4. 정약용의 생애에 나타난 가족 레질리언스는 어떠한가?

Ⅱ. 이론적 배경

1. 생애사 연구

1) 생애사 연구의 개념

생애사 연구(life history research)는 질적 연구방법의 한 형태로 ‘인간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구하기 위한 대안적 방법론’으로 인정받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그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Kouritzin, 2000). 1920~1930년대 시카고학과 Thomas와 Znaniecki의 연구 ‘유럽과 아메리카에서의 폴란드 농부’에서 시작한 생애사 연구(Adriansen, 2012)는 실증주의의 여파에 밀려 1950년대부터 쇠퇴의 길을 걷게 된다(Lewis, 2008). 그러나 1960년대 독일 사회학자 빌레펠트 학파를 중심으로 다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이희영, 2005). 1980년대 포스트모더니즘 출현으로 제2의 전성기(Robert, 2002)를 맞이하게 된 생애사 연구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사회과학 연구에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역사, 심리, 문화 연구뿐만 아니라 정치, 교육, 이주 연구 등에서도 활용되고 있다(Ojermark, 2007).

생애사 연구는 참여자의 목소리를 통해 사회(교육)현상을 탐구한다(Goodson, 2001). 생애사 연구는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창문을 통해 공적인 맥락을 발견하여 이야기로 기술하는 연구방법이며, 개인이 삶의 이야기가 담고 있는 공공적인 맥락을 시간의 전경 속에서 발견하려 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김영순 외, 2018). 생애사 연구는 개인적인 삶의 특징과 사회적 조건을 함께 이해하고 연구하는 방법으로, 생애사 연구에 수많은 정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의의 공통점은 개인을 대상으로 면담을 통한 구술자료 수집과 수집된 구술자료를 해석하여 그에 따른 결과를 삶의 이야기로 풀어내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김영천과 한광웅(2012)은 생애사 연구를 “ 연구참여자가 살아온 삶의 이야기 혹은 생애담을 통하여 사회현상이 생성되는 맥락을 이해하는 질적 연구방법”이라고 정의하고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첫째, 생애사 연구는 참여자가 겪어 온 삶의 이야기를 단순하게 기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회학적 안목으로 해석한다.

둘째, 생애사 연구는 시간과 공간 그리고 사회 중에서 시간의 축을 중심으로 하여 참여자가 살아온 삶의 이야기를 살펴본다. 왜냐하면, 시간성은 삶의 이야기가 형성되면서 현재에 이른 과정을 드러내는 매개이기 때문이다.

셋째, 생애사 연구는 아주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참여자가 살아온 삶의 이야기를 구술면담하는 연구방법이다.

해석적 방법에 기초한 생애사 연구는 표준화된 연구방법론을 통하여 인간의 생애

에 나타난 복잡한 경험적 실재와 삶의 진리를 해명할 수 있다는 실증주의를 거부하고 행위의 주체인 인간의 삶의 과정과 체험을 탐구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인간의 체험을 드러낼 것인가를 연구하고 있다(이동성, 2015). 이는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에 토대로 사회현상을 이해하려는 실천 지향적 연구방법으로 해석학적 전통과 사회적 행위개념을 수용하여 생애사적 경험과 사회적 조건 사이의 상호 작용적인 구성과정을 발견하였다(이희영, 2005).

생애사 연구방법의 주요한 특징으로 시간성(temporality)은 개인의 생애를 관통하고 있는 시간과 사회적 맥락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 이러한 시간성은 다른 질적 방법과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이재인, 2004). 따라서, 생애사 연구는 개인이 살아가는 삶의 과정을 끊임없는 학습의 과정으로 보고, 그 과정을 분석하고 재구성하는 것이다.

생애사(Life history)에서 연구자는 한 개인의 삶에 대해 보고하며, 그 삶이 어떻게 사회 문화적 주제와 개인적 주제, 제도적 주제와 사회 역사를 반영하는지를 보고한다(Cole, 1994).

생애사 연구방법은 양적 연구방법으로 도출할 수 없는 평범한 주체들의 개인적이고 일상적인 삶을 역사적으로 조명하고, 또한 그동안 주변화된 주체들의 소외와 침묵을 풍부하게 재현할 수 있다. 그리고, 맥락성과 내러티브, 관계성의 특징이 있는 생애사 연구방법은 사회구성원들의 미시적이고 역사적인 삶의 맥락을 사회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맥락에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법론적 장점이 있다(이동성, 2015).

2) 생애사 선행연구 고찰

생애사 연구(Life history research)는 여러 분야에 적용되어 활용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아동가정복지학을 포함한 사회복지학 분야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교육학, 사회학, 여성학, 인류학, 스포츠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생애사 연구가 이루어졌다(강숙희, 2013). 이렇게 다양한 생애사 연구의 활용은 개인의 일생을 사회적·경제적·정치적 맥락에 연결시키는 관계적 특성, 이것은 거시적 맥락과 미시적 과정을 연결하는 특성이 있기에 가능하다(민성은, 최성호, 김영천, 2017).

앞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생애사 연구는 참여자가 살면서 겪어 온 삶의 이야기를 통해 사회현상이 생성되는 맥락을 이해하는 질적 연구방법으로, 맥락성, 구술성, 내러티브적 성격을 갖고 있다. 또한, 참여자가 살아온 삶의 이야기 자체보다 이야기의 배경을 이루는 시간적 맥락에 관심을 갖고 있다.

정약용은 18년의 유배 생활이라는 역경의 삶을 살아낸 조선 후기 위대한 학자로 위기의 삶 속에서도 특유의 강점을 발휘하여 500여 권에 달하는 저술을 완성하였다. 정약용이 생존한 시대적 상황과 정약용은 어떤 상호작용으로 서로에게 영향을 끼쳤는지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의 생애를 분명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앞서 생애사 연

구에 대한 선행연구를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질적 연구가 양적 연구와 더불어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중요한 연구방법으로 대두되면서 특히 교육학 분야에서 생애사 연구가 활발하였다.

김경식(1998)은 선구적으로 생애사적인 연구를 활용하여 고교 중퇴생의 삶을 문화적으로 탐구하였다. 류태호(2000)는 생애사적으로 체육 교사의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을 연구하였고, 이어서 김영천과 정정훈(2003)은 처음 교직 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초등학교 초임교사가 해결하는 과정을 생애사 연구로 접근하였다. 또한, 생애사 연구는 교사의 삶을 다층적으로 연구하는 방법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이점우(2006)는 자신이 여교사로서 살아온 삶을 생애사적으로 살펴보고, 우지만과 백종수(2011)는 중학교 체육 교사의 삶의 단면을 잔잔하게 담아내었다. 이동성(2011)은 가족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자문화 기술지를 활용한 연구를 통해 생애사 연구의 저변을 확대했다.

다른 한편으로, 인류학과 사회학에서 생애사 연구에 대한 방법론적 논의와 탐구도 일찍부터 시작되었다(이희영, 2005; 유철인, 1998, 1990). 하지만 이런 선행연구들에서는 생애사 연구에서 자료수집과 분석 및 글쓰기 기법을 연구하거나 생애사 연구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에 그치고 있다.

본 연구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다변화된 사회에서 뜻하지 않은 위기와 역경의 삶에 힘들어하는 현대인들에게 역경을 이겨 낸 위인의 삶을 본보기로 제시하여 역경 극복의 동기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생애사적으로 접근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정치영(2007)은 이순신 장군의 지도자적 역량과 임진왜란 수행에 관한 연구에서 오늘날의 혼돈한 시대에 이순신과 같은 탁월한 지도자의 비상한 통솔력과 구국정신으로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리더십을 갖춘 인물 발굴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지도자적 인물의 출현으로 국가 태세전환을 바라는 이러한 의미의 연구는 나아가 실제로 훌륭한 리더가 갖춘 리더십의 성격과 가치에 대한 연구로 이어졌다. 조신호(2015)는 이순신 리더십의 성격과 교육적 가치연구에서 한국 사회 전체가 훌륭한 리더십을 갈망한다고 평가하면서 이순신을 홍익인간 이념을 실현한 인물의 본보기로 정하고, 그의 리더십을 분석하여 ‘사람 됨’을 가르치는 학교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하였다.

김지현(2017)은 신사임당의 생애사 속의 가족 레질리언스를 찾아 당시 신사임당의 가정환경과 자녀교육 방법이 현대 사회의 가족생활에 어떤 귀감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남성 중심 사회에서 독립적인 여성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생태학적 환경의 역할이 컸음을 발견하고 시대가 달라도 위기에 대처하는 힘은 시대를 뛰어넘어 귀감이 되고 신사임당의 가족 레질리언스가 행복한 가정 만들기와 좋은 부모 되기 프로그램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하였다.

한복희(2019)는 한국 독립운동사에서 독보적이며, 한국 보훈 이래로 가장 많은 서훈을 받은 가문의 구성원인 안중근의 생애연구를 통해 역경을 이겨 낸 가족 레질리

언스를 살펴보았다. 안중근이 독립운동을 하게 된 계기가 당시의 피폐한 민족의 삶과 열악한 환경에 놓인 시대 상황에서 발현되었고, 계몽 정신은 다양한 국가를 위한 활동으로 전개되었고, 이러한 독립운동 정신의 바탕에 가족 레질리언스가 작용한다고 하였다.

서현실(2021)은 빌 게이츠 생애에 나타난 성격강점과 가족 레질리언스 및 가족 정서체계 연구에서 막대한 부를 축적한 부자 빌 게이츠가 자선활동을 통해 축적한 부를 사회 환원으로 돌려주며 인류에게 큰 공헌을 하게 된 가족의 레질리언스가 무엇이며 세대를 통해 긍정적 대물림 되는 빌 게이츠 가문의 가족 정서체계를 분석하였다. 오늘날의 빌 게이츠가 있기까지 역할모델로서 부모의 영향이 컸고 전통으로 내려오는 가문의 문화적 영향 또한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김현정(2023)은 화가 이중섭의 생애에 나타난 작품 경향과 생태체계 및 가족 레질리언스 연구에서 40년 인생을 역경과 위기에서 살다 간 이중섭의 작품에서 긍정적인 가족의 힘 즉 가족 레질리언스를 발견하였고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사회체계는 장애물로, 가족체계는 긍정적 원동력으로 작동하였다고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인 정약용의 생애와 관련한 연구를 살펴보면, 정약용의 자녀교육 및 자녀교육 가치관에 관련한 연구가 대부분이다(김미준, 2017; 정성윤, 2013; 김민옥, 2005; 류정희, 1990).

정약용의 생애사 연구에서 자녀교육과 관련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부모의 관점에서 아버지로서의 정약용의 훌륭함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렇게 훌륭한 아버지가 되기까지 작용한 개인강점이 무엇이며, 생태체계는 그에게 어떻게 상호작용 하였고, 고된 역경을 이겨 내고 해배 이후에도 개인적인 성장과 가문의 위상을 회복하도록 작동한 가족 레질리언스가 무엇인지 정약용의 생애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성격강점

1) 성격강점 개념

성격강점(Character Strength)은 긍정심리학의 흐름에서 등장한 개념으로, 사고와 정서 및 행동에 반영되어있는 긍정적인 특질을 말한다(하승수, 2012; Peterson & Seligman, 2004).

Seligman(2002)은 “심리학은 인간의 약점과 장애에 관한 학문만이 아니라, 강점과 덕성에 관한 학문이기도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고, 인간의 역기능이나 부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둔 기존 심리학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자 긍정 정서 및 성격강점과 같은 인간의 긍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춘 긍정심리학을 제창하였다(Seligman et

al, 2005). 긍정심리학은 기존의 불균형적 시각을 교정하려는 시도로, 약점만큼 강점에, 삶에 있어서 최악의 것을 회복하는 것만큼 최고의 것을 설계하는 것에, 그리고 불행한 사람들이 삶을 치유하는 것만큼 건강한 사람들의 삶을 충만하게 만드는 것에 관심을 갖는 학문이다(Peterson, 2006).

긍정심리학은 개인이 살아가면서 겪는 긍정적 경험과 역경을 극복한 경험 등에 대한 이해와 통찰을 하도록 도와 그들의 삶에서 부정적인 경험과 고통을 줄이고 균형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제공한다(Seligman et al., 2006). 성격강점이 긍정심리학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질병 모델의 대안인 성장 모델을 근간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성격강점 중에서 사용 빈도가 높고, 개인의 특성이 잘 반영된 강점을 대표강점(signature strength)이라고 하는데, 누구나 2~5개의 대표강점을 지니고 있으며, 일상에서 이를 잘 활용하면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고 하였다(Seligman, 2002).

자신의 대표강점을 찾아내고 이를 활용하는 것은 자기실현에 있어 아주 중요하다(권석만, 2008).

Seligman(2002)과 Peterson(2006)은 자기의 대표강점을 파악하도록 권하고 그중에서 하나를 골라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라고 했다. 자신의 대표강점을 발견하고 활용하는 것은 자기실현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는데, 이러한 강점은 어떤 일을 수행함에 있어 탁월한 성취를 이루도록 하는 역량이고 그 일을 하면서 의욕과 활기를 느끼게 하는 동기를 부여한다(Emmons & Crumpler, 1999).

성격강점이 중요한 궁극적 이유는 개인의 행복과 관련지어지기 때문이다.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이다. 행복은 삶의 최상위 목적으로 다른 모든 목적의 최종 도달점이다. 성격강점을 발견하고 계발하여 자신의 주요 생활영역에서 발휘함으로써 진정한 행복을 실현할 수 있다(김광수, 2019; 권석만, 2008).

정약용은 가족과 떨어져 유배지에서 18년이라는 긴 시간을 고통 속에 놓여 있었지만 그러한 조건에서도 서간을 통해 자녀들의 교육을 책임졌고, 학자로서 방대한 저서를 편찬하는 업적을 이뤄냈다. 역경의 시간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번성을 이루게 한 긍정적 원천과 실천방법이 무엇인지 그의 성격강점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2) 성격강점 분류체계

Peterson 과 Seligman은 2000년에 The Values In Action(VIA)연구소를 설립하여 ‘좋은 성격’ 또는 바람직한 ‘인격특질’의 의미와 내용, 측정방법, 발달 및 함양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를 하게 되었다. 그 결과 2004년에 VIA분류체계를 발표하였다(윤병오, 2013). 강점을 측정할 수 있는 VIA척도가 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실증적 연구가 시작되었고, 성격강점 및 성품분류체계(VIA Classification of Character Strengths and Virtues)는 성격강점과 성품 파악 및 인식활용 도구로 사용되고 있

다. 강점 분류체계(VIA)는 심리적인 결함이나 장애 분류체계인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DSM;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과는 정반대의 의도로 만들어졌다. 종교와 철학자들이 제시한 덕목과 심리학자들의 연구 자료, 청소년 발달의 주요이론에서 추출한 강점을 10가지 기준에 의해 6개 핵심 덕목과 24개의 하위강점으로 구성된 VIA 분류체계를 구성하였고, 이에 따라 성격강점과 덕성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들이 본격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Peterson et al., 2004). 6개의 핵심 덕목과 24개 성격강점의 세부항목은 <표 1>과 같다.

<표 1> 핵심 덕목과 성격강점(Peterson & Seligman, 2004)

덕목(Virtue)	성격강점(Character Strengths)
지혜 및 지식 (wisdom & knowledge) 지혜를 습득 활용하고 지적 성취와 관련한 인지적 덕목	창의성(creativity): 새롭고 생산적인 방식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 호기심(curiosity): 모든 경험과 현상에 관심과 흥미를 보이는 것 개방성(open-mindedness): 다양한 측면에서 철저하게 생각하고 검토하는 능력과 비판적 사고 학구열(love of learning):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우고 숙달하려는 것 지혜(wisdom; 통찰): 전체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고 현명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능력
용기 (courage) 난관에 직면하더라도 목표를 성취하려는 의지와 관련된 정서적 덕목	용감성(bravery): 위험, 도전, 난관, 고통으로부터 위축되지 않고 극복하는 것. 신체적 용감성을 포함하고 신념대로 행동하는 것 끈기(persistence; 인내): 시작한 일을 마무리하고 완성하는 능력. 어려움이 발생하더라도 계획한 일을 지속하는 것 진실성(authenticity; 정직):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 진지하게 행동하고 책임을 지는 것 활력(vitality; 열정): 열정적으로 삶과 일에 임하는 태도, 도전정신을 가지고 삶을 영위하는 것
인간애 (humanity) 타인을 배려하고 친절한 관계를 맺는 덕목	사랑(love):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 서로 나누고 돌보는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 이타성(altruism; 친절, 동정심): 타인에게 호의적이고 선한 행동을 하려는 동기와 실천력, 타인을 돕고 보살피는 행동 사회지능(social intelligence; 정서지능, 사회성): 타인의 감정과 동기를 파악하고 사회적 상황에서 적절히 행동할 줄 아는 능력
정의	책임감(citizenship; 시민의식, 협동, 충성심): 집단구성

<p>(justice) 건강한 공동체 생활과 관련된 사회적 덕목</p>	<p>원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제 역할을 다하는 것 공정성(fairness): 편향된 감정 없이 모든 사람을 동등하고 공평하게 대하는 것 리더십(leadership): 집단을 관리하는 능력으로 구성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집단을 지휘하는 것</p>
<p>절제(temperance) 지나침으로부터 보호하고 독단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덕목</p>	<p>관대성(forgiveness; 용서, 관용): 나쁜 일 한 사람을 용서하고 다시 기회를 주어 수용함 신중성(prudence): 선택이나 결정을 조심스럽게 하고 후회할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 것 겸손(modersty): 자신이 이뤄낸 성취에 대해 허세 부리지 않고 떠벌리지 않으며 스스로를 타인보다 특별하게 평가하지 않음 자기조절(self-regulation): 자신을 조절하는 능력으로 욕구와 정서를 통제하고 조절하는 것</p>
<p>초월(transcendence) 현상과 행위에 대하여 의미를 부여하고 우주와 연결을 추구하는 초월적 덕목</p>	<p>심미안(appreciation of beauty and excellence):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아름다움과 수월성, 숙련된 수행을 인식 평가하는 능력 감사(gratitude): 좋은 일을 알아차리고 감사하는 태도 낙관성(optimism, 희망): 미래에 좋은 것이 올 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유머 감각(humor): 웃고 장난치는 것을 좋아하며 다른 사람에게 웃음을 주는 능력 영성(spirituality):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과 의미에 대해 신념을 지니고 살아가는 태도를 말함</p>

첫째, 지혜 및 지식은 현상과 사물에 대해 여러 측면에서 사고하고 검토하는 능력으로, 좀 더 나은 미래와 삶을 위하여 지식의 습득과 이를 활용하려는 것과 관련된 인지적 덕목이다. 이에 대한 하위강점으로는 어떤 일을 새롭고 생산적인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으로 창의성, 어떤 것에 대해 흥미를 느끼고 발견하려는 호기심, 여러 가지 단서나 증거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새로운 증거에 따라 신념을 수정하는 태도인 개방성,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 주제에 대해 호기심과 배우려는 동기를 가지고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에 새로운 것을 체계적으로 조합하고 더해가는 경향성인 학구열, 통합적인 관점에서 현상 및 대상을 생각하고 타인에게 현명한 조언을 해주는 능력인 지혜가 있다.

둘째, 용기는 난관에 직면하거나 어려움이 있다 하여도 원래 목적을 성취하려는 의지와 관련된 덕목이다. 이와 관련된 위험, 도전과 난관, 고통 등으로부터 위축되지 않고 이를 극복하려는 능력으로 저항이 있더라도 무엇이 옳은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인기가 없을지라도 자신의 신념에 따라 행동하는 용감성,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계획된 행동을 지속하거나, 또는 과업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기쁨을 느끼고 시작한 일을 마무리해 완성해 가는 끈기, 자신을 거짓 없이 드러내고 감정이

나 행동을 수용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진실을 말하는 능력인 진실성, 그리고, 삶에 있어서 에너지를 가지며 생동감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활력이 있다.

셋째, 인간애는 타인을 보살피고 친밀해지려는 것과 관련된 덕목으로 이 덕목의 하위강점으로는 타인과의 관계를 귀하게 여기고 친밀하고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여 타인을 사랑하고, 사랑을 받아들이는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랑,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가지고 돕고 보살피는 선한 행동을 하려는 동기와 실천력인 이타성, 사회적 상황에서 적절한 행동을 하고 자신과 타인의 동기와 감정을 파악하려는 능력인 사회성이 있다.

넷째, 정의는 사회적 덕목으로 건강한 공동체 생활과 관련이 있다. 이에 대한 하위강점으로는 자신이 속한 집단구성원으로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역할과 임무를 다하려는 지세와 구성원과의 협조적인 태도를 말하는 책임감, 개인적 감정으로 편향된 태도를 취하지 않고 타인을 공정한 기준으로 대우하고,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는 태도인 공정성, 집단을 조직 관리하는 능력으로 집단의 구성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해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고 각자가 맡은 바를 해 낼 수 있도록 이끄는 리더십이 있다.

다섯째, 절제는 어떤 것에 있어 지나침을 막음으로써 자신을 보호해주는 긍정적 특질을 말하는 것으로 무절제와 치우침을 막는 중용적인 덕목이다. 이에 대한 하위강점으로는 타인의 단점을 수용하고 잘못된 행동을 한 사람을 수용하는 능력인 용서와 조심스러운 선택을 하고 후회할 일을 행하거나 말하지 않는 신중성, 자신을 남 앞에서 과시하거나 타인의 관심을 구하려 하지 않고 남보다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겸손, 그리고, 자신이 여러 감정이나 욕구와 행동을 원활하게 조절하여 통제하는 능력인 자기조절을 포함한다.

여섯째, 초월은 현상과 행위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고 자신을 초월한 대상과의 연결성을 추구하는 초월적 덕목이다. 하위강점으로는 삶에서 나타나는 아름다움이나 수월성 및 뛰어난 수행을 주목하고 감상하는 심미안, 좋은 일을 잘 인식하고 그것에 있어 감사하는 태도를 지니는 감사, 현재 상황에서 최선의 모습을 보이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태도인 낙관성, 다른 사람에게 웃음을 선사하며 웃고 장난치는 것을 좋아하는 유머 감각,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과 의미에 대해 일관성 있는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태도인 영성이 있다(Peterson & Seligman, 2004).

3) 성격강점 선행연구 고찰

긍정심리학은 개인의 성장 주도성과 희망을 중시하며 자신의 성격강점을 인식하고 가치를 명확히 해 더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어나가도록 할 만한 이론으로 자기 발전과 진정한 행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므로 인간의 긍정적 측면인 강점을 찾아내는 일은 그 자체만으로 충분히 의미 있고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필수적

인 일이다.

Seligman(2002)은 자신의 성격강점을 찾아내고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활용하는 것을 통해 개인의 탁월한 덕목과 재능을 추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자신의 성격강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강점을 피드백해 주었을 때, 긍정적 자아개념을 형성하고(Harter, 1998), 자신의 일에 대한 성취와 삶의 만족도가 증가한다는 연구결과와도 상통한다(Black, 2001).

자신의 성격강점을 인식하는 것이 적응과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러한 긍정적 적응은 어려움이나 역경의 경험 이후 성장의 경험을 통한 심리적 기능 및 자각 수준을 넘어서는 성장과도 연관이 있다고 하였다(차경호, 김명소, 2002; 김완석, 김영진, 1997; Luthar & Cushing, 1999).

국내의 성격강점에 관한 연구는 2000년대 후반부터 다양한 연령을 대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개인 내의 성격강점을 파악한 연구(김광수, 박호진, 김은향, 2014; 문용린 외, 2008)를 기점으로 성격강점과 관련 변인의 관계를 살핀 연구도 시행되었다. 구체적으로 성격강점과 행복(김지영, 2016; 김미선, 박성희, 김진영, 2013; 김성숙, 2012; 임영진, 2012), 성격강점과 학교생활 적응(강재란, 안미순, 박양균, 2014; 인보영, 김인옥, 2012), 성격강점과 진로(이정희, 유희정, 2016; 이호진, 김완일, 2016) 등의 관계를 알아본 연구들도 있다. 또한, 특정 직업의 대표적 성격강점을 조사한 연구(이소정, 2017; 장희선, 2017; 이재경 외, 2016; 박선희, 이지영, 2016; 박은아, 김원, 2015; 황해익, 탁정화, 2015;), 연구 변인 관련 대표적 성격강점을 활용한 프로그램 구성 후 실시한 실험연구(황정윤, 옥정, 2017; 김미진, 황해익, 2015; 남현우, 김광수, 2015; 최용성, 2015; 김광수, 김수연, 2014; 이정미, 구미향, 2014)도 진행되었다. 이민아와 김광수(2019)는 국내의 성격강점에 관한 연구는 전체적인 조망이나 방향성 없이 연구자의 개인 관심사와 필요에 따라 산발적으로 실시되어 왔다는 한계점을 지적하였다.

조성호(2003)는 국내의 상담연구자들이 연구주제나 방법의 선택에 있어서 연구수행의 편의성과 자료수집의 수월성을 강조하는 경향에 따라 “의미 있고 중요한” 연구보다는 “손쉽게 수행할 수 있는” 연구를 선호하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성격강점 연구방법은 조사연구(75.4%)가 가장 많았고 실험연구(17.2%), 문헌연구(4.1%), 개발연구(2.5%), 사례연구(0.8%) 순으로 나타났다. 특정 개별 성격강점을 다룬 사례연구나 문헌연구는 있지만, 성격강점 전반에 대한 것이나 대표강점 관련한 사례연구는 미진하다. 특히 연구자가 관심을 가진 소수의 특정한 사례나 사건, 현상에 대한 심층적인 사례연구는 성격강점 관련한 실질적이고 풍부한 시사점을 도출해 낼 것이기에 장려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이민아, 김광수, 2019).

사관생도의 성격강점과 행복 및 생활적응과의 관계를 고찰한 연구에서 사랑과 사회지능, 리더십, 유머, 활력, 용감성과 낙관성, 시민정신의 성격강점은 대인관계 및 심리적 적응의 영역과 매우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고 하였다(김광은, 윤유경, 권

석만, 하승수, 2010). 이것은 대부분 인간애(사랑, 사회지능), 정의(리더십, 시민정신), 용기(활력, 용감성)의 덕목에 해당하는 성격강점으로 이러한 성격강점을 개발시킨 사관생도일수록 대인관계 및 심리적 적응 등에 뛰어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격강점이 삶의 만족도와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문원정, 2009; 최은미, 2009)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격강점과 행복감이나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강재란, 안미순, 박양균, 2014; 박혜경, 2010)에서 나타난 결과는 성격강점이 행복감 및 생활적응과 긍정적 관계를 갖는다고 하였다.

이경옥, 정민자(2020)는 성격강점카드를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이 중학생들의 자아존중감과 행복도 향상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검증하였고, 최용성(2015)도 성격강점을 활용하는 것이 학생들의 덕(德) 개선과 행복에 증진한다는 것을 행복·덕을 위한 긍정심리학 성격강점 활용 교육프로그램의 적용과 평가연구에서 밝혔다.

이와 같이 성격강점의 발달은 사회성과 관련된 문제들을 예방하고 긍정적이고 건강한 관계를 맺을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해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Peterson et al., 2006). 여러 연구들에서 성격강점이 삶에서 위기와 역경에 직면한 사람들의 정신병리와 같은 부정적 결과를 완충하여 효과적인 예방을 한다고 밝혀지고 있다(이희경, 2006; Park, 2009).

윤경원(2017)은 위인전을 통해 본 과학자의 가족 역동성과 강점 분석연구에서 성격강점을 활용하였을 때 부모교육프로그램에서 가족 레질리언스가 향상되었음을 확인하였고, 성격강점이 개인의 행복과 부모의 양육효능감, 양육태도,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고, 역경 후 성장의 경험이 성공적인 삶에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서현실(2021)은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설립하여 전 세계에 컴퓨터가 보편화 되는데 기여한 빌 게이츠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빌 게이츠의 성격강점은 지혜와 지식 덕목이 대표강점으로 나타났고 그의 창의성은 삶 전체를 통해 발휘되었고 호기심은 그를 독서광으로 만들었다고 하였다. 정의 덕목과 초월성 덕목은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은퇴하고 빌 & 게이츠 재단 설립으로 교육, 보건 및 의료, 환경, 농업, 그리고, 여러 기술개발 등 다양한 형태의 자선사업을 펼쳐 글로벌 경영형태의 전략적인 사회공헌을 통해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을 제시한 인물의 반열에 올랐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약용이 유배 생활을 견뎌내고 18년의 기간 동안 가족을 지키고 개인적인 성장을 이뤄내 결국은 행복을 구현하게 만든 성격강점이 무엇인지 분석하여 위기에 처한 많은 사람이 역경을 기회로 삼아 개인적 성장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각자의 대표강점을 개발하여 이를 활용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3. 생태학적 체계이론

1) 생태체계이론의 개념 및 구성

생태학적체계이론(Ecological system theory)은 인간의 문제행동의 구조와 근원을 체계(system)의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것으로 환경의 계층적 구조들 속에서 인간행동과 개인과 환경적 사건 사이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틀을 제공한다(Bronfenbrenner, 1979).

생태체계적 관점은 인간의 생활과 같이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지속적인 과정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관점으로 Bertalanffy(1990)의 일반체계이론을 토대로 개념을 확장시켜 생태학적 체계이론으로 발전하였다.

생태체계적 관점은 초기에는 주로 자연생태계 변화를 설명하는 이론적 체계로 정립되었으나 곧바로 심리 사회적 현상을 설명하는 틀로 도입이 되었다(김춘경 등, 2016). Bronfenbrenner(1979)는 인간이 자신의 주위에 인접한 환경을 중심으로 하는 구조화된 생태계에서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을 주고받으며 발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인간발달을 분석하고 설명하는 체계론적 관점을 확대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이 새로운 접근에 대해 생태학적 체계이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또한, 그는 “능동적으로 성장하는 인간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환경과 전 생애에 걸쳐 점진적으로 형성되는 상호조절 과정에 대한 과학적 연구”라고 인간발달의 생태학을 정의하였다. 종합하면 인간발달생태학이론(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은 인간과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이 핵심이라는 것이다(심유화, 정미경, 2015).

환경 속의 인간을 기본적 관점으로 설정하는 생태체계이론은 인간의 행동은 환경과 분리하여 파악될 수 없고 지속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서로 영향을 미치는 호혜적인 관계로 이해한다. 이는 인간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환경 또한,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지속적 상호교류를 하는 것으로 설정하기에 인간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환경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에 주목한다(신연희, 2015).

인간은 사회체계 간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에 대해 한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거나, 또는 사회적 환경에만 별도로 분리접근 하기보다는 서로 간의 상호작용을 중요시하며 접근하는데 있어 생태체계적 관점을 유용한 틀로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은 인간행동의 이해에 있어 원인과 결과를 단선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환경들을 고려하는 것이다(박병금, 2006).

사회과학자들에 의해 학문의 한 분야로 연구되기 시작한 생태학적 체계이론은 인문과학, 사회복지, 가족치료와 같은 응용 분야에서도 확대되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Bubolz & Sontag, 1993).

가족도 하나의 생태계로 간주 될 수 있다는 주장을 근거로 시작한 생태체계 이론을 적용한 가족학 연구에서는 가족과 가족을 둘러싼 환경은 복잡하고 끊임없이 변

화하는 생활체계를 가진다는 것과 가족생활은 환경의 지배를 받기도 하지만 이와 동시에 환경에 자발적으로 대처하여 환경을 변화시켜 나간다는 역할에 초점을 두었다(배광일, 2011).

가족은 단순히 개인의 합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체계가 아니다.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로서의 가족은 각각의 구성원들과의 역동적인 관계 속에서 원활한 기능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가족 내에서 발생한 하나의 사건은 가족체계 전체에 연쇄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킨다. 가족은 이러한 변화에 적절한 적응을 해야 한다. 사회체도로서의 가족체계 안에서 구성원들은 사랑과 소속감, 수용 및 자아존중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지지와 격려를 얻을 수 있다(Kemp, 2001). 이러한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위기와 역경에 놓인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유용한 접근방법이라 할 수 있다.

생태체계이론에서의 체계 구분은 학자마다 상이 하다. Bronfenbrenner(1979)는 모든 수준의 환경에서 위협과 기회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하였고, 생태학적 환경을 4가지 수준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개인적 수준인 미시체계(microsystem)는 개인에게 영향력 있는 다른 사람들을 포함하여 직접적으로 상호작용 하는 상황을 말하며, 개인의 기능 수준과 지적 및 감정적 능력, 삶의 동기부여, 가장 가까운 환경속에서의 개인과 다른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 및 관계를 포함한다(Ambrosino et al., 2012).

둘째, 두 가지 이상의 미시체계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중간체계(mesosystem)는 한 사람의 삶에서 다양하게 겹쳐져 상호작용하는 미시체계들 간의 관계망으로 구성되며, 가정과 학교 간 관계, 학교와 직장 간 관계를 포함한다(Bronfenbrenner, 1992). 중간체계에서 개인은 환경의 변화에 따른 역할수행의 변화를 수반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허창덕, 2012). 셋째, 지역사회 수준의 외체계(exosystem)는 개인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개인이 기능하는 방식 즉, 유의미한 결정을 내리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역사회 수준의 요인들을 포함한다(Ambrosino et al., 2012). 외체계는 발달과정 중 개인이 환경들 속에서 적극적인 참여자로 포함되지 않지만, 그 환경 안에서 발생하는 사건들과 영향을 주고받는 환경이라 정의한다(Bronfenbrenner, 1992). 넷째, 종교나 법, 민족과 국가의 특징이념 및 문화에서 강조되는 철학 등을 포함하는 거시체계(macrosystem)로 동일 문화권 내에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비형식적이고 묵시적인 환경으로 사회규범, 문화, 정치, 공공정책, 법률, 종교, 경제 등 사회구성원들 정신에 내재 되어 있는 이데올로기이다(Bronfenbrenner, 1979, 이영, 1992 재인용).

Belsky(1980)는 개체발생론적 수준, 미시체계 수준, 외적체계 수준, 거시체계 수준 네 단계로 체계를 구분하여 가족 학대를 설명하였다(Kemp, 2001; 이화여자대학교 사회사업연구회, 2012 재인용). 학대자 개인적 요소는 개체발생론적 수준에서 형성되고 미시체계 수준은 집과 부모의 직업, 학교 및 친구 등과 같은 아동의 직접적인 환경에서의 요소를 말한다. 외적체계는 사람들에게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관계 즉, 법을 바꾸려는 사회적 노력과 아동학대 캠페인 등이 이에 해당한다. 거시체계는 모

든 것을 포함 시키는 것으로 문화 및 태도, 규범과 가치, 성 역할과 같은 모든 요소를 폭넓게 포함한다.

Kemp(1998)는 Bronfenbrenner의 이론을 기초로 Belsky 이론을 좀 더 단순화시켜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학대행위를 미시수준, 중간수준, 거시수준 세 수준 체계로 설명하였다. 미시수준은 개인 수준에서 모든 것에 적용할 때 사용하며, 개인행동과 성격, 개인적 동기 및 정신병리학에 대한 모든 설명을 포함한다. 중간수준은 가족체계가 포함되며 가족체계가 기능하는 방식이 어떻게 가족을 학대 또는 보호의 기능을 하는지 설명한다. 거시수준에서는 지역사회와 전체사회 수준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문화와 사회요소들로 설명 하였다(kemp, 1998; 이화여자대학교 사회사업연구회, 2012 재인용).

생태체계이론의 특징을 정리하면, 첫째, 환경은 임의적 이중성이 아니라 관계가 지속적 상호 관련되는 과정으로 구성되는 복합적인 환경, 행동, 인간 전체를 의미한다. 둘째, 개인과 집단, 환경 간 상호의존성이 강조된다. 셋째, 체계론적 개념들은 생태학적인 전체 내에서 복합적인 상호관계를 분석하는데 활용된다. 넷째, 인간행동은 인간과 변화무쌍한 환경 간 중개적인 상호교류의 산물이다(김춘경 등, 2016).

이와 같은 생태체계 이론의 특징에 초점을 맞춰 정약용의 강점과 가족 레질리언스를 각 수준에서 상호 간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받았는지 본 고에서 밝혀보고자 한다.

2) 생태체계 선행연구 고찰

가족의 강점과 능력을 재발견하도록 돕고 기존 대처능력 또한 재발견하여 새로운 상황에 적합하게 변화 및 활용할 수 있도록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는 방법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생태학적 모형은 가족 및 개인의 문제를 다양하게 연구하기에 유용하다고 하였다. 생태학적 접근방식으로 건강가정지원 사업에 필요한 이론적 틀과 개념모형, 프로그램 개발의 실천지침을 제안하는 연구를 하는 등 다양한 가족이 처한 시간적, 공간적 상황과 유형의 생태학적 접근과 가족 중심 접근이 제안되었으며 효과적인 실천지침이 제시되었다(윤종희, 2006).

생태체계이론을 적용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최화강(2012)은 여성 독거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요인연구에서 가족관계, 노인에 대한 사회적 태도 및 사회적 지지는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우울과 자존감은 매개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여성 독거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족과 사회가 심리적인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차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천해야 한다고 하였다.

배광일(2017)은 노인의 자살 생각에 대한 생태체계적 접근 분석에서 개인체계에서는 연령이 낮고 우울감이 높으며 자아존중감이 낮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노인이 자살 생각이 높고 가족체계에서는 가구 형태의 변화로 독거노인 가구가 자살

생각이 높음을 알 수 있었고, 사회체계에서는 빈곤하거나 경제활동이 없는 경우 자살 생각이 높다는 점을 확인하고 노인 자살 문제에 대한 정책적 접근방법을 개인과 가족, 사회로 나누어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하였다.

장정문(2017)은 위기 유형에 따른 가족의 생태체계 변인의 취약성 연구에서 가정 폭력 및 성폭력 경험 가족과 자살 경험 가족, 이혼 경험 가족은 미시체계의 취약성이 위기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하였고, 학교폭력 경험 가족은 미시체계를 포함한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까지 위기에 관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재난 및 기타경험을 한 가족은 특별한 체계의 취약성과는 관여되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이태석 신부의 생애에 나타난 생태체계와 가족 레질리언스에 관한 이정희(2020)의 연구에서 연구자는 경제적으로 빈곤한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난 이태석 신부가 어머니의 헌신적 사랑과 형제의 우애 속에서 가정의 종교적 영성과 종교적 관계로 인해 수도자로서 해외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보살피는 가족생활 공동체에서 사랑과 헌신의 삶을 실천한 근거를 생태체계 안에서 살펴보았다.

양외금(2022)은 중년 후기 성인의 생태체계 관점에 따른 노후 준비와 성공적 노화 인식에 관한 연구에서 미시체계에서는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중간체계에서는 여가활동 만족감이 높을수록, 외체계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거시체계에서는 정책 신뢰가 높을수록 노후 준비가 잘 됨을 확인할 수 있었고 성공적 노화 인식과 각각의 체계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지만, 노후 준비를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현정(2023)은 화가 이중섭 생애에 나타난 작품 경향과 생태체계 및 가족 레질리언스 연구에서 이중섭을 천재적 예술가로 만든 가정환경을 분석하였다. 이중섭 작품의 근간은 가족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가족체계는 긍정적 원동력으로 작용하였고 사회체계는 장애물로 작용하였다고 나타났다. 개인체계분석 결과에서는 예술가적 기질을 타고난 INFP 유형으로 판단하였고 신체적으로 튼튼한 체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예술가적 기질은 가족체계 지원 속에서 성장 발달하였고, 체력은 사회체계의 어려움으로 인해 무너져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개인의 타고난 기질과 체력도 다른 체계의 영향에 의해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음을 생태체계적 관점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생태체계 이론을 적용한 대다수의 연구는 개인이나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양적 연구방법으로 실시되었다(김밀양, 2014; 배광일, 2017; 권혜민, 2018; 김규리, 2021).

본 연구는 생태체계가 정약용의 생애에 어떻게 작동하여 역경을 이겨내고 무너진 가문을 일으켜 세워 번성한 삶으로 이어졌는지 질적 연구방법으로 생태체계를 미시수준, 중간수준, 거시수준으로 구분하여 각 요소를 알아보고자 한다.

4. 가족 레질리언스

1) 가족 레질리언스 개념

모든 가족은 전 생활주기를 통해 예측되거나 혹은 예측하지 못한 생활사건을 경험하며, 이러한 생활사건은 개인 및 가족에게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한다(안양희, 2006).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한 사건들은 가족의 기능수행 능력에 위협을 주게 된다(Coyle 등, 2009). “동일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어떤 가족이 건강하게 잘 지내는가?”에 대한 답을 찾는데 가족 레질리언스 개념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레질리언스의 사전적 정의는 강압적 스트레스에 의해 변형된 물체나 신체의 모양과 크기가 회복하려고 하는 능력(Merriam-Webster, 2006)이며,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회복력, 극복력, 복원력, 적응 유연성 및 탄력성 등의 여러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레질리언스 개념은 처음에는 역경 상황 아래에서 아동의 긍정적인 적응을 연구하면서 나타나기 시작하여(Rutter, 1987), 점차 가족체계 연구로 확대되어왔다(Allison et al., 2003; Walsh, 1998). 국내에서는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 가족 레질리언스에 대한 본격적인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으며 가족학자들은 높은 위험 상황에서도 적응하는(positive adaptation) 가족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개인 탄력성의 개념과 유사하다고 보고 가족 탄력성이라고 명명하였다(신미숙, 2013).

McCubbin과 Patterson(1981)은 가족 레질리언스 개념을 처음 사용하였는데, 가족이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하는데 사용되는 적응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Hawly와 DeHaan(1996)은 가족 레질리언스는 정적인 상태보다는 역동적인 과정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다르게 되는 그리고, 수정되는 하나의 트랙으로 개념화했다. 가족 레질리언스는 시간이 경과 하면서 스트레스에 직면할 때 가족이 스트레스에 적응해 나가는 경로라는 것이다. 이것은 레질리언스를 가족만이 가지는 독특한 발달과정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며 병리적 관점보다는 가족을 건강 관점 개념으로 보고 위기와 문제들을 극복하고 회복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Valentine & Feinauer(1991)은 어려움을 견디고 본래의 위치 또는 상태로 되돌아가는 힘과 능력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상황에서 역경을 극복하고 생존하며 불리한 상황에서 일어서는 능력이라고 하였다.

Walsh(1996)는 가족 레질리언스 틀을 제시하면서 체계적, 생태학적 발달적 관점에서 가족 레질리언스를 설명하였다. 체계적 관점에서는 가족 레질리언스는 개인을 위한 잠재적 자원으로서뿐만 아니라 가족 기능수행 단위로 설명되며 관계적 레질리언스(relational resilience)가 함께 강조된다. 이는 위기와 도전은 전체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고 반대로 가족 기능수행 과정은 모든 가족 구성원들과 가족에게 적응이라는 중재적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생태학적 발달적 관점으로는 가족 기능수행을 사회문화적 상황과 연관되고 다세대 가족 생활주기를 거쳐 발전하는 것으로 설명한

다. 즉, 가족 레질리언스는 개인을 포함한 가족과 사회문화적 상황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process)속에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족마다 다양하게 나타나며 각 가족에서의 가족 레질리언스는 그 가족만의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위에서 살펴본 가족 레질리언스 개념을 종합해 보면, 가족 레질리언스는 가족이 역경으로부터 긍정적, 성공적 적응을 이루어 내는 역동적인 과정으로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을 뛰어넘어 통찰을 통해 성장과 발전해 나가는 역동적인 힘이라고 할 수 있다. 가족 레질리언스는 위기와 곤경에 직면할 때 발현되고 탄력적인 특성으로 인해 위기에 놓인 가족을 위기 이전의 기능 수준으로 되돌아가서 건강하게 기능할 뿐만 아니라 가족의 강점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는 힘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위기와 역경으로 인해 고통받는 가족이 가족 레질리언스 관점의 접근으로 문제 상황을 해결해 나간다면 가족의 건강성을 회복하여 한층 강화된 가족응집력과 정서적 안정감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2) 가족 레질리언스 구성요인

위기나 역경에 처한 가족이 레질리언스를 가지도록 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관심을 가졌다. 그리고 학자들 간에 가족 레질리언스에 대한 정의를 다르게 개념화하고 있고, 관심 주제에 따라 강조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가족 레질리언스를 구성하는 내용 또한 달라진다(이선애, 2004).

Walsh(1998)는 가족 레질리언스가 신념체계, 조직 패턴, 의사소통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고 세 가지 하위요인이 위험과 취약성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역경으로부터 회복하는데 필요한 레질리언스를 촉진 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가족 레질리언스 구성요인을 규명하려는 노력은 이론적으로 Walsh의 세 가지 영역을 토대로 다양한 역경을 경험한 가족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통해 보완되어왔다. Lee 등(2004)은 가족 레질리언스가 4차원의 21가지 특질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였다. 이것은 레질리언스에 대해 포괄적인 문헌고찰을 통해 분석한 결과를 한국의 소아암 진단을 받은 가족을 대상으로 한 현장 경험에서 비교해 얻은 결과물이다. 연구에서 도출된 가족 레질리언스 4가지 차원은 첫째, 가족 내부의 특징, 둘째, 가족 성원 지향성, 셋째,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넷째, 외부 지향성이다. 각각의 차원에서는 그것을 구성하는 특질들이 하위요인으로 열거되어 있다. 4가지 차원 가운데 가족 내부의 특징과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외부 지향성의 3가지 차원에서 기존과 달리 부가적인 특질들이 발견되었다. 가족 내부의 특징 차원에서는 가족 자존감이,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차원에서는 스트레스 통제 능력, 위기상황 수용의 용이성, 문제를 발생시킨 것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외부 지향성 차원에서는 좋은 사회관계 유지와 가족 성원의 지도력, 정보대로 따르려는 성향 등이 나타났다.

Black과 Lobo(2008)는 레질리언스가 있는 가족 사이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

으로 긍정적 조망, 영성, 일치, 융통성, 의사소통, 재정관리, 함께 보내는 시간과 함께 하는 여가에 대한 관심, 반복적인 일상과 의식 및 사회적 지지라고 밝혔다.

Jonker와 Greeff(2009)는 정신장애를 가진 가족과 동거하면서 이들을 보호하는 가족 레질리언스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내적 자원으로는 종교와 영성이 주요 대처 기제로 나타났고, 외적 자원으로는 사회적 지지가 주요 자원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친구의 지지와 경찰, 공공 도서관, 병원 등과 같은 지역사회 자원을 포함한다. 환자와 관련된 요인 범주에는 환자의 질병을 수용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환자의 행동 가운데 긍정적인 측면도 포함되었다.

Mullin 과 Arce(2008)은 빈곤가족의 가족 레질리언스 연구에서 Walsh의 준거들을 기준으로 16명의 지역사회 복지사들의 경험 분석에서 빈곤가족은 상호관계성을 형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지를 구하고 주고받을 때, 가족 스스로에 대해서 또는 사회 및 영적 세계에 대해 가족에 자양분을 제공하는 신념을 가질 때, 가족의 운명을 통제하기 위한 행동을 할 때, 더 많은 가족 레질리언스를 가진다고 하였다.

본 연구는 Walsh(1998)가 제시한 세 가지 하위요인을 중심으로 가족 레질리언스를 살펴보고자 한다. Walsh(1998)의 이론은 현재까지 많은 가족 레질리언스 연구의 준거들이 되고 있고, 각 요인의 구체적, 이론적 근거들을 명시하고 있으며, 가족 과정 차원에서 구조적, 기능적으로 설명하여 역동적 실체인 가족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가족을 다차원적으로 조명하고 있기 때문이다(박주연, 2011).

Walsh(1998)가 제시한 각각의 하위요인은 다음과 같다.

(1) 신념체계

가족 신념체계는 Walsh가 제안하는 레질리언스의 첫 번째 구성요인으로 가족 구성원이 세계를 바라보는 통로이다. Walsh(1998)에 따르면 신념체계는 레질리언스의 강력한 힘이며 가족 기능의 핵심으로 강력한 응집력으로 작용하여 가족 구성원들이 위기상황과 역경을 해석하고 행동을 결정하는데 큰 영향력을 미친다고 하였다. 가족의 신념체계는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와 같아 신념체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에 따라 가족의 위기상황을 바라보는 시각과 행동이 달라진다고 하였다. 가족의 신념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가족들이 대처하는 방식에 있어 신념이 유익한지 아닌지에 따라 결과가 성공으로 돌아올지 실패로 끝날지를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신념체계의 하위요인으로는 역경에 대한 의미부여 능력, 긍정적 시각, 초월과 영성의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가족의 역경에 대한 의미부여 능력(making meaning ofadversity)은 위기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으로 가족 레질리언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Patterson &Garwick, 1994; Antonovsky & Sourani, 1988). 가족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이해하고 인지하며 지속

적으로 이를 공유함으로써 위기 상황에 의미를 부여하고 명료화하는 능력이 쉽게 발생하며 나아가서는 새로운 비전과 변화를 추구할 수 있게 된다(조민혜, 2009). 역경의 의미는 가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변화되고 이를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들의 두터운 신뢰와 단단한 결속감을 필요로 한다(송순인, 2010).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에 대한 충성과 믿음을 지속할 때 역경을 잘 극복할 수 있다.

둘째, 긍정적 시각(positive outlook)으로 불굴의 인내, 용기와 격려, 희망과 낙관주의, 적극적 정복은 가족이 역경을 인내하고 극복하는데 필요한 핵심요소들이다. 기능을 잘 하는 가족은 낙관적인 관점과 희망을 유지하고 스스로 노력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역경에 대하여 긍정적인 시각을 가진 가족은 강점과 잠재력에 초점을 두고 가능성을 인정함과 동시에 변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도 수용하고 인정한다(김은정, 2008; 양옥경 외, 2002; 김미옥, 2001).

셋째, 초월과 영성(transcendence and spirituality)은 더 나은 가치와 목적을 추구하고 역경을 학습의 기회로 인식하며 이를 통해 성장한다는 관점에서 바라본다. 역경과 마주할 때, 믿음과 영성을 통해 이해를 넘어서는 의미와 평안함을 가지고, 영성은 직면한 도전을 극복할 수 있다는 신념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이러한 신념은 삶에 대한 명확성뿐만 아니라 고통 안에서 위안을 준다. 즉, 예기치 않았던 위협을 감소시키며, 변화할 수 없는 상황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Walsh, 1998).

(2) 조직과정

가족의 조직과정(organizational pattern)은 가족 완충장치로 위기와 역경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자원을 동원하여 스트레스를 중재하고, 변화하는 가족의 내·외적 상황에 적합하도록 가족의 구조를 적절하게 재조직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송순인, 2010). 조직과정은 융통성, 연결성, 사회 및 경제적 자원을 통해 형성된다.

첫째, 융통성(flexibility)은 가족이 조직과정에서 안정성과 변화 사이에서 역동적인 조화를 통해 도전에 적절히 반응하고, 균형을 이루어 변화를 수용하고 가족구조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Walsh, 1998; 양옥경 외, 2002 재인용). 건강한 가족에서 구성원들의 규칙은 융통성 있고 인간적이며 적절하게 변화될 수 있어야 한다. 가족체계 안에서 융통성은 개인과 가족이 새로운 도전에 대처하도록 돕기 위해 재조직된다(Sixbey, 2005).

둘째, 연결성(connectedness)은 개인이 자율적이면서 동시에 상호 간 연합 및 지지, 분리와 협력 등의 균형을 이루게 하는 것으로 가족 구성원 간 정서적 연결감을 뜻하는 가족응집력과 유사한 개념이다(Olson, 1993). 건강한 가족에서, 개인은 분화되는 동시에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가족은 구성원 간 명확한 경계를 인정하고 각각 자신의 사고와 감정, 행동에 책임을 진다. 가족 구성원들은 서로 간의 차이를 존중할 뿐만 아니라 위기 시에는 함께 모여 고도로 연결될 수 있다(Walsh, 1998).

셋째, 사회·경제적 자원(social and economic resources)은 가족이 내외 환경 자원을 얼마나 잘 조직하고 있는가와 관련되는 것으로, 친족뿐 아니라 지역사회와 종교 단체 활동 등 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생태체계 내에서의 다양한 지지체계를 확립한다. 레질리언스가 있는 가족은 개방체계를 유지하고 활동적인 동시에 낙관적인 자세로 희망을 가지고 가족 주변의 지지자원을 적절히 활용한다(천혜정, 임유미, 2007).

(3) 의사소통 과정

의사소통 과정(communication process)은 가족 기능의 본질적인 요소로 가족이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고 가족 구성원 서로가 정서적 상태를 인식할 수 있는 가족 능력으로 명확성, 개방적인 정서표현, 상호협동적 문제 해결로 구성되어 있다(Sixbey, 2005). 이러한 의사소통 과정은 가족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가족 구성원들은 위기와 역경 상황에서 명확하고 개방적인 의사소통 과정으로 함께 위기를 대처할 수 있다(Walsh, 2002).

첫째, 명료성은 효율적인 가족 기능의 본질적인 요소로 건강한 가족의 의사소통은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또한 솔직하여 가족 구성원들은 그들이 의미하는 바를 말하고, 말한 것을 의미하게 된다. 특히 위기 상황에 대한 명료화는 가족 구성원이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 이해와 인정을 통해 가족 적응과 대처하게 되므로 중요한 부분이다(정수경, 2010).

둘째, 개방적 정서표현은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타인과의 차이를 존중하는 의사소통을 말한다(Beaver & Hampson, 1990). 가족 구성원은 기쁨과 슬픔, 희망과 두려움까지 서로 공유하며, 서로의 차이를 비난하기보다 타인의 감정을 수용하고 인정한다. 긍정적 감정의 개방적 표현은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상쇄시키는데 절대적이며, 유머의 공유는 위기와 역경에서 가족강점의 절대적 자원이 될 수 있다(Walsh, 1998).

셋째, 상호협력적 문제 해결은 갈등을 효과적으로 다루는 능력으로 가족 기능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특히 갑작스런 위기나 지속적 도전을 다루는데 있어서는 더욱 그렇다. 기능적인 가족은 위기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문제와 관련된 스트레스 요인을 구체화 시키고 창조적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을 하며, 협상과 타협을 통해 의사결정을 공유하고 갈등을 해결하게 된다(Walsh, 1998).

Walsh(1998)가 제시한 가족 레질리언스 구성요인은 <표 2>와 같다.

<표 2> 가족 레질리언스 구성요인(Walsh, 1998)

<p>가족신념체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경에 대한 의미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력의 가치: 관계에 기초한 레질리언스 -공유된 도전으로서의 위기 -신뢰의 기초 -가족생활주기 방향 -역경과 고통의 개념화 및 정상화 -결속감 -의미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관리할 만한 도전으로서의 의기 -위기, 고통, 회복의 평가: 개방 대 억압 -인과적이고 설명적인 신념들 -미래의 기대들 ●긍정적 시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극적인 주도성과 인내 -용기와 격려하기 -희망과 낙관적 관점의 유지: 불평등을 극복하는 자신감 -강점과 잠재력에 초점두기 -가능한 것은 정복하고 변화될 수 없는 것은 수용하기 ●초월과 영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다 큰 가치들과 목적 -영성: 믿음, 친교, 의식들 -영감: 새로운 가능성 계획 -창조성 -역할모델과 영웅들 -변화: 위기로부터의 학습과 성장 -삶의 우선순위를 재사정, 확인, 변화 -타인을 돕는 헌신 : 사회적 책임감
<p>조직과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융통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정성과 변화의 균형 -시간의 경과에 따른 도전에 적합하도록 복귀, 재조직, 적응 -혼란중의 지속성, 의존성 ●연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호지지, 협력과 책임을 통한 강점 -개인적 욕구와 경계의 존중 -강력한 리더십: 아동과 상처 입기 쉬운 가족 구성원에 대한 양육, 보호, 안내 -다양한 가족 형태: 협동적 양육/가구 내/가구를 넘어서는 협동적 보호제공 -부부/공동 부모 관계: 동등한 파트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결합: 고통스러운 관계의 화해 탐색 -용서와 회상 ●사회 및 경제적 지원 -확대된 친지와 사회적 지지의 동원:모텔과 멘토들 -중요한 지역 사회망 확립 -재정 보장 확립: 가족 긴장의 조화
<p style="text-align: center;">의사소통 과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명료성 -명확하고 지속적인 메시지(말과 행동들) -애매한 정보의 명료화: 진실 찾기/진실 말하기 ●개방적인 정서표현 -광범위한 감정공유(기쁨과 고통; 희망과 공포) -상호감정이입: 차이에 대한 관용 -자신의 감정과 행동에 대한 책임: 비난 피하기 -유쾌한 상호작용: 유머 ●상호협력적 문제 해결 -문제, 스트레스 요인, 대안 및 억압 규명하기 -창조적인 브레인스토밍: 자원 -공유된 의사결정: 협상, 공정성, 상호관계 -갈등 해결 -목적에 초점 두기: 구체적인 단계 밟기 -성공 위에 세우기; 실패로부터 배우기 -예방적 자세: 문제 예방, 위기전환; 미래의 도전에 대한 준비

3) 가족 레질리언스 선행연구 고찰

가족 레질리언스는 가족 탄력성 또는 가족 회복성으로 사용되다가 최근 연구에서는 가족 레질리언스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추세이다. 가족 레질리언스는 위기 속에서 더 강력해지고 가족 구성원에게 필요한 자원을 증가시킬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도전과 위기에 반응하여 스스로 회복하고, 인내하고, 성장하는 역동적인 과정을 거치는 것을 일컫는다(Walsh, 1998). 국내에서는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 가족 레질리언스에 대해 본격적인 관심을 갖기 시작한 이래로 2000년대 후반에 가족학을 비롯하여 사회복지학, 간호학, 교육학, 심리학 등 여러 학문 분야에서 다양한 주제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박혜란, 2014).

초기에는 장애아 및 장애인 가족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었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한부모 가족, 알콜 중독자 가족, 빈곤가족, 다문화가족, 치매 가족 및 만성 질환 가족 등으로 연구의 범위가 다양해졌다(박혜란, 전귀연, 2012).

Sixbey(2005)는 가족 레질리언스 연구들은 다양한 형태(forms)와 평가 방법을 사

용하고 상이한 개념들을 가지고 있으므로, 후속 연구의 주제와 공통요인들을 찾기 위해서는 다양한 연구들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가족 레질리언스에 대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가족 탄력성 증진을 위한 부모 역할 프로그램 개발연구에서 가족이 다양한 삶의 위기와 역경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부모가 가족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부모 역할에 대한 자신감과 효능감을 증진 시켜 가족 전체의 탄력성을 높여야 한다고 하였다(양옥경, 김연수, 2003).

서신자, 정민숙(2013)은 가족 탄력성이 청소년 자살 생각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검증 연구에서 가족 탄력성 하위 변인 중 신념체계는 의사소통에 영향을 주고, 의사소통은 청소년 자살 생각에 영향이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강진영(2014)은 00광역시 조손 가족의 역경과 가족 레질리언스에 관한 질적 연구에서 가족 레질리언스 점수가 높은 가집단과 점수가 낮은 나집단의 신념체계, 조직과정, 의사소통 과정에 대한 비교 분석에서 가집단이 부모의 이혼과 경제적 위기 같은 역경 상황을 건강하게 잘 대처하였다고 하였다.

장애아동 어머니의 역경과 개인 및 가족 레질리언스에 대한 생애사 연구에서 가족 레질리언스 구성요인의 신념체계 중에서 초월과 영성이 역경 극복과 개인 및 가족 레질리언스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다(박미라, 2016).

정민자(2016)는 저소득층 조손 가족의 십대 손자녀가 지각한 역경과 가족 레질리언스에 관한 질적 연구에서 저소득층 조손 가족은 가족을 유지하는 강력한 힘인 가족신념체계는 강하지만 가족조직체계와 의사소통 과정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하였다.

사회가 변화하고 가족의 형태도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1인 가구가 늘어나고 개인주의가 팽배해지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가족의 지지와 함께 가족에게 지원되는 다양한 자원들이 가족 구성원 개개인이 미래를 펼쳐 나가는데 큰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특정 인물의 생애를 분석하여 가족 레질리언스를 확인한 선행연구도 살펴보고자 한다.

김지현(2017)의 신사임당의 생애사를 통해 본 가족 레질리언스 연구에서 원가족의 신념체계에서 역경에 대한 의미부여와 초월과 영성이 두드러짐을 확인할 수 있었고, 조직유형에서는 사회·경제적 자원이 풍요로웠다. 그리고 가족 의사소통에서는 양성 평등적이고 민주적인 소통방식이 가족 레질리언스로 작용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안중근의 생애에 나타난 역경과 가족 레질리언스 및 가족 생애사 연구에서 안중근은 수많은 위기와 역경을 경험하였지만, 가문의 상무 정신을 바탕으로 가족과 사회적 지지 및 협력에 힘입어 독립운동을 펼칠 수 있었다고 하였다(한복희, 2019).

이정희(2020)는 이태석 신부의 생애에 나타난 생태체계와 가족 레질리언스 연구에서 확장된 가족의 특성과 이념을 실천한 이태석 신부의 삶이 미래의 다양한 형태의 가족 모델로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한 가족원의 가치가 생태체계에서 어떤 영

향을 받고, 가족 레질리언스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제시하였다.

서현실(2021)은 빌게이츠의 생애에 나타난 성격강점과 가족 레질리언스 및 가족 정서체계 연구에서 신념체계에서는 긍정적 시각과 초월과 영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조직과정에서는 연결성과 사회·경제적 자원이 풍부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의사소통 과정은 명확성과 개방적 정서표현이 뚜렷하게 나타났고, 상호협력적 문제 해결을 통해 가족 레질리언스가 강화되었다고 하였다.

김현정(2023)은 화가 이중섭 생애에 나타난 작품 경향과 생태체계 및 가족 레질리언스 연구에서 이중섭처럼 훌륭한 기질을 타고나고 가족의 지지가 있더라도 거시체계의 위기와 역경까지 피하는 것은 어렵고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가족의 건강성 향상을 위해서는 사회체계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정민자(2016)는 레질리언스의 의미는 오뚝이처럼 일어나는 회복력이나 탄력성, 유연성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어떤 역경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보았다. 가족 레질리언스는 가족 생활공동체가 역경을 이겨 내는 힘 또는 능력으로 가족원의 성장과 발달, 삶을 지탱하는 중요 기제로 작용한다. 가족 레질리언스적 접근 방식은 가족원들이 힘들고 무너지는 삶의 상황에서 스트레스와 위기를 극복하고 그러한 위기로부터 삶의 도전을 성공적으로 인내해 나가며 성장시킨다. 이와 같이 가족 레질리언스는 건강한 가족의 회복을 이끌어 내는 중요한 자원으로 위기에 놓인 현대인들에게 가족의 안정과 행복에 이르게 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 줄 것이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고난과 역경을 경험한 70%의 사람들은 ‘학습된 무기력(learned helplessness)’ 상태에 빠진다고 한다. 즉 어떤 충격을 경험한 후 그 상황이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범위를 넘었다고 생각되면 거기에서 벗어나려는 의지를 상실한다는 것이다(우문식, 2013).

본 연구는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무수히 많은 어려움에 놓인 현대인들에게 역경이 왔을 때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정약용이란 위인의 삶을 통해 그의 가족 환경과 사회상 그리고 시공간들의 연계가 어떠한지 생애사적 관점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위인 정약용의 생애에 나타난 성격 강점과 생태체계 및 가족 레질리언스를 살펴보고 그가 역경을 극복해 낸 토대가 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지침으로 삼고 현재의 어려움과 위기상황에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는 본보기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자는 정약용이라는 조선 후기 인물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정약용은 역경을 이겨 낸 대표적인 인물로 천주교를 믿었다는 이유로 당시 정치공세에 밀려 18년이라는 긴 세월을 머나먼 유배지에서 가족들과 떨어져 홀로 지냈다. 그러던 와중에 어린 자식의 죽음과 지기인 형님, 조카의 죽음을 차례로 경험하는 아픔도 겪었다. 또한, 자신의 죄로 인해 가문의 지위가 폐족으로 떨어지는 수모를 당하기도 하였지만 결국은 그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 학자로서 개인적인 성장을 이루어 500 여권의 방대한 저술을 후세에 남겼다. 또한, 자녀들도 잘 성장해 위대한 학자로서 자리매김하여 추락한 가문의 명성을 회복하였다. 정약용은 그가 살았던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전반에 이르는 생애 동안 파란만장한 삶을 경험했다.

2012년은 정약용 탄생 250주년 되던 해로 유네스코에서는 소설가 헤르만 헤세, 음악가 드뷔시와 더불어 정약용을 한국인 최초로 세계기념 문화 인물로 선정했다(서울신문, 2012). 그리고, 정약용이 쓰고 박석무가 편역한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창비, 1991) 는 정약용이 1801년 유배지에서 그의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 27편을 비롯해 아들에게 내려주는 교훈 9편 등 총 61편의 인생 교훈지침 글을 수록한 책으로 전남대학교와 청주시에서 범시민독서운동으로 올해의 책으로 선정하였다. 참다운 스승을 만나기 어려운 현대 사회에서, 다산 정약용이 서한으로 전한 말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없이 소중한 깨우침을 주어 정약용의 가르침을 계속 배우고 이어가고자 하였다(노컷뉴스, 2013).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자녀들과 주고받은 편지의 내용은 작가 한문회가 엮은 ‘

아버지의 편지’ (함께읽는 책, 2011)로 초등학교 6학년 국어 읽기 책에 수록되어 있고, 2002년 고등학교 7차 교육과정 국어(상)에 실려 청소년들에게 정약용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도록 학교현장에서도 이러한 정약용의 위대한 정신의 계승이 이어졌다. 이처럼 정약용이란 인물이 후대에 미치는 영향력은 결코 가볍지 않아 그의 정신과 사상을 후대에 이어가려는 노력이 세기를 넘어서도 이뤄지고 있다. 이를 근거로 하여 역경의 삶을 극복하고 행복을 실현한 정약용의 생애를 분석하는 연구는 현대인에게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인 정약용에 관한 자료는 관련 문헌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다산 정약용에 대한 신뢰성 있는 자료의 수집을 위해 본 연구는 현재 다산연구소 이사장을 역임 중이고 한국에서 다산 정약용 연구 및 다산학의 권위자 가운데 한 명인 박석무가 집필하고 민음사에서 출판한 『다산 정약용 평전』(2022)과 정약용이 쓰고 박석무가 편역한 개역 증보판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2021)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정약용의 9대조 후손으로 다산 관련도서 1,100여 권을 편집 및 교정, 번역을 해 온 정해림의 『사암 정약용 전기』(2022)를 참고 자료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한국고전종합DB(<https://dbitkc.or.kr>)의 고전번역서에서 다산 시문집 제 18권 가계(家誡)와 21권 서(書)에서 원본을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다. 기존 연구에 소개되거나 인용된 자료인 학술지 논문과 학위논문 그리고 단행본 및 인터넷 자료 등을 2차 자료로 활용하였고 아울러, 다산연구소(www.edasan.org)에서 제공한 다산 관련 자료를 참고하였다.

2. 연구방법 및 내용

본 연구는 문헌 자료들을 바탕으로 질적 연구방법의 한 형태인 문헌분석에 의한 생애사 연구방법으로 자료의 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구 대상인 정약용은 현재 생존하는 인물이 아니기에 문헌을 통한 내용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참여자의 구술을 통한 생애담을 들을 수는 없지만 다양한 문헌 자료들을 연구문제에 비추보고 시·공간적으로 재구성하여 연구자의 관점으로 재해석하는 작업을 거쳐야 한다. 문헌분석(literature analysis)은 연구주체의 기본 연구사례와 이론적 배경, 연구문제에 대한 개념적 배경 등을 본 연구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기 전에 다루는 논문의 요소를 가리킨다. 그리고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은 어떤 연구주체와 관련된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축적되어 존재하고 있는 모든 문서화 된 자료를 가리키는 것으로, 관심 변인이나 현상의 연구를 위하여 관찰, 면접 등이 방법을 사용하는 대신 이미 산출된 자료를 분석하는 연구 방법이다(박휴용, 2014). 김영천과 정상원(2015)은 문헌 중에서도 개인의 삶이 기록된 개인적 문서로는 일기나 편지, 회고록 또는 자서전 등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본 연구는 정약용의 생애에 나타난 성격강점과 생태체계 및 가족 레질리언스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진행하기 위해 연구단계에서 설정한 분류 기준을 제시하여 분석하려 하는 연구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표 1>에서 제시한 Peterson과 Seligman(2004)의 VIA분류체계를 사용하여 정약용을 역경에서 벗어나게 해준 성격강점이 무엇인지 분석하여 이를 본보기로 하여 역경과 고난에 놓인 현대인들에게 자신의 대표강점을 개발하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고자 한다.

둘째, ‘환경 속의 인간’에 기초한 생태체계 관점으로 인간이 생활하는 환경들과 발전적으로 상호조절하는 과정에 관심을 가지는 생태체계이론의 한 분야인 Kemp(2001)의 미시수준(개인체계), 중간수준(가족체계), 거시수준(사회체계) 3수준이론을 적용하여 정약용의 생태체계를 살펴보고 개인과 생태체계가 위기와 역경 상황에서 서로에게 어떠한 작용을 하였는지 알아보하고자 한다.

셋째, <표 2>에서 제시한 Walsh(1998)의 가족 레질리언스 구성요인을 적용하여 정약용의 가족 레질리언스가 어떤지 알아보하고자 한다. 가족 레질리언스가 역경 상황에 어떻게 작용하여 어려움을 극복하고 개인적인 성장과 행복한 삶을 실현할 수 있었는지 확인하여 갈수록 다양해지는 가족 문제에 놓인 위기의 가족들에게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키우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3. 연구절차 및 타당도

본 연구의 진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단계1에서는 연구주제에 적합한 인물을 선정하였다. 연구 주제가 역경을 이겨낸 특정 강점을 가진 인물을 대상으로 선정하고자 하였고,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인물로 충분히 검증된 자료가 존재하고 현재에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인물을 탐색하였다. 또한, 가족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족과 함께 번성을 이룬 대상자를 물색하였다. 이에 적합한 연구대상을 정약용으로 선정한 이유는 가족과 떨어져 유배지에서 18년이란 긴 고통의 시간을 이겨 내고 500여 권의 저서를 완성한 큰 업적을 이루었고, 가족과 가문을 지키기 위하여 유배지에서 서간으로나마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실천한 부모됨의 행동은 현재에 이르러 학교 교육현장에서 학생들과 부모교육의 가르침으로 전수되고 있으며, 2012년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기념 인물로 추대되어 신뢰하기 충분하다고 사료 된다.

단계2에서는 연구대상에 대한 자료수집을 전개하였다. 정약용에 대한 도서 및 관련한 학위논문 및 학술지 논문과 인터넷 자료 등을 수집하고 정약용을 연구하는 연구소 및 박물관의 홈페이지의 자료를 또한 참고하여 서로 비교 분석하여 신뢰할 수 있는 자료 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다산

정약용 연구 및 다산학의 권위자(와이뉴스, 2023)이면서 현재 다산연구소 이사장을 역임하고 있는 박석무의 자료를 중심으로 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단계3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정리하고 분류하였다. 정약용의 생애를 개인적 사건과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따른 사건으로 나누고 시·공간에 맞게 분석하여 재구성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해서 분류하였다. 또한, 정약용의 생애에 나타난 역경을 분석하기 위해 연보와 함께 당시 사건 및 역사적 상황을 정리하였다.

성격강점을 분석하기 위해 사건에 대한 정약용의 대응방안을 위주로 내용을 정리하였고, 생태체계 분석에서는 개인체계 분석을 위해 개인적 특성이 드러난 일화 및 사건으로 정리하고, 가족체계 분석을 위해 가족관계 및 가족 구성원과의 사건에 대해 정리하였다. 그리고 사회체계 분석을 위해 친구나 지인 및 이웃과 상호교류한 사건과 시대적 상황에 대한 사회 문화적 배경도 정리하여 분류하였다.

단계4에서는 분류하여 정리된 자료를 근거에 맞게 분석하였다. 정약용의 생애를 통해 역경을 살펴보고 역경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성격강점이 발휘되고 대표강점이 사용되었는지 VIA분류체계를 근거로 분석하였다. 생태체계가 정약용과 어떻게 상호작용하였는지 Kemp(2001)가 제시한 수준에서 분석하였고, 역경의 상황에서 가족 레질리언스가 어떻게 기능하였는지 Walsh(1998)의 구성요인으로 분석하였다.

단계5에서는 이렇게 분석한 자료를 해석하였다.

정약용의 생애에 나타난 역경을 극복한 성격강점과 생태체계, 가족 레질리언스를 연구자의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연구결과 및 결론을 제시하였다.

결과도출과정을 제시한 연구절차는 <표 3>과 같다.

<표 3> 연구절차

단계1 연구대상 선정	단계2 자료수집	단계3 자료정리	단계4 자료분석	단계5 자료해석
역경을 이겨내고 가족의 번성을 이룬 영향력 있는 인물	단행본/ 학위논문/학술논문 인터넷자료/ 연구소 및 박물관 자료 등	생애사/ 성격강점/ 개인적 특성/ 가족관계/ 지역사회/ 시대배경	생애 및 역경분석/ 성격강점/ 생태체계/ 가족레질리언스	결과 및 결론

타당도는 검사 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실제로 충실하게 측정하였는지를 나타낸다(성태제, 시기자, 2016). 본 연구의 타당도를 충족하기 위해 자료수집 방법과 분석의 결과가 일관성을 유지하는지 평가하도록 질적 논문 연구 박사학위자이며, 가족학 전문가 2인에게 자료의 분석과 해석을 점검 받고 전문가 2인의 의견과 연구자의 의견을 수렴 보완하여 합의점을 찾도록 지속적인 피드백을 교환하고 연구과정을 평가하였다. 그리

고, 이러한 과정과 결과를 질적 연구 전문가이며, 가족학 전문가이신 지도교수에게 제차
점검과 정기적인 지도를 받아 타당도를 높였다.

IV. 연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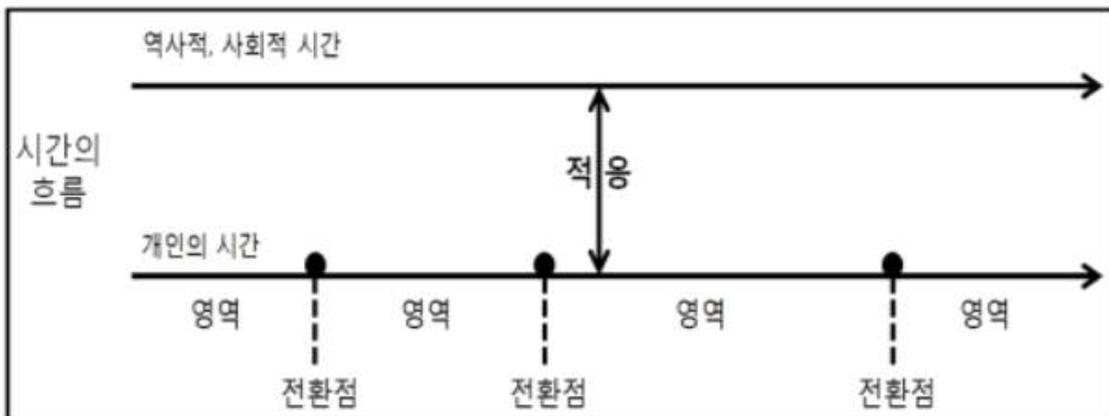
1. 정약용의 생애

생애사 연구는 질적 연구의 하나로 개인의 삶을 연구하고자 할 때 활용되는 연구 방법으로 개인의 삶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역동적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이다(Goodson & Silkes, 2001). 생애사 속의 역사는 개인의 지나온 기록이기도 하지만 개인의 경험 속에 녹아있는 우리의 역사이기도 하여서 생애사는 과거 경험에 대한 해석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변화를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전망을 다르게 할 수 있다(윤혜란, 2010).

생애사 자료의 분석은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지만, 분석과정은 생애사를 통해 드러나는 개인의 주관적 의미 세계를 연구자가 다시 재해석하는 과정이다(David G. Mandelbaum, 1973). 생애사 분석을 통해 사용된 방법은 세 가지 분석단위에 기초한 것으로, 논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참조체계를 만들기 위해 ‘영역, 전환, 적응’이라는 분석개념을 설정하였다. 먼저, ‘영역’은 개인의 삶을 몇 가지 차원이나 측면에서 나눠 보는 것이고, 다음으로, ‘전환’은 급작스런 변화를 가져오는 특별한 경험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적응’은 개인의 고유한 적응방식으로 삶의 과정에서 겪게 되는 변화와 연속성의 두 가지 측면을 이해하는 분석개념이다(Denzin, 1978).

생애사 연구의 구성요인은 <그림-1>과 같다.

<그림-1> 생애사 연구 구성요인(출처: 최인혁 2015, p.51)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개념을 토대로 시대라는 배경 차원과 전환으로서의 삶의 사건인 유배라는 역경의 시간들을 적응해 나가는 정약용의 삶의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본 고에서는 정약용의 생애를 시간적 요소에 맞춰 수학기(修學期), 사환기(仕

宦期), 유배기(流配基), 해배(解配)이후, 네 시기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수학기(修學期): 유년시절~28세

정약용은 1762년(영조 38) 경기도 광주(廣州)에서 부친 정재원(丁載遠)과 모친 해남 윤씨(海南尹氏) 사이에서 5남 3녀 중 4남으로 태어났다. 부친은 압해정씨(押海丁氏)로 여러 고을의 수령을 지낸 명관(名官)이자 학자였고, 모친은 고산(孤山) 윤선도(尹善道)의 후손으로 공재(恭齋) 윤두서(尹斗緒)의 손녀였다. 정약용은 어려서부터 자질이 영특하여 7세 때 오언시(五言詩)를 짓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때 지은 시 중에 “작은 산이 큰 산을 가렸으니/ 멀고 가까움이 다르기 때문이네” [小山蔽大山 遠近地不同] 라는 구절이 있다. 10세 이전의 시문을 모아 만든 삼미자집(三眉子集)이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전하지 않는다. 성호(星湖) 이익(李瀾)의 유고를 16세에 처음 보고 평생 성호 선생을 사숙(私淑)하게 되었다. 22세(정조7)때 증광 감시(增廣監試)에서 생원(生員)으로 합격하였는데, 정조(正祖)와 다산의 운명적인 첫 만남이 이루어졌다. 이후 5, 6년 동안 성균관에서 학업을 닦으면서 성균관에서 유생들에게 보이는 시험인 반제(泮製)에 여러 번 뽑혀서 정조 임금의 두터운 신임을 얻었다. 28세에 문과(文科)에 급제하여 첫 벼슬인 희릉 직장(禧陵直長)에 제수되었다(송재소, 1994).

<표 4> 정약용 수학기 주요 연보(출처: 남양주 시청 홈페이지 참조 연구자가 재구성)

수 학 기 (修學期): 유 년 시 절~ 28세	1762년(1세)	남양주 조안면 능내리에서 부 재원載遠과 모 해남 윤씨 사 이의 제 3남으로 출생
	1768년(7세)	시를 짓기 시작하여 10세 이전에 『삼미자집三眉子集』 남김
	1776년(15세)	호조좌랑 홍화보洪和輔의 딸과 관례를 치르고 약용若鏞이라 는 관명冠名을 얻음
	1777년(16세)	이가환李家煥과 자형 이승훈李承을 좇아 성호星湖 이익李瀾 선생의 유고遺稿를 읽고 사숙함
	1783년(21세)	초시와 회시에 합격하여 진사가 되고, 선정전宣政殿에서 정 조의 지우를 입음
	1784년(23세)	이벽과 함께 배를 타고 두미협을 내려가면서 서교西教에 관 하여 처음으로 듣게 됨

<사진- 1> 다산 생가(출처: 다산연구소)



2) 사환기(仕宦期): 28세~39세

정약용은 정조의 총애 속에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 홍문관 수찬(弘文館修撰) 등의 벼슬을 역임했다. 31세에는 수원성(水原城) 수축에 『기중도설(起重圖說)』을 지어 바쳐 활차(滑車)를 이용함으로써 많은 경비를 절약하였다. 33세에는 암행어사의 명을 받아 경기도 연천(漣川)지방을 순찰한 후, 연천진 현감 김양직(金養直)과 삭녕(朔寧)진 군수 강명길(康命吉)을 논죄하여 법에 따라 처벌하게 했다. 암행어사의 본분을 하면서 그가 목격한 피폐한 농민들의 참상은 정약용의 일생을 지배한 민중지향적 사고의 출발점이 되었다.

34세에 병조 참의(兵曹參議), 우부승지(右副承旨)가 되었지만 주문모(周文謨)사건에 둘째 형 정약전(丁若銓)이 연루된 것을 트집잡아 반대파들의 공격이 심해져, 정조는 정약용을 금정도 찰방(金井道察訪)으로 좌천시켰다.

36세에 좌부승지(左副承旨)에 제수되었으나 노론(老論) 벽파(辟派)들의 모함이 심해져 ‘자명소(自明疏)’를 올리고 관직을 사퇴하려 했다. 이 상소문에서 자신과 천주교와의 관계를 명백히 밝혀 놓았다. 정조도 어찌하지 못하여 황해도 곡산 도호부사(谷山都護府使)로 내보냈다. 곡산 부사로 재직한 2년여 동안 명관(名官)으로 선정을 베풀었다.

38세에 내직으로 다시 발령받아 병조 참지(兵曹參知)와 형조 참의(刑曹參議)에 제수되었고, 형조 참의로 재직한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후일 『흠흠신서(欽欽新書)』를 집필하였다. 그동안 천주교와 관련하여 그를 무고하는 상소가 잇따르자 39세 되는 해 모든 관직을 버리고 처자와 함께 고향인 마현(馬峴)으로 낙향했다. 시기하는 사람이 많은 가운데 벼슬을 하지 않고 낙향하면 공격받지 않으리라는 생각에서였으나, 그해(1800년) 6월 28일 정조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함께 정약용의 운명도 결정되었다(송재소, 1994).

<표 5> 정약용 사환기 주요 연보(출처: 남양주 시청 홈페이지 참조 연구자가 재구성)

사 환 기 (仕宦期): 28~ 39세	1792년(31세)	화성의 설계를 명받고 거중기를 설계하여 4만냥의 공사비를 절약함
	1794년(33세)	경기도 암행어사로 나가 연천, 파주, 장단의 구악을 일소함
	1795년(34세)	7월 천주교도라는 무함이 있어서 그 지방의 천주교도를 회유하도록 금정도찰방金井道察訪으로 외보外補됨
	1797년(36세)	윤6월 곡산부사로 제수됨 전임 수령의 부정을 탄핵한 이계심李啓心이 부임하는 길목에 자수하였는데, 진상을 듣고 격려 후 석방함 부임 후 민고民를 개혁하고 유형거游衡車를 제작하며 가좌부家坐簿를 정비함
	1800년(39세)	정조의 승하로 고향으로 돌아와 소천에서 강학함, 그곳에 여유당與猶의 편액을 달았음

<사진- 2> 거중기(출처: 수원화성박물관)



<사진- 3> 수원화성(출처: 다산연구소)



3) 유배기(流配期): 40세~57세

1801년(40세) 신유옥사(辛酉獄絲)로 수많은 남인(南人)시파(時派)들이 투옥되고 참형을 당했는데, 이때 다산의 셋째 형 정약중(丁若鍾)은 옥사하고 둘째 형 정약전(丁若銓)은 신지도(薪知島)로, 정약용은 경상도 장기(長鬢)로 유배되었다. 같은 해 10월 ‘황사영(黃詞永) 백서(帛書)사건’으로 다시 체포되어 정약전은 흑산도로, 정약용은 전라도 강진(康津)으로 이배(移配)되었다. 정약용은 강진에서 18년 동안 저술 작업에 몰두하였고, 주요 저술들은 이 시기에 집필되었거나 구상된 것이다. 이 시기에 경제학(經世學)과 더불어 다산사상의 두 축을 이루는 경학(經學)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이뤄졌다(송재소, 1994).

<표 6> 정약용 유배기 주요 연보(출처: 남양주 시청 홈페이지 참조 연구자가 재구성)

유 배 기 (流配期): 40~ 57세	1801년(40세)	신유옥사로 투옥되었다가 형 약전은 흑산도, 약용은 장기로 유배되었다가 강진으로 이배됨
	1808년(47세)	만덕사萬德寺 서쪽에 있는 윤단尹의 초당으로 이사함
	1810년(48세)	큰아들 학연이 부친의 억울함을 상소하여 해배의 움직임이 있었으나 석방되지 못함
	1814년(53세)	죄인 명부에서 이름이 삭제되어 석방의 움직임이 있었으나 이루지 못함
	1816년(55세)	흑산도에서 형 정약전 사망함

<사진- 4> 다산 초당(출처: 연구자 직접촬영)



4) 해배(解配)이후: 57세~75세

1818년(순조 18) 57세 나이에 유배에서 풀려 고향으로 돌아간 이후에도 저술활동을 지속했다. 미완이었던 『목민심서』를 완성했고, 『흠흠심서』, 『아언각비(雅言覺非)』, 『매씨서평(梅氏書平)』 등의 저작을 내놓았다. 고향으로 돌아온 지 18년 되던 해 1836년(헌종 2) 75세를 일기로 이 세상을 하직했다(송재소, 1994).

<표 7> 정약용 해배기 주요 연보(출처: 남양주 시청 홈페이지 참조 연구자가 재구성)

해배 (解配) 이후: 57~ 75세	1818년 9월(57세)	고향 마현馬峴으로 돌아옴
	1822년(61세)	회갑을 맞아 ‘자찬묘지명自撰墓誌銘’을 짓고 더 이상 저작에 마음쓰지 않고 유유자적 자연을 즐김
	1836년(75세)	홍씨부인과의 회혼일에 마현에서 별세함
	1910년 7월	정헌대부正憲大夫 규장각제학 문도공文度公이란 시호를 내림. 널리 배우고 많이 들은 것을 문이라 하고 [博學多聞曰文] 일을 처리함에 의에 맞는 것을 도라고 한다 [制事合義曰度]

<사진- 5> 다산 묘소(출처: 다산연구소)



2. 정약용의 생애에 나타난 역경

다산 정약용은 1762년(영조 38) 경기도 광주군 초부면 마현리(현 남양주군 조안면 능내리)에서 출생하였다. 15세에 홍화보의 딸과 결혼하여 6남 3녀를 낳았으나 4남 2녀가 요절하여 2남(정학연, 정학유) 1녀를 두었다. 1836년(헌종 2) 결혼 60주년 일인 2월 22일(양력 4월 7일) 75세로 운명하였다.

본관은 나주(羅州), 초자(初字)는 귀농(歸農), 관명(冠名)은 약용(若), 자(字)는 미용(美庸), 호(號)는 다산(茶山)이며 당호(堂號)는 여유당(與菴堂)이다. 정약용은 13대 조에서 5대조까지 직계 8대가 옥당출신(玉堂出身)인 명문의 후예이고 부친은 진주 목사(晉州牧使)를 지냈다.

정약용은 어렸을 때부터 학문적 자질이 뛰어났다. 1784년(23세)에는 정조에게 학문적 역량을 인정받았다. 이해(1784) 이벽(李磈)으로부터 천주교에 관하여 듣고 관계 서적을 보게 되면서 4~5년간 천주교에 경도되었으나 30세 때 신해옥사(辛亥獄事)가 일어나자 완전히 절의(絶意)하고 운명할 때까지 유교적 삶으로 일관했다. 그러나 이때 잠시나마 천주교를 믿었던 것이 원인이 되어 천주교도로 몰려 시달림을 받으며 18년 유배 생활까지 하게 되었다(류정희, 1990).

1799년(38세) 형조참의(刑曹參議)가 되었으나 정약용을 천주교도로 배척하는 상소를 보고 낙향하였다. 이듬해 1800년 6월 정조가 승하하면서 정약용은 시련의 날들을 보냈다. 1801년 책룡사건(冊籠事件)으로 입옥(入獄)되어(신유옥사) 이형(李兄) 정약중은 참수되고 중형(仲兄) 정약전은 신지도로, 정약용은 경상도 장기현으로 유배되었다. 이해 10월 황사영(黃嗣永) 백서사건(帛書事件)이 나자 서울로 압송되었다가 다시 전라도 강진으로 이배되어 18년의 긴 세월을 유배지에서 역경의 세월을 견뎌야 했다. 본 고에서는 정약용의 유배기 18년을 역경의 시기라 보고 이에 연관된 사건이나 시대적·정치적 상황을 살펴 정약용의 역경을 분석하고자 한다.

1) 천주교 탄압

1783년(22세) 진사과에 합격한 정약용은 큰 형수의 아우인 이벽에게 천주교 관계 서적을 받아 읽고 이후 일생의 가장 큰 사건들을 마주하게 되었다. 전라도 진산현(지금의 충남 금산군 진산면)에서 열렬한 천주교 신자 윤지충과 권상연이 윤지충의 어머니 상을 당했는데 신주를 불사르고 제사를 지내지 않은 사건이 일어났다(진산사건 珍山事件 신해옥사 辛亥獄事). 윤지충은 정약용의 외종형으로 그동안 천주교 내부에서만 제사 문제로 감론을박하다가, 마침내, 중국 천주교 교구로부터 제사를 지내면 천주교 신자라 할 수 없다는 교회법이 하달되면서 첫 번째로 실행한 신자가 윤지충과 권상연이었다. 이내 나라에서는 천주교 신자를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는

엄한 법령을 내리고 ‘천주교 박해’ 라는 비극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이에 반대파로부터 표적이 된 정약용은 “한때 천주교에 깊이 빠졌지만, 신해년(1791년) 진산 사건을 보면서 분개하고 마음이 아프고 쓰러 속으로 맹세하기를 미워하기를 원수같이 하고 성토하기를 흉악한 역적같이 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천주교를 한때 믿었던 것을 이유로 주변에서 받는 비방에 대한 변명과 마침 정조가 동부승지의 벼슬을 내려 이를 사양하는 내용의 상소문 「변방사동부승지소」를 통해 천주교와 단절했음을 소신 있게 밝혔다. 이를 보고 정조는 명문의 상소에 감동을 받았고, 내용에 털끝만큼도 숨김이 없는 것으로 여겨 천주교 신자라는 누명을 확실히 벗었다. 그렇지만 정조 승하(1800년)후 **1801년 신유옥사**라는 천주교 탄압이 다시 시작되었다.

정약용의 손위 형인 정약중이 천주교 관련 자료 등을 숨기고자 책룡(冊籠)에 담아 운반하던 중 그해 1월 한성부 포교에게 압수당하는 일명 책 상자(書笈)사건이 일어났다. 이 일을 계기로 천주학에 대한 당국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었고 반대파였던 공서파 일당이 정약용이 있던 신서파를 제거할 기회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 사건으로 정약용의 손위형인 정약중은 순교하고 정약용도 감옥에 갇혔다. 그는 이미 「변방사동부승지소」를 통해 오래전에 천주교에서 손과 마음을 끊었음을 밝혔기에 여러 대신이 풀어 줄 것을 의논했으나, 우의정 서용보가 고집을 부려 정약용은 장기현(지금의 경상도 포항시 장기면)으로 정약전은 신지도(지금의 완도군 신지면)로 유배형을 받았다.

신유옥사가 시작되고 같은 해 2월 천주교도 황사영이 신유박해로 천주교인들이 받았던 박해의 전말과 향후 조선이 천주교 재건을 위한 정책을 하얀 비단에 적어 북경의 주교에게 보내려 한, 이른바 **황사영 백서 사건**이 발생했다. 황사영은 정약용의 장형인 정약현의 사위이자 정약용에게는 조카사위가 된다. 결국, 실패로 끝난 이 사건은 오히려 천주교 탄압의 빌미만 제공해 또 다른 대 옥사를 일으키고 정약전과 정약용은 다시 압송되어 감옥에 갇히고 국문을 받아야 했다. 다행히 백서에 관여한 바가 없음을 증명받고 두 사람은 귀양지가 바뀌어 흑산도와 강진으로 유배의 길에 올라야 했다.¹⁾

2) 체제공과 정조의 죽음

정조 대왕과 체제공의 보살핌으로 명맥을 유지하던 시파인 신서파는 1799년 음력 1월 29일 명재상 변암 체제공이 세상을 뜨는 비통함을 맞이했다. 38세의 다산은 당시 곡산 고을을 보살피느라 자신을 아껴주고 보살피 주던 재상의 죽음에 조문도 가지 못했지만, 훗날 체제공을 위해 제문(祭文)과 만시(輓詩)를 지어 한없는 애도의 뜻을 표했다. 체제공의 죽음이 얼마나 비통한 일이었는지 ‘100년에 한 번 있을 법한 정승이 떠났으니 누구에게 기대어 살아갈 것인가’ 라고 탄식하며 몹시 슬퍼하였다.

1) 박석무(2022) 『다산 정약용 평전』을 참조하여 연구자가 내용을 정리함

채제공은 정치적 역량과 도량이 큰 사람으로, 영·정조의 총애를 받던 충신이며 조선의 커다란 정치적 자산이었다. 조선 후기 상업사에서 큰 변혁을 가져온 ‘신해통공(辛亥通共)²⁾’을 제안할 정도로 큰 경제적 안목을 지닌 정치가였다. 채제공의 가까운 친구이자 정조를 함께 보필했던 학자 정치가 정범조는 “권신배들이 세력을 업고 사납게 화내서 건드리지 못하는 일에도 힘껏 항쟁했고, 온갖 무리들이 시끄럽게 참소하는 속에서도 끝내 이름과 절개를 완전하고 순수하게 지켜냈다” 라고 하며 불의에 과감히 대응하고 정의를 지켜낸 그를 칭송하였다. 또한, 1800년 39세의 정약용은 정조 대왕의 붕어(崩御) 소식을 갑자기 접하였다. 정조의 죽음은 정약용에게는 하늘이 무너짐 그 자체였다. 겨우 49세라는 아까운 나이로 쉽게 떠나리라고는 예측하지 못했던 뜻밖의 불행이었다. 어머니를 잃은 어린 자식처럼 임금을 잃고 애통해하는 정약용의 심정은 「군암만필(筠菴漫筆)」을 인용한 『사암선생연보』에서 ‘군신(君臣)의 의(誼)는 이날 저녁에 영원히 끝나 버렸다. 매양 생각이 여기에 미치면 눈물이 펄펄 쏟아져 옷소매를 적셨다. 곧바로 따라 죽어 지하에서나마 임금님의 얼굴을 뵈고자 했으나 하지를 못했다’ 라고 하며 자신의 진솔한 심정을 표현하였다. 채제공에 이은 정조의 죽음은 정약용을 절망에 빠뜨리기에 충분하였다. 남인 시파에서 공서파로 분파해 나가 정약용 일파를 계속 괴롭히던 목만중과 이기경 등은 유언비어와 위태로운 말을 퍼뜨려 가며 분위기를 선동하여 정약용을 위협하였다.³⁾

3) 정치적 탄압

정약용은 1791년 신해년(30세)에 이르고 임금의 총애는 높아 갔지만, 반대파들의 모략과 비방도 만만치 않았다. 그러나 벼슬은 계속 요직에 제수되었다. 임금은 정약용을 믿고 칭찬을 아끼지 않는데, 이때 마침 진산 사건이자 신해옥사가 터지고 말았다. 이 사건으로 반대파인 공서파들은 길길이 날뛰며 신서파 전부를 천주교 신자고 몰아 일대 탄압을 가하려는 기세를 보였다. 이로부터 1801년 신유옥사에 이르기까지 10년간 공서파는 정약용을 비롯한 진보적 지식인 집단인 신서파를 공격할 빌미를 찾으면서 많은 유언비어를 생산해 내고 있었다. 신서파는 궁지에 몰리는 국면이었고 정약용은 천주교 문제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한 채 반대파의 공격의 표적이 되었다. 1801년 나이 어린 순조를 대신하여 정치 일선에 있던 정순 대비가 역적죄로 천주교도들을 죽이라는 법령의 반포는 정조 생전 가장 총애받던 신서파의 목을 베어야 한다고 주장하던 공서파 일당의 요구가 채택되어 반대파를 제거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말았다. 목숨을 바쳐서라도 천주교를 믿을 만큼 신앙에 철저했던 천주교 신자들만 처벌받았다면 종교적 박해로 단정 짓겠으나 신유년 재판과정에서 정약용은 천주교 신자가 아니라는 명확한 판결이 나왔음에도 혹독한 탄압으로 18년

2) 1791년 신해년에 나온 정책으로 국가에서 정의한 육의전(六矣廛)의 도고법(都估法)이외의 상권을 세력가들이 독점하여 일반 상인들의 상업 행위를 억압하던 제도를 폐지하여 상거래가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용 하자는 조치

3) 박석무(2022) 『다산 정약용 평전』을 참조하여 연구자가 내용을 정리함

유배 생활을 한 사실을 보면, 권력 싸움의 희생양으로 탄압한 사건이기도 했다.

조선 후기 지도 이념인 유교, 즉 성리학이라는 학문과 사상으로는 당대 역사를 통제할 수 없다는 여러 가지 징후들이 나타났다. 서양의 종교이자 사상인 천주교와 서양의 과학상이 중국을 통해 들어오면서 역사의 변동성과 사회의 운동성이 감지되었다. 이처럼 변화를 빠르게 포착했던 학자들이 남인계 신서파였다. 사도세자가 영조에 의해 뒤주에 갇혀 목숨을 잃은 임오사건(壬午事件)(1762)을 계기로 사도세자를 동정하는 시파와 영조의 입장을 지지하던 벽파로 조선의 정치 판세가 나뉘었고, 남인은 시파에 속하고 노론은 벽파에 속했다. 영조 이후 정조 중기까지만 해도 탕평책이 유지되어 큰 당파싸움은 없었지만, 정조 말엽 시파 자체의 남인 계열이 공서·신서의 양파로 갈라졌다. 두파의 세력 차이가 없던 대에 시파는 북당(北黨), 벽파는 남당(南黨)이라 부르며 어느 정도 세력이 균형을 이루었지만, 정조 말엽 변암 채제공이 1799년 세상을 뜨면서 신서파의 세력이 크게 약화되었고, 다음 해 1800년 정조가 갑작스럽게 붕어하면서 정치 판도가 바뀌고 말았다. 신서파의 중요 인사들이 서양 과학사상과 기술에 관심이 많고 천주교에 관여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비난이 세력의 약화를 가져왔다. 당시 홍희운이라는 공서파의 과격파가 대사간 박장설을 찾아가 “천 사람을 죽이고도 정약용을 죽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한 것을 정약용은 자신의 일대기를 기록한 「자찬묘지명」에서 밝혔다. 이미 천주교에서 상소를 통해 천주교에서 마음이 떠났다고 밝힌 정약용을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한 것은 반대파를 제거하려는 의도가 개재되어 있음을 알게 해 주는 일이었다.⁴⁾

4) 가족원의 죽음

가족에게 있어 가족 구성원의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사건이며, 가족 구성원의 사별로 인한 비애감은 가장 고통스러운 과정 중 하나이다(walsh & McGoldrick, 1991). 1802년 11월 30일 네 살 막내아들이 마마로 요절하는 큰 슬픔을 겪은 정약용은 귀향살이 타향에서 고향에 두고 온 어린 아들의 죽음을 듣고 한없이 애달파하였다. 막내아들의 죽음 소식에 답한 편지글에서 그의 북받치는 부성의 눈물을 짐작할 수 있다.

‘우리 농아가 죽었다니 비참하구나! 가련한 아이. 내 몸이 점점 쇠약해지고 있을 때 이런 일까지 닥치니, 정말 마음을 크게 먹을 수 없구나. 너희들 아래로 무려 사내아이 넷과 계집아이 하나를 잃었다. 그중 하나는 낳은 지 열흘 남짓 한때 죽어 버려서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하겠고, 나머지 세 아이는 모두 세 살 때여서 품에 안겨 한창 재롱을 피다 죽었다. 이 세 놈들은 나와 네 어머니가 함께 있을 때 죽었기에 딸은 운명이라고 여길 수도 있어 이번같이 간장을 후벼 파는 슬픔이 북받치지

4) 박석무(2022) 『다산 정약용 평전』을 참조하여 연구자가 내용을 정리함

않았다. 내가 이렇듯 먼 바닷가에 앉아 있어 못 본지가 무척 오래인데 죽다니! 그
애의 죽음이 한결 서럽고 슬프구나(정약용, 박석무 역, 2021, p.132).

유배살이라는 최악의 고통의 시기에 어린 아들마저 잃은 아픔을 견뎌내던 정약용은 1807년 7월 중형 정약전의 아들인 조카 학초의 죽음을 또 맞이하게 된다. 정약용은 조카 학초의 학문 능력을 인정하고 기대를 하고 있어서 자신의 저서를 그대로 전술(傳述)하여 명성을 떨어뜨리지 않을 것으로 여겼지만 갑작스런 학초의 죽음에 애통해하였다. 이후 1816년 6월에 정약용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자신의 지기(知己) 중형 정약전의 죽음을 경험한다. 사람이 자기를 알아주는 지기가 없다면 이미 죽은 목숨이라고 하며 유일하게 자신을 알아주던 존경하는 분이 돌아가셨다는 것에 대해 비통해하였다.⁵⁾

3. 정약용의 역경을 통해 본 성격강점

성격강점(character strengths)은 사고와 정서, 행동에 반영되어있는 긍정적 특질을 의미한다(Peterson, & Seligman, 2004). 여기에서의 ‘긍정적’이란 의미는 성격강점이 인간에게 탁월함(excellence)과 번성(flourishing)을 제공한다는 것이다(Yearly, 1990). 18년을 가족과 떨어져 머나먼 유배지에서 홀로 살아내야 했던 힘든 역경의 삶 속에서도 실의에 빠지지 않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보살피 결과적으로 최적 기능의 발휘와 좋은 삶을 영위하게 한 정약용의 성격강점은 다음과 같다.

1) 지혜 및 지식(wisdom & knowledge)

지혜와 지식은 더 나은 삶을 위해 지식을 습득하고 활용하는 것과 연관된 인지적 강점들로 어떤 환경의 변화에도 꺾이지 않았던 정약용의 학문에 대한 의욕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 덕목에서는 창의성과 개방성 및 학구열이 대표강점으로 나타났다.

(1) 창의성(creativity):

창의성은 독창적인 동시에 적응적인 생각과 행동을 만들어 내는 개인적 특성을 말한다. 독창성은 평범하지 않고 새롭고 기발한 것이며, 적응성이란 사람들 삶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을 말한다(권석만, 2011).

5) 정약용, 박석무 역 (2021)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를 참조하여 연구자가 내용을 정리함

“성은 돌로 쌓아야 한다. 돌은 구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돌을 들어 올리고 운반하는데 힘과 재정을 모두 소모하게 된다. 반드시 기구(器具)를 만들어 편리하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혜택을 보게 해야 한다....중략) 축적된 지식과 공력(工力)을 다해 둥근바퀴와 나선형 바퀴를 만들어 서로 밀어 주고 끌어 주게 하면, 어린아이 한 팔의 힘으로도 수만 근이나 되는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릴 수 있을 것이다” (박석무, 2022, p.156).

“모름지기 실학의 학문, 즉 실학(實學)에 마음을 두고...중략) 마음에 항상 만백성에게 혜택을 주어야겠다는 생각과 만물을 자라게 해야겠다는 뜻을 가진 뒤에라야만 바야흐로 참다운 독서를 한 군자라 할 수 있다” (정약용, 박석무 역, 2021, p.74).

정약용은 정조 임금의 명을 받들어 10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한 수원화성을 도르레의 원리와 수레바퀴 및 지렛대 원리를 활용하여 쉽고 절약적인 방법으로 성을 축조하였다. 거중기와 기중기, 녹로, 활차 등을 이용하여 2년 9개월만에 성의 축조를 완공하기에 이르렀고 또한, 공사비 4만 량이 절약되는 경제적 효과도 보았다. 정조 시대는 다른 어떤 시기보다 높은 수준의 문화가 창조된 시대로 화성은 정약용이 서양의 학술 이론까지 원용하여 이룩된 기념비적 작품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에도 등재되어 그 가치를 더 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창조성은 학문 하는데에도 발휘되어 실제 생활에 활용될 수 있는 실용성을 추구하며 백성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학문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하였다.

(2) 개방성(open-mindedness)

개방성이란 자신이 옹호하는 신념과 계획, 목표에 반대되는 증거들을 찾아, 그것이 타당한 것이면 기꺼이 수용하려는 마음가짐이다. 개방성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고 긍정적인 결과가 예상되며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활성화된다(윤병오, 2013).

“기(氣)란 의(義)와 도(道)에 짝하는 것으로 의와 도가 없다면 기는 시들어 버린다. 이것은 이이(李珣)가 가르쳐 준 뜻이다” (박석무, 2022, p.284).

퇴계의 ‘이발(理潑)’과 율곡의 ‘기발(氣發)’은 학문상의 논쟁일 뿐만 아니라, 노론과 남인의 당파 싸움의 발원지였고, 남인이면 무조건 퇴계를, 노론이면 무조건 율곡의 학설이 옳다고 주장하였다. 당시에는 아무리 대학자라도 문호(門戶)에 얽매이고 집착하여 자기 당파의 학설은 무조건 옳고, 다른 당파의 학설은 무조건적으로 배척하던 때였다. 그러나 정약용은 당파에 얽매이지 않고 옳고 타당한 것이라면 남의 이론에 구애받지 않고, 이를 수용하는 학문적 견해를 보였다.

“천지간에 지극히 정밀하고 오묘한 진리가 이렇게 밥 파는 노파에게서 나올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노파의 말을 듣고 흠칫 크게 깨달아 공경하는 마음이 일었습니다” (정약용, 박석무 역, 2021, p.224).

정약용이 유배지 강진에 도착했을 때, 먹고 잠잘 곳을 내어준 밥 하는 노파에게서 아버지의 은혜를 어머니의 은혜보다 더 높이 여기는 것은 잘못되었음을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는 것을 듣고 크게 놀라며 비록 배움이 낮고 신분이 낮은 사람이지만, 그녀가 반박한 명쾌한 논리를 수용하여 배움으로 삼았다. 이러한 태도는 정약용이 자신의 신념만 고집하지 않고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용하려는 열린 마음 자세로 나타나 자신의 학문적 깊이를 고취 시키는 객관적이고 냉철한 행동으로 발휘되었다.

(3) 학구열(love of learning)

학구열이란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것을 열망하는 것으로, 특정한 주제에 초점을 두고 집중적인 탐구를 통하여 인지적 만족을 추구하는 좋은 의미의 흥미라고 할 수 있다. 학구열은 배움의 과정 자체에서 오는 즐거움과 만족감을 경험하게 하는 것에서 학습에 대한 내재적 동기로 작용한다(윤병오, 2013).

“나는 소싯적 새해를 맞을 때마다 항상 일 년 동안 공부 과정을 미리 계획해 보았다. 예를 들어 무슨 책을 읽고 어떤 글을 뽑아 적어야겠다는 식으로 계획을 세우고 꼭 그렇게 실천하곤 했다...중략 아무튼 발전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지지 않아 도움이 되었다” (정약용, 박석무 역, 2021, p.75).

“무릇 독서하는 도중에 의미를 모르는 글자를 만나면 그때마다 널리 고찰하고 세밀히 연구해서 근원을 터득하여 글 전체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날마다 이런 식으로 책을 읽는다면 수백 가지의 책을 함께 보는 것과 같다” (정약용, 박석무 역, 2021, p.105).

“나는 예법에 관한 경전 공부를 귀양살이의 굴욕과 쓰라림 속에서도 단 하루도 거른 적이 없다. 의리의 정밀하고 오묘함은 마치 파의 껍질을 하나하나 벗기는 것과 같다” (정약용, 박석무 역, 2021, p.128).

정약용은 자신으로 인해 폐족이 되어 버린 자녀들에게 학문에 정진하는 학구적 자세로 극복하여 학문적 역량을 키우고 성장하기를 바랐다. 이러한 이유로 자신의 독서를 하는 마음가짐과 공부방법에 대한 것을 자녀들에게 전수하려는 내용의 편지

글을 자주 전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자녀들에게 폭넓은 주제를 던져 주고 책을 편찬하는 과제를 내어 『주서여패』, 『제경』, 『거가사본』, 『비어고』를 완성하였고 이러한 성격강점은 자녀들이 학자적 자질을 겸비하는 토대로 작용하였다. 또한, 학구열은 정약용이 학자로서 많은 후학을 양성하여 학문을 전수하고 기념비적인 위대한 저서의 편찬이 후대에 이르러서도 회자 되며 실생활에 적용되어 활용되는데 영향을 미쳤다.

2) 용기(courage)

용기는 난관과 고통에 직면하더라도 위축되지 않고 목표를 성취하려는 의지와 관련된 정서적 강점 덕목이다. 용기와 관련된 성격강점들은 어떤 것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능동적인 것도 있지만, 주어진 고통과 유혹을 극복하는 수동적인 것도 있다. 용기 덕목에는 용감성, 끈기, 진실성, 활력 등 4개 하위강점이 있다. 정약용은 이 덕목에서 용감함과 끈기, 진실성이 대표강점으로 나타났다.

(1) 용감성(bravery)

“내가 귀양이 풀려 돌아가느냐 못 돌아가느냐 하는 일은 죽고 사는 일에 비하면 극히 잔다란 일이다...^{중략} 잔다란 일로 다른 사람에게 쥘싸게 꼬리를 흔들며 애걸하고 산다면, 만약, 나라에 외침(外侵)이 있어 난리가 터질 때 임금을 배반하고 적군에 투항하지 않을 사람이 몇이나 있겠느냐? 사람이 해야 할 일을 너는 이미 다 했으니 이려고도 내가 끝내 돌아가지 못한다면 이것 또한 운명일 뿐이다. 마음을 편히 갖고 염려하지 말고 세월을 기다리는 것이 마땅한 도리이니 다시는 이러쿵저러쿵 말거라” (정약용, 박석무 역, 2021, pp.142-143).

“조그만 이익 때문에 앞뒤 가리지 않고 마구 행동하란 말이냐. 너희들 심중에서 사대부다운 기상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구나...^{중략} 저들의 권력이 묵은 불씨를 다시 일으켜 나를 공격하여 추자도나 흑산도로 쫓아 보낸다 해도 나는 머리카락 하나 까딱이지 않겠다” (정약용, 박석무 역, 2021, p.145-146).

1814년(순조 14년) 의금부에서 관문⁶⁾을 발송하여 정약용을 석방하려 했지만, 강준흠⁷⁾의 상소로 막혀 관문이 발송되지 못해 정약용의 유배가 풀리지 않은 일이 있었다(박석무 역, 2021). 이에 큰아들 정학연이 아버지 해배를 위해 애를 쓰다가 정약용에게 편지를 보내 당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권력자들에게 해배를 위해 타협의 손

6) 조선시대 동등한 관서 상호 간이나 상급관서에서 하급관서 보내는 문서.

7) 조선 후기 문신(1768~?). 자는 백원(百源), 호는 삼명(三). 천주교를 배척하던 공서파로 정약용과 반대파였음.

길을 내밀어 보라고 권하였다. 이를 두고 정약용은 크게 노하며 아들 학연에게 절조를 지키는 기준에 대해 말하며 잘못을 추종하여 해를 보는 어리석음을 행하지 않아야 함을 타이르며, 절대로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절조를 지키겠다는 뚜렷한 선비로서의 기개를 지켜야 함을 강조하였다. 유배생활의 힘들음을 정약용도 익히 경험하고 있었지만,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자신의 신념에 따라 행동하는 용감성은 정약용이 올바른 삶을 살고자 하는 삶에 대한 노력이었다.

(2) 끈기(persistence)

끈기는 여러 장애와 난관, 좌절에도 불구하고 목표지향적인 행동을 지속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목표를 성취할 가능성을 높여주며, 목표성취는 심리적 안녕과 삶의 만족도, 신체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권석만, 2011).

“마음에 약간의 성의만 있다면 아무리 난리 통이라 하더라도 진보할 수 있을 것이다...^(중략) 영원히 폐족으로 지낼 작정이냐? 어쩌서 스스로 포기하려 하느냐? 벼슬길이 막혔어도 성인(聖人)이 되고 통달한 선비가 되는 일이야 꺼릴 것 없지 않느냐? 가난하고 곤궁하여 고생 하다보면 마음이 단련되고 지혜와 생각이 깊어져 인정(人情)이나 사물의 진실과 거짓을 옳게 판단할 수 있는 장점까지 가지게 된다” (정약용, 박석무 역, 2021, p.76).

“폐족 가운데 뛰어난 재주를 가진 이가 많은데, 이것은 과거공부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 과거에 응할 수 없게 됐다고 해서 스스로 꺾이지 말고 경전 읽는데 온 마음을 기울여 글하는 사람의 자손까지 끊기게 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 (정약용, 박석무 역, 2021, p.127).

“남자가 독서하고 행실을 닦으며 집안일을 보살필 때는 응당 거기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정신력이 없다면 아무 일도 되지 않는다. 정신력이 있어야만 근면하고 민첩할 수 있고, 지혜도 생기며, 업적도 세울 수 있다. 진정으로 마음을 견고하게 세워 똑바로 앞을 향해 나간다면 태산이라도 옮길 수 있다” (정약용, 박석무 역, 2021, p.105).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자식들과 주고받은 편지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자식들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 내지 못하고 주저앉아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선조들이 일군 사대부의 명성을 무너뜨리지 않을까 몹시 걱정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항상 조상들의 위대함을 전하면서 비록 폐족으로 떨어진 위기상황에 놓인 가문이지만 현재의 난관

을 이겨 내도록 목표를 가지고 정진할 수 있게 자식들의 행동을 일으켜 세우려 하였다. 역경이라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학문에 정진하면 예전의 명성을 회복하고 학문의 수준도 경지에 올라있을 거라는 확신을 심어주고 자녀들이 근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가르침을 주었다.

(3) 진실성(integrity)

진실성은 자신의 내면적인 생각과 감정, 의도를 거짓 없이 드러내는 것이다. 진실성의 결여는 자기 소외를 가져오지만, 자기 내면의 욕구와 신념을 진실하게 드러내고 표현하면 주관적인 행복감을 증진 시킨다(권석만, 2011).

“ 부형이나 일가친척 중에 더러 잘못이 있으면 어찌 숨길 수 있겠느냐는 거짓말을 입밖에 내는 것을 내 평생 본 적이 없다...중략) 이제부터라도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온 힘을 다 써라...중략) 말 한마디라도 반드시 살피 털끝만큼도 사실에 어긋나지 않게 한다면 조상들의 모범을 본받는 길이 될 것이다” (정약용, 박석무 역, 2021, p.96).

“임금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지 임금의 충애를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임금의 신뢰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지 임금을 기쁘게 해주는 사람이 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중략) 미사여구로 문장이나 꾸미는 작은 솜씨는 한세상에 회자된다 해도 그것은 광대가 등장하여 우스갯짓을 연출하는 행동 따위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정약용, 박석무 역, 2021, p.157)

정약용의 진실성은 이미 앞서 생애에 나타난 역경 중 천주교 탄압에서 살피본 변방사동부승지소를 통해 알 수 있다. 자신에 대한 비난과 질책도 달게 받고 수궁하여 책임지는 모습은 자신을 인정하고 자존감을 높여 자기 신념을 충족시켜 온전한 자기를 형성하게끔 한다. 이러한 진실성이 굳건한 자아를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식들에게도 진실한 내면을 갖춘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교육하였다.

3) 인간애(humanity)

인애(仁愛) 또는 인간애는 타인을 보살피고 이해하며 그들과 친밀하고 따뜻한 관계를 형성하도록 하는 덕목으로 이기적이고 공격적인 인간의 성향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조화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한다. 인간애 덕목에 속하는 성격강점으로는 사랑, 이타성, 사회지능이 있다. 정약용은 이 덕목에서 사랑과 이타성이 대표강점으로 나타났다.

(1) 사랑(love)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애정을 느끼고 또, 그것을 표현하고 상대방의 애정을 받아들이면서 안정화 된다. 이것은 다른 사람과 깊은 애정과 신뢰를 형성하고 심화시키며 유지하는 것이다. 사랑은 그 자체로 흥분과 안정감, 만족감 등 긍정적 정서를 제공한다(권석만, 2011).

사랑을 주고받으며 나누는 능력은 개인의 성격강점으로서 연인관계와 부부관계를 비롯하여 다양한 인간관계의 기반이 된다.

“철이네 집에 급한 일이 생기면 찾아가서 일을 처리해주어라. 큰 추위나 홍수가 있으면 잇지 말고 식량이나 땀감을 대주어라. 이런때 죽 한 그릇이라도 도와주는 것이 허름한 집 한 채 살 돈을 대주는 것보다 낫다. 아무쪼록 편안히 살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 보살펴 주어라” (정약용, 박석무 역, 2021, p.138).

“사람이 사는 집에는 화목한 기운이 있도록 힘써야 한다. 일가끼리 자리를 같이 하거나 가끔 친한 손님이 찾아오면 기쁜 마음으로 맞아 대접하고 하룻밤이라도 더 주무시고 가게 하여 마음을 흐뭇하게 해주어야 한다” (정약용, 박석무 역, 2021, p.98).

정약용은 유배를 가게 되면서 기울어진 가문의 위세와 뿔뿔이 흩어진 일가친척들을 한데 모아 서로를 돌보고 마음을 어루만지며 어려운 위기를 이겨 낼 수 있도록 다독였다. 아들과 며느리들에게 자식을 잃고 힘겨워하는 시어머니의 안위를 밤낮으로 살피게 하고 친하게 지내고 교류했던 가문의 사람들이 힘들고 불편한 것은 없는지 두루두루 살피 지속적인 관계를 호의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였다.

(2) 이타성(altruism)

이타성은 친절과도 동일하게 사용된다. 이타성은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호의적인 행동을 하고자 하는 성향을 말한다. 어떠한 친사회적 행동이 이타적이기 위해서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고, 자발적으로 행하고,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 개인적 이득을 바라지 않아야 한다(권석만, 2011).

“눈이 쌓여 추위에 쓰러져 있는 집에는 장작개비라도 나눠주고. 병들어 약을 먹어야 할 사람에게는 한 푼이라도 쪼개서 약을 지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고...충략” (정약용, 박석무 역, 2021, p.68).

“스스로 자기 재물을 쓰는 것은 형태로 사용하는 것이고, 자기 재물을 남에게

베꾸는 것은 정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정약용, 박석무 역, 2021, p.179).

정약용은 남이 어려울 때 자기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서 남이 먼저 은혜를 베풀어주기만 바라는 것은 나쁜 근성을 가진 것이라고 하였다. 남의 도움을 바라지 말고 항상 먼저 도와줘야 한다는 이러한 사고는 재물을 다루는 방법에서도 같았다. 옷이나 음식, 재물 등은 부질없고 가치 없는 것이라 하였다. 창고에 감춰둔 재물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지만 어렵고 가난한 이웃에게 나누어준다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하면서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원만한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하였다.

4) 정의(justice)

정의는 공동체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번영을 이루게 하는 사회적 덕목이다. 구성원 모두가 만족하면서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개인적 덕목이 바로 정의다. 정의는 개인과 집단의 상호작용을 건강하게 만드는 덕목이라고 할 수 있다(권석만, 2011). 정약용의 사회적 덕목의 대표강점은 시민의식과 공정성이 두드러졌다.

(1) 시민의식(citizenship)

시민의식은 자신이 소속한 집단의 공동 이익을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과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려는 책임의식을 뜻한다.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을 지니며 집단 전체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려는 자발적인 태도를 의미한다(Peterson & Seligman, 2004). Erikson(1968)은 중요한 조직이나 공동체와의 연결감을 지니지 못하는 사람은 삶의 목적과 방향을 상실하고 사회에 대한 불만감을 느끼게 되는 ‘정체성 공허감(identity vacua)’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이런 점에서 시민의식은 건강한 사회를 위해 필요한 덕목일 뿐 아니라 개인의 정체감에도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갈대밭 마을에 사는 백성이 아이를 낳은 지 사흘 만에 군보(軍保)에 편입되고 이정(里正)이 못 바친 군포(軍布)대신 소를 빼앗아 가니 그 백성이 칼을 뽑아 자기 양경(壤莖)을 스스로 베면서 말하기를 “내가 이 물건 때문에 곤액을 당한다.” 라고 했다’ (박석무, 2022, pp.439-440).

‘김을 매고 북을 쥐도 호미를 쓰지 않고 눈에 나는 가라지도 손으로 뽑아 없앤다오/ 어찌하면 맨다리에 거머리 물어 흐르는 피를 승정원에서 올리는 상소문에 그려다가 덧붙일까’ (박석무, 2022, p.430).

‘어찌해야 번개 같은 벼락 도끼 얻어다가/ 너희 몽땅 잡아다 용광로에 녹여 버리나’ (박석무, 2022, p.442).

정약용은 가림주구에 신음하는 농민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통탄하였다. 1802년 유배 온 다음 해부터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지만, 그 무렵부터 백성들을 수탈하는 탐관오리들의 부정부패를 질타하는 시를 지었다. 탐진은 전라도 강진의 옛 이름으로 탐진촌요(耽津村謠)라는 시에서 거머리 피로 상소문을 써서 올린다면 고통받는 농민들의 참상을 조정에서 알아차릴 수 있으리라고 비유하였다. 또한, 술을 마시고 취중에 읊었다는 1060자의 방대한 분량의 시 「하일대주」에서는 황구침정, 백골징포 등에 시달리던 백성들이 애를 그만 낳으라고 양근을 자른다는 이야기를 통해 착취에 시달리는 농민들의 실상을 고발하였다. 이렇게 백성들의 삶을 갉아먹는 관리들을 송충이에 비유한 송충이 노래(蟲食松)에서 용광로에 모두 처넣어 처벌하고자 분개하였다. 당시 정약용은 억울한 백성들의 참상에 함께 눈물을 흘렸고, 모두가 평등한 백성인데 부자들은 쌀 한 톨, 비단 한 치 납부하지 않고 가난한 백성들만 무거운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불평등한 세상을 비판하고 힘도 권력도 없이 해결의 방법도 없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만 애달파하였다.

(2) 공정성(fairness)

공정성은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하는 태도를 의미하며, 사적인 감정이나 편견으로 인한 치우침 없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고 동일한 규칙에 따라 대하는 태도를 말한다.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는 공정성은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 있다.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는 공정성의 덕목을 지닌 사람들이 존경받는 이유는 공정성은 자신의 편향적인 애정과 선호를 절제해야 하는 냉정한 성품인 동시에 모든 사람을 똑같이 존중하는 애정을 담고 있는 따뜻한 성품이기 때문이다(권석만, 2011).

‘정약용은 암행어사로 활동하면서 고을 선비들을 협박하여 향교의 대성전을 옮기고 명륜당(明倫堂)을 헐어버린 관계자를 체포해다가 징계하였다’ (박석무, 2022, p.49).

“한 고을에 모름지기 너와 같은 사람이 있어 형벌이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만백성을 위해 그들의 원통함을 뚫으니, 천금을 얻을 수 있을지언정 너와 같은 사

람을 얻기가 어려운 일이다. 오늘 너를 무죄로 석방한다” (박석무, 2022, p.231).

‘공정(公定)하다’ 는 것은 여러 사람을 평등하고 올바르게 대한다는 의미이다. 정약용의 공정성은 특히 관직생활을 하면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암행어사로 나아가 당 대 큰 세력가이던 정승 서용보의 비리를 밝히고 엄격한 국법을 적용하여 처리하였다. 정약용에게는 모든 법의 적용에 왕의 측근도 예외가 없었다. 또한, 무과 시험의 폐단을 지적하면서 시골의 이름 없는 가문 출신이면 교묘한 방법으로 시험에서 낙방시키고 서울의 장수집안 자제들만 과거를 독점하는 그릇된 관행도 깨트려 정의가 무너진 조선 후기 사회를 질타하였다. 정약용이 목민관 생활을 하면서 “목민관이란 백성을 위해 존재하지, 백성들이 목민관을 위해서 태어난 것은 아니다” 라는 논리는 백성들이 당하는 괴로움을 관에 말했다가 고문을 당하고 도망간 이계심이라는 백성의 재판 판결에서 확연하게 나타났다(박석무, 2022).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을 관에 항의해 현실을 바르게 알려 주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관이 밝은 정치를 펼칠 수 있다고 하면서 형벌을 내리기보다 세상이 나아지기 위해 천 냥의 거금을 주고라도 사야 할 사람이라며 풀어준 일화에서 정약용의 공정성은 빛을 발했다.

5) 절제(temperance)

절제는 중용(中庸)에 해당하는 덕목으로,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는 말처럼, 절제의 덕목은 지나침이나 극단적인 독단에 빠지지 않게 함으로써 우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절제의 덕목들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자신의 욕망과 감정을 잘 관리하는 것이다. 절제는 어떤 정서나 욕구, 유희 등을 이겨낸다는 점에서 용기와 비슷하지만, 용기는 부정적인 것을 이겨내고 긍정적인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반면에 절제는 부정적인 것들인 증오와 오만, 단기적 쾌락, 장기적 낭비, 극단적인 감정 그 자체와 정면으로 맞서 그것들을 이겨내는 데 중점을 두는 관대성과 신중성, 겸손, 자기조절로 이뤄져 있다(권석만, 2011). 정약용은 이 덕목에서 신중성과 자기조절이 대표강점으로 나타났다.

(1) 신중성(Prudence)

신중성은 모든 덕목이 온전하게 표현되도록 조절하는 기반이기 때문에 중세시대 신학자 아퀴나스는 ‘모든 덕목의 아버지(the father of all virtues)’ 라고 불렀다.

경솔한 판단과 무모한 행동을 방지하는 절제된 덕목으로 선택을 조심스럽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위험에 처하지 않으며 나중에 후회할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 능력을 말한다(권석만, 2011).

“무릇 스스로 할 일을 다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삼가며 살아도 부형(父兄)

들 가슴엔 원망이나 불평이 쌓일 수 있다...중략) 너희들이 느낀 바 있어 행실을 바르게 한다면 한 달도 못가서 큰 아버지의 마음이 풀릴 것이다” (정약용, 박석무 역, 2021, p.71).

“천리(天理)는 돌고 도는 것이니 한번 넘어졌다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하루아침의 분노를 이기지 못하여 서둘러 시골로 이사 가버린다면 무식하고 천한 백성으로 일생을 끝마치고 말 뿐이다” (정약용, 박석무 역, 2021, pp.174-175).

“거듭 당부하는 건 말조심하는 일이다...중략) 말을 실속 없이 과장되게 하는 사람은 남이 믿어주질 않는 법이니, 가난하고 천한 사람일수록 더욱 말을 적게 해야 한다” (정약용, 박석무 역, 2021, p.183).

정약용은 힘든 현실에 지쳐 성급하게 행동하여 잘못된 결과를 초래하지 못하도록 항상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면서 사건과 사물을 돌아보고 판단하여 대응하는 면모를 보였다. 자식들에게 자신들이 처한 어렵고 궁핍한 현실을 부형(父兄)들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경솔한 행동을 하여 부형들의 원망을 사지 말 것이며, 진실 된 마음으로 섬기라고 하였다. 자신이 지은 죄로 현재는 자식들을 시골에 숨여 살게 하고 있지만, 가문의 부흥을 위해 문화적인 안목을 잃지 않도록 서울로부터 10리 안에 살아야 함을 이야기했다. 벼랑 끝에 처했다고 해서 분노를 못 참고 시골로 이사가 버리는 무모한 행동을 하게 되면 무식하고 천한 백성으로 삶을 마치게 되니 벼슬길에 있는 사람들과 다르게 생활하지 말고 아들이나 손자세대에 이르러 빛을 볼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하였다. 또한, 말을 조심하여 당파를 짓는 사심(私心)을 깨끗이 씻어버리라고 하였다.

(2) 자기조절(self-regulation)

자기조절은 지향하는 목표나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 충동, 행동을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인간은 내적·외적 자극에 끊임없이 반응하며 살아간다. 자기조절은 내면적인 충동을 억제하는 능력일 뿐만 아니라 적절한 행동을 하도록 추진하는 능력이기도 하다. 자기조절은 개인과 세계의 관계를 가장 조화롭게 만들기 위해서 자신을 변화시켜 세계에 적응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Rothbaum, & Snyder, 1982).

“비스듬히 드러눕고 옆으로 삐딱하게 서서 아무렇게나 지껄이고 눈알을 이리저리 굴리면서 경건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때문에 몸을 움직이는 것(動容), 말을 하는 것(出辭), 얼굴빛을 바르게 하는 것(正顏), 이 세가지

(三斯)가 학문을 하는 데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마음을 기울여야 할 일이다” (정약용, 박석무 역, 2021, p.79).

“사의제란 네 가지를 마땅하게 해야 할 방(四宜之齋)이라고 했다. 마땅함이라는 것은 의(義)에 맞도록 하는 것이니 의로 규제함이다” (박석무, 2022, p.387).

정약용은 젊은이들이 제멋대로 처신하는 것을 언급하며 자신 또한 그러했음을 반성하여 난폭하고 거만함을 멀리하는 것, 비루하고 천박함을 멀리하는 것, 미더움을 가까이 하는 것을 서재(書齋)의 이름으로 삼았다. 그리고 올바른 마음과 행동으로 흐트러짐 없는 학자 생활을 하겠다는 스스로에 대한 다짐으로 자신의 방을 ‘사의제’라 명명하고 생각과 용모, 언어와 몸가짐 등 학자가 지녀야 할 태도에 조금이라도 소홀한 점이 있으면 반성하고 바로잡겠다는 절제된 모습을 보였다.

6) 초월(transcendence)

초월은 인간의 실존 상황을 넘어서 우주와의 연결성을 추구하는 노력을 의미한다. 앞에서 제시하고 논의된 다양한 강점들은 세속적 측면에서 개인적 행복과 사회적 번영을 추구하는 데 기여 하는 덕목이다. 반면, 초월성을 포함한 강점들은 우주와의 연결성을 추구함으로써 삶을 더 의미 있고 충만한 것으로 만드는 덕목이라고 할 수 있다(Peterson & Seligman, 2004). 초월과 관련된 강점으로는 감사, 낙관성, 심미안, 유머감각, 영성이 있으며, 정약용은 이 덕목에서는 낙관성과 심미안이 대표강점으로 나타났다.

(1) 낙관성(optimism:희망)

낙관성은 행복과 가장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는 요인으로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인 기대를 예상하기 때문에 긍정 정서와 희망을 갖게 된다. 따라서 미래의 긍정적인 결과를 예상하면서 적극적이고 활동적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결과를 창출한다. 건강한 낙관주의자들은 인생과 세상의 부정적인 측면을 무시하거나 외면하기보다 그것을 인식하되 수용하며 그것에 저항하지 않는다. 낙관성은 일상적이고 세속적인 삶에 대한 긍정적인 자세일 뿐만 아니라 인간 존재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포함한다 (권석만, 2011).

“내 생각에는 너는 이미 진사가 되고 과거에 급제할 실력이 족히 된다고 본다. 글을 알면서도 과거 때문에 오는 제약을 벗어나는 것과 진사가 되고 급제한 사람이

되는 것 중 어느 편이 나은 일인가는 말하지 않아도 잘 알 것이다. 너야말로 참으로 독서할 때를 만난 것이다. 지난번에 말했듯이 가문이 망해버린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처지가 되었다는 게 바로 이런 것 아니겠느냐” (정약용, 박석무 역, 2021, p.45).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한때 재해를 당했다고 하여 청운(靑雲)의 뜻을 꺾어서는 안 된다. 사나이의 가슴속에는 언제나 가을 때가 하늘로 치솟아오르는 기상을 품고서 천지를 조그마하게 보고 우주도 손으로 가볍게 요리할 수 있다는 생각을 지녀야 옳다” (정약용, 박석무 역, 2021, pp.201-202).

정약용은 역적으로 몰려 벼슬에서 물러나 유배를 당했고 가족들은 폐족으로 떨어지는 아픔을 겪었지만 이런 상황들에 안주하지 않았다. 폐족이 됨으로써 과거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은 상황을 오히려 진정한 학문을 하기에 좋은 기회로 작용한다는 희망을 품고 이를 자식들에게 학자로서 성장하는 좋은 기회로 여기라고 하였다. 또한, ‘이제야 내가 겨를 얻었다’ 라는 생각으로 기뻐하며 그동안 벼슬에 있어서 학문에 몰두할 수 없었던 환경에서 벗어났음을 반갑게 여겼다. 이에 ‘마침내 혼연히 스스로 기뻐하여 육경사서를 가져다 깊이 연구하였다’ (박석무, 2022) 라며 좌절하지 않고 그 상황에 순응하며 받아들였다. 선비로서의 반듯한 삶을 살아갈 마음 자세를 확고히 가진 정약용의 이러한 낙관적인 자세는 후대에 길이 남을 방대한 업적의 저서를 편찬하고 가문의 명성을 회복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2) 심미안(appreciation of beauty and excellence)

심미안은 아름다움과 탁월성에 대한 인식 능력을 의미한다. 아름답고 탁월한 것을 민감하게 포착하고 그러한 것으로부터 즐거움과 의미를 감지할 수 있는 심미적 능력을 말한다. 심미안은 아름다움의 경험을 통해 다른 존재와의 연결감과 유대감을 증진한다. 정약용은 유배 생활을 하면서도 그 지역의 풍속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시로 읊어 그 경이로움에 감사를 표했다. 아래의 시는 『다산시정선』 하권의 「다산 팔경」 중 ‘해송나무’ 와 「다산에 피는 꽃을 읊다」 에서 정약용이 접시꽃을 보고 그 아름다움에 탄식한 내용이다.

‘작은 시내 감돌아 작은 산 맑게 둘러싸고/ 푸른 솔잎 붉은 껍질 해송이 쪽쪽 높이 솟았구나/ 정말로 거문고나 피리 소리 울리는 곳인데/바람이 불어대어 집안에 찬 기운 가득해라’ (정해령, 2022, p.337).

‘접시꽃 잎새마다 미풍에 나부끼고/ 시간 지나 문득 보면 붉은 꽃 한길이네/ 이때부터 꽃송이가 해를 향할 줄 알아/ 뿌리 하나라도 버들 그늘 밑으로 뺨지를 않는

구나' (정해령, 2022, p.343).

정약용은 1801년 경상도 장기로 귀양 가서 「아가 노래」 「장기 농가」 「보리타작」 등의 시를 읊어 장기의 풍속과 생활상을 그 지역 토속어를 사용하여 생생하게 시로 담아냈다. 강진으로 귀양 와서는 「탐진 노래」 「탐진 농부가」 「탐진 어부가」 등을 시로 지어 강진의 풍속을 시로 그려내었다. 다산으로 거처를 옮기고 나서도 「다산 팔경」이라는 시를 지어 주변의 자연과 교감을 나누었다. 「다산에 피는 꽃을 읊다」에서는 다산 초당 주위에 있는 꽃과 경치를 노래했다. 몸과 마음이 힘든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약용은 주변의 자연과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시로 담아내는 아름다운 감성을 가진 심미안이 오랜 유배 생활로 지친 마음의 평안을 가지게 하였다.

정약용의 성격강점을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모든 덕목에서 대표강점을 골고루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식 및 지혜 덕목에서 뚜렷하게 나타난 대표강점인 학구열은 유배 생활을 하는 18년이란 시간 동안 학자로서 정약용의 업적을 확고히 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용기 덕목에서는 자신의 해배를 위해 간신배에게 아첨하지 않고 오랜 유배 생활을 감내하겠다고 담담히 받아들이고 결코 자신의 안위를 보장받기 위해 권력에 타협하지 않겠다는 용감성과 어려운 현실을 마주하였지만, 포기하지 않고 끈기를 가지면 언젠가는 어려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 인간애 덕목에서는 사랑과 이타성이 대표강점으로 나타났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가족들이 더욱 화합을 위해 서로를 돌보고 위해주어야 함을 내세웠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무엇이 필요한지 먼저 나서서 도와주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하였다. 정약용의 이러한 이타적 행동은 비록 개인의 재물을 소비하는 태도에서도 개인적 이익을 위한 소비의 행태보다 타인을 위해 재물을 소비하는 태도가 더욱 값진 행동이라고 하였다. 정의 덕목에서는 시민의식과 공정성이 대표강점으로 나타났다. 가림주구 신음하는 백성들의 피폐한 삶에 통탄하였고 모든 국법의 적용에 있어서 왕도 예외가 없음을 밝혀 만백성에게 공평하고 동일한 규칙이 적용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대표강점은 정약용이 목민관으로서의 태도에 많은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절제덕목에서는 신중성과 자기조절이 대표강점으로 나타났다. 폐족으로 떨어진 가문이라고 미리 포기하여 함부로 행동하거나 경솔한 언행을 삼가고 신중하게 행동하여 미래의 희망적인 기대를 품을 수 있도록 하였다. 자기조절은 올바르게 흐트러짐 없는 생활을 하겠다는 각오를 품고 자기를 돌아보는 행동으로 나타났으며, 자녀들에게도 일상생활에서 흐트러짐 없이 자신의 행동을 바르게 하며 점검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마지막으로 초월덕목에서는 낙관성과 심미안이 대표강점으로 나타났다. 낙관성은 오랜 유배라는 현실 상황을 유연하게 받아들여 고통에 대해 적응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강점으로 나타났다. 가족과 떨어져 18년이란 시간 동안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자연에 심취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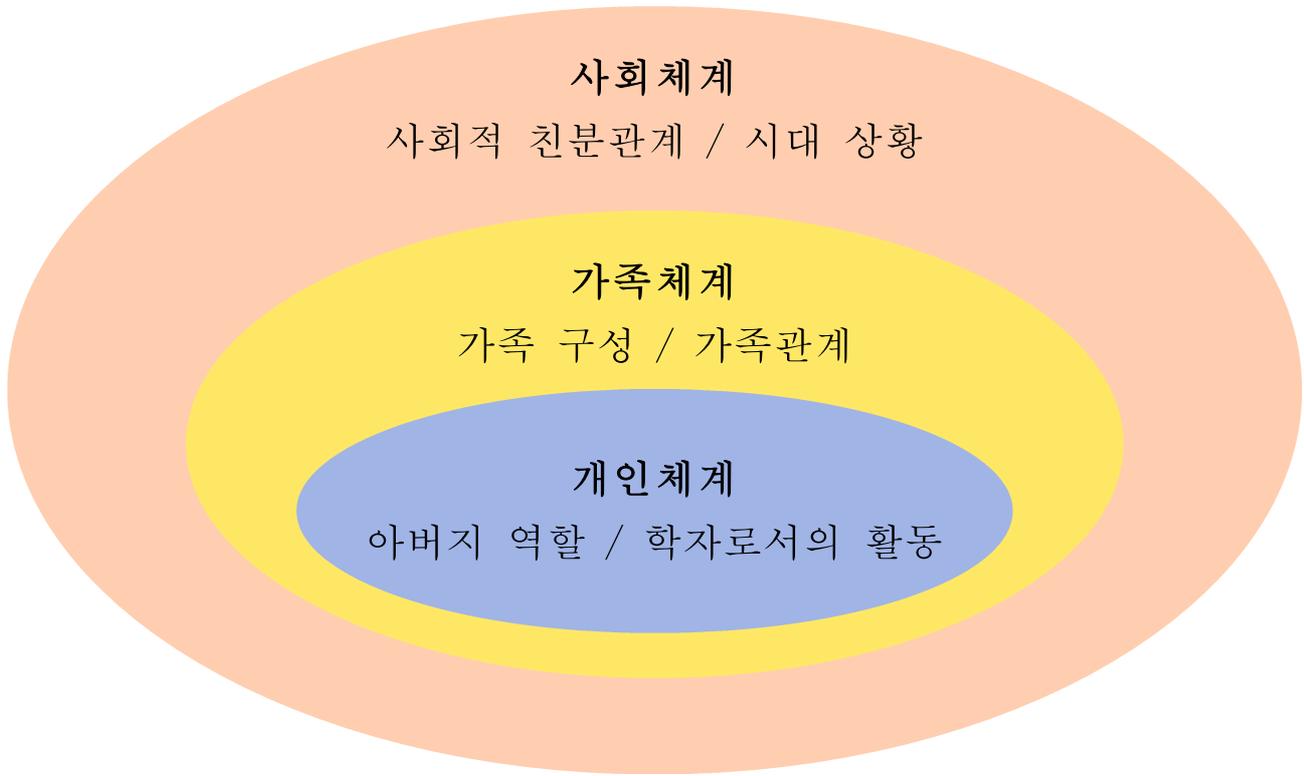
여 자정작용을 하게 한 심미안은 정약용이 오랜 유배 생활을 견고하게 지탱할 수 있게 한 근간이었다. 정약용에게 발현된 다양한 대표강점은 고통스럽고 험난했던 유배 생활을 적응하고 견디게 했을 뿐만 아니라, 행복을 구현할 수 있게 한 기재로 작용하였다.

4. 정약용의 생태체계

앞서 본 연구는 정약용의 생애에 나타난 역경을 통해서 그의 성격강점을 살펴보았다. 비록 18년의 유배 생활 동안 고난과 역경의 과정이 있었지만, 정약용은 그의 대표강점을 활용하여 위기의 시기를 잘 극복하였다. 연구자는 정약용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환경과의 관계에서 상호작용한 결과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생태체계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한다. 생태체계 관점은 인간의 행동을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 결과로 바라보며 인간이 속한 맥락을 중시하고, 여기에서 맥락이란 개인의 행동과 내부적인 속성뿐만 아니라, 물리적,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인 측면과 지구촌화, 도시화 및 큰 규모의 환경적 변화와 같은 지역적, 보편적 수준의 동향을 모두 포함하는 넓은 의미를 뜻한다(김수린, 2010).

본 연구는 Kemp(2001)의 이론을 적용하여 정약용의 생태체계를 개인체계, 가족체계, 사회체계로 나누어 살펴보려고 한다. 연구자는 정약용의 개인체계를 아버지와 학자로서 역할과 태도에서 살펴보고, 가족체계는 가족 구성과 가족관계를 통해 체계가 기능하는 방식이 어떻게 가족을 유지하는지 확인하고, 사회체계는 사회 문화적 요소인 사회환경이 정약용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회적 친분관계와 시대 상황을 선정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정약용의 생태체계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정약용의 생태체계도



1) 정약용의 개인체계

개인체계는 발달하는 개인이 독특한 물리적, 물질적 특성을 가진 환경 안에서 경험하는 활동과 역할 및 대인관계 유형을 말하며, 친밀한 사회환경 안에서 겪게 되는 상황을 말한다. 즉, 이것은 활동의 형태, 역할, 물리적 특성들과 물질적 특징들로 연결된 사람들과의 경험들인 학교, 가정, 동료 간의 전형적인 배경에서 활동과 역할 및 대인관계를 맺는 방식이다(Bronfenbreber, 1992). 정약용의 개인적 특성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아버지와 학자로서의 정약용의 역할과 행동을 통해 그의 미시수준은 정약용의 생애에 어떻게 작용하여 역경을 이겨 낼 수 있게 하였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1) 아버지 역할

파더링(Fathering)은 ‘아버지됨, 아버지 역할을 한다’ 라는 뜻으로, 급변하는 시대 상황에서 이 시대 아버지들에게 변화에 맞는 ‘아버지 되기(Fathering)’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아이들은 아버지를 닮고 싶고, 아버지는 아이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기를 원한다(박혜숙, 정민자, 2023). 그리고, 아버지는 자녀의 삶이 바람직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돕고, 이것은 자녀의 성장발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Ringsmose, 2012). 부모와 자녀 관계의 친밀성이 자녀들의 성장기에 미치는 영향은 더할나위 없이 크다. 그렇다면, 아버지가 부재인 상황에서 정약용의 자녀들과 정약용은 서로 어떻게 관계를 형성하여 나갔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연구자는 공진수(2006)의 아버지 관련한 선행연구결과를 토대로 정의한 아버지됨을 이루는 여섯가지 요소를 근거로 살펴보려고 한다.

첫째, 아버지 존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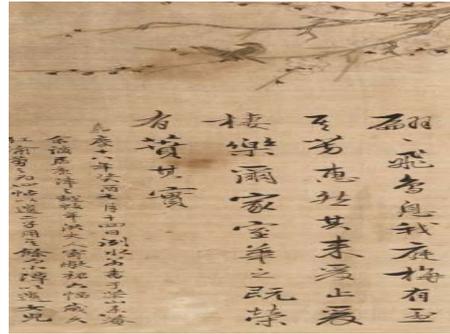
아버지의 존재는 ‘아버지 부재’와 상반되는 개념으로, 아버지는 자녀가 존재하는 근원이 되며, 아버지가 가정에 또, 가족에게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버지 존재의 중요성은 아버지의 부재(不在)를 논할 때, 그 의미가 더욱 확고해진다. 아버지가 부재한다는 것은 가정에 아버지가 존재하지 않음을 말하며, 이것은 자녀가 존재의 터전을 상실한 것이라 할 수 있다(Will Glennon, 1995). 정약용은 아버지의 오랜 부재로 인한 자녀들의 상실감을 걱정하여 오랜 유배 생활 동안 자녀들에게 43통의 서간문과 가훈 34편, 총 77편의 서간문(정약용, 박석무 역, 2021)을 주고받으며 자녀들과 소통을 이어 나갔다.

1810년에 정약용은 강진에서 귀양살이할 때 몸져누운 아내가 보낸 해진 치마 다섯 폭으로 서첩을 만들어 자녀들에게 훈계하는 말을 써서 전해주고 1813년에는 시집가는 외동딸에게 ‘매조도(梅鳥圖)’라는 그림을 그려 딸의 행복을 빌어주며 비록 떨어져 있지만, 아버지의 존재를 편지와 그림을 통해 전달하였다.

<그림- 3> 두 아들에게 보낸 하피첩
(출처: 정약용, 박석무 역, 2021)



<그림- 4> 딸에게 보낸 매조도
(출처: 정약용, 박석무 역, 2021)



둘째, 보호자이다.

보호자 역할을 하는 아버지는 가족들이 경험하는 위협적이고 혼동과 조절을 주려는 변화에 맞서고 가족관계가 깨어지는 갈등 요인과 맞서야 한다. 또한, 자녀들이 위기에 대처하는 능력과 현실 적응 능력, 자기 계발과 절제력에 도움을 주어야 함과 동시에 힘과 용기, 적극성과 정의감을 북돋아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공진수,

2006).

“폐족으로서 잘 처신하는 방법은 오직 독서밖에 없다...중략) 너희들처럼 중간에 재난을 겪은 젊은이들만이 진정한 독서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정약용, 박석무 역, 2021, p.43).

“백번 생각해보아도 집에서 공부할 생각이라면 머물러 기다렸다가 네 아우와 교대하여 이곳으로 오거라...중략) 온갖 일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내려와서 같이 공부하자. 이는 단연코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약용, 박석무 역, 2021, p.62).

“내가 너희들 공부에 대해서 글과 편지로 수없이 권했는데도 아직 경전이나 예악(禮樂)의 의문스러운 점에 대해 한 번도 묻질 않고 역사책에 관한 논의도 보여주지 않으니 어찌된 셈이나? 너희들이 이다지도 내 말을 무시한단 말이나?” (정약용, 박석무 역, 2021, pp.75-76).

훌륭한 가문의 명성을 추락시켜 폐족으로 만들어 놓은 자신의 과오로 인해 자녀들이 학문에 소홀하고 나태한 정신자세를 가질까 봐 염려되어 정약용은 지속적으로 자녀들에게 이러한 장애물로부터 멀어지게 하도록 두 아들을 교대로 자신이 있는 유배지로 불러들여 직접 학문을 가르치고 정신자세를 점검하였다. 사대부답지 않은 나태한 행동을 버리도록 단호한 말로 다그치고 지금의 처한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해야 하는 처신들을 알려주어 정신적 기상을 돋우도록 이끌어 주었다.

셋째, 양육자이다.

양육자는 자녀의 성장발달에 필요한 자원을 채워주는 공급자이며, 자녀와 열린 대화를 통해 인정하고 지지해 주며, 자녀들이 가족이라는 소속감을 갖도록 돕는다.

“생계를 꾸려가는 방법에 대해 밤낮으로 모색해봐도 뽕나무 심는 일보다 더 좋은 것은 없는 것 같다” (정약용, 박석무 역, 2021, p.210).

“신지도에서 귀양살이 하는 형님(丁若銓)의 일을 생각하면 마음이 미어진다...중략) 나는 육지에서 생활해도 괴로움이 이러한데 떠나면 섬 생활이야 오죽할까. 형수님의 정경 또한 측은하기만 하구나” (정약용, 박석무 역, 2021, p.39).

“선조들이 가깝게 사귀던 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후손을 찾아 어느 집인지 알아두었다가 나중에 만나게 되면 다정하게 선대 때부터 지내오던 정의(情誼)를 이야기하거라” (정약용, 박석무 역, 2021, pp.58-59).

가족들의 곤궁한 현실에 실질적 도움을 주지는 못하였으나, 정약용은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방법들을 알려주어 자녀들 스스로가 직접 실천하도록 하였다. 뽕나무를 심어 누에를 치는 것은 경제적인 이익도 크지만, 사대부로서 품위를 저버리지 않고 품격을 유지할 수 있는 효율적인 하나의 방법임을 가르쳤다. 자신이 처한 상황도 위태롭고 빈약하기는 마찬가지인데, 중심을 잡고 쓰러진 가문의 명성을 살리기 위해 가족의 단합을 도모하며 더 힘든 처지에 있는 구성원들을 챙기고 돌보도록 자녀들을 격려하고 모두가 소속감을 갖도록 하는데 힘을 기울였다. 가문의 재건과 효(孝)·제(弟)를 실천하는 정약용은 가정 최고의 권위자인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묵묵히 이행하였다.

넷째, 인도자이다.

인도자는 가정의 규칙과 기준을 정하고 가족에게 내적 안정감을 주며, 도덕적인 본을 보이고, 도덕성을 발달시키며, 자녀들을 가르치고 훈련한다. 선비정신을 강조한 정약용은 자녀들이 사대부의 자제답게 강직한 기상을 품은 공정하고 도덕적인 학자로 성장하도록 인도하였다.

“네 형이 왔을 때 시험 삼아 술 한잔을 마시게 했더니 취하지 않더구나...증략) 어찌 글공부로 이 아버지를 이을 줄 모르고 주량만 아버지를 넘어서는 거냐? 이거야말로 좋지 못한 소식이로구나” (정약용, 박석무 역, 2021, p.108).

“천하에는 두 가지 큰 기준이 있다. 하나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요, 다른 하나는 이름고 해로움에 관한 기준이다” (정약용, 박석무 역, 2021, p.139).

“미관말직에 있을 때도 신중하고 부지런하게 온 정성을 들여 맡은 일을 다해야 한다. 언관(言官)의 지휘에 있을 때는 바른 의론(議論)을 올려서 위로는 임금의 잘못을 공격하고 아래로는 백성들의 고통을 알려야 한다” (정약용, 박석무 역, 2021, p.159).

정약용은 자녀들이 술을 마시는 행동을 보고 나라를 망하게 하고 가정을 파탄시키는 것이 술이라 하며 가까이 하지 말도록 가르쳤고, 옳고 그름과 이로움과 해로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여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장차 나랏일을 하는데 있어서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공정하고 도덕적인 일처리를 하도록 지표를 제공해 주었다.

다섯째, 멘토이다.

멘토 역할을 하는 아버지는 자녀들의 성찰과 통제력을 이끌어 내도록 돕고 자녀들이 그들 인생의 의미를 숙고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자신과 타인의 생각과 감정, 내면을 공감하고 경청하도록 돕고 자녀의 미래를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

도록 지도력을 발휘한다(공진수, 2006).

“사대부의 마음가짐이란 비 갠 뒤의 맑은 바람과 밝은 달처럼 털끝만큼도 가린 곳이 없어야 한다. 무릇 하늘이나 사람에게 부끄러운 짓을 저지르지 않는다면 응당 마음이 넓어지고 몸이 안정되어 호연지기(浩然之氣)가 절로 우러날 것이다” (정약용, 박석무 역, 2021, p.182).

“나는 너희들에게 전원(田園)을 물려줄 수 있을 정도의 벼슬을 하지 못했으나, 오직 정신적인 부적 두 글자가 있어 삶을 넉넉하게 하고 가난을 구제할 수 있기에 너희들에게 물려주겠다. 한 글자는 부지런할 근(勤)자이고 또 한 글자는 검소할 검(檢)자이다. 이 두 글자는 좋은 밭이나 기름진 땅보다 나은 것이니 일생동안 써도 다 쓰지 못할 것이다” (정약용, 박석무 역, 2021, p.184).

“용기는 삼덕(三德)의 하나다. 성인이 사물을 뜻대로 움직이고 천지를 다스리는 것은 모두 용기로 인한 것이다. 무릇 한가지 하고픈 일이 있으면 목표로 삼을 만한 사람을 한 명 정해놓고 그 사람 수준에 오르도록 노력하면 그런 경지에 이를 수 있으니, 이것은 모두 용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다” (정약용, 박석무 역, 2021, pp.197-198).

정약용은 자녀들 스스로가 삶 전반에 있어 바른 몸가짐과 견고한 정신을 갖추도록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근검을 유산으로 내려 할 일을 미루지 않고 놀고먹는 사람이 없도록 부지런해야 하며, 용기와 노력하는 삶은 가능성 있는 미래를 열어준다는 가치를 부여해 주었다. 탐욕적인 삶을 살기보다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멀리 내다보는 이상을 품고 자신이 살아온 경험과 지혜를 자녀들에게 들려주어 그 들만의 길을 찾아가도록 지켜보고 도와주었다.

여섯째, 개인적 성장이다.

개인적인 성장을 이루는 아버지는 자신의 불완전성을 인정하고, 건강한 성인 발달을 위해 지속적 성장에 힘쓴다. 자녀 발달과 함께, 아버지도 함께 성장해야 함을 알고 변화를 준비하고 성장과 성숙을 위해 노력한다.

“내가 저술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은 당장 근심을 잊기 위해서가 아니다. 한 집안의 아버지나 형이 되어 귀양살이하는 지경에 이르러서 저술이라도 남겨 나의 허물을 벗고자 하는 것이니, 어찌 그 뜻이 깊다고 하지 않겠느냐?” (정약용, 박석무 역, 2021, p.40).

“학자란 곤궁한 후에야 비로소 저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겠구나” (정

약용, 박석무 역, 2021, p.129).

“옛날에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와 남거(南居) 한공(韓公)은 특별히 좋은 벗이었는데 두 분 모두 효자였다. 우리 할아버지와 사곡(沙谷) 윤정자공(尹正字)도 좋은 벗이었는데 그분들도 효자였다. 그렇기때문에 살아 계셨을 때 훌륭한 명성을 잃지 않으셨다. 나에게 이르러서는 벗을 고르는 일이 바르지 못하여 화살 끝을 갈고 칼날을 베풀며 서로 시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예전 친하게 사귀었던 사람들이었기에 이 점을 반성한다” (정약용, 박석무 역, 2021, pp.156-157).

아버지 역할이란 고정된 실체가 아닌 성장하고 발달하는 변화의 과정이다. 이는 곧, 아버지에게 성장이란 질적으로 향상되는 자기실현적 변화를 말하는 것이다(김선용, 1997). 정약용은 물리적으로는 유배라는 환경 속에 갇혀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정신적으로 고립되어 있지 않았다. 끊임없이 자신을 단속하고 나아가려는 성장의 욕구가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그가 이룬 500 여권에 이르는 방대한 저서를 후세에 남겼다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렇지만, 유배 시기에 절친하던 친구들은 등을 돌리고 오히려 모함하여 곤경에 빠지게 되는 경험을 하면서 조상 대대로 좋은 사람을 가려내는 눈 밝음이 본인에게는 없음을 반성하고 후회했다. 이러한 정약용의 성찰적 자세는 개인의 성장을 일구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였다.

아버지로서의 정약용을 살펴본 결과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야 하는 조건에서도 올곧게 자녀교육을 수행함과 동시에 가족에 대한 사랑을 전하고 함께 하는 아버지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록 몸은 함께 하지 못하지만 많은 시간 동안 오고 간 글을 통해서 가족과 가문을 삶의 근본으로 삼고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는 정성과 애정을 기울여 가정을 지켜낸 위대한 아버지였다. 자녀들을 위해 마땅히 수행해야 할 역할이 있었기에 어려운 위기도 당연히 여기고 이겨 낸 힘의 원천이 아버지였기에 가능하였다고 할 수 있다.

(2) 학자로서의 활동

정약용이 역경의 시간을 버텨낸 데에는 학자라는 본연의 역할과 책임이 있기에 가능하였다. 험난한 유배 생활에 들어가면서 정약용은 이 시기를 독자적이고 깊이 있는 학문을 하기 위한 시간으로 받아들이고 온전하게 학문연구에 힘씀으로써 고난의 과정을 어렵지 않게 견딜 수 있었다. 학자로서의 정약용의 활동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문탐구를 통한 자기치유이다.

정약용은 1802년부터 주역(周易)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1804년부터 갑자본·을축본·병인본·정묘본을 거쳐 무진본(1808)에 이르기까지 주역에 대한 연구와 저술에 몰두하여 마침내 『주역사전周易四箋』을 완성하였다. 대역 죄인이라 말 붙일

사람 하나 없는 그곳 유배지에서 정약용을 붙들어 준 학문이 바로 ‘주역’이다. 정약용은 주역이 난해하다는 이유로 선택한 학문이었다. 실제로 정약용은 1803년 벗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주역을 바라보기만 해도 기가 꺾여서 탐구하고자 하면서도 감히 손도 대지 못한 것이 여러 번이었다” 하며, 주역에 대한 생각을 전했다고 한다.⁸⁾

정약용은 두 아들 학연, 학유와 함께 주역을 연구하고 저술도 함께 하였다. 유학에서 주역은 마음의 우환과 고통을 치유해 주는 치유의 고전이기에 정약용은 주역에 대한 학문적 관심도 컸지만, 어려운 역경에 놓인 자신의 상황을 주역을 통해 극복하려고 하였다. 주역은 세계 만물과 인간 만사의 변화(법칙)를 다루는 것이다. 64괘와 384효의 무쌍한 변화는 현상세계의 쉽 없는 변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세상은 승(昇)과 강(降), 왕(往)과 래(來), 굴(屈)과 신(伸), 소(消)와 장(長) 운동을 하며, 인간의 운명도 이러한 역의 법칙과 무관하지 않다고 하였다. 인간의 삶도 행(幸)과 불행(不幸), 고(苦)와 락(樂), 길(吉)과 흉(凶)이 함께 한다(장승구, 2016).

이것은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현재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다고 해도 이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언제나 상황은 다시 바뀔 수 있는 것으로, 괴로움이 즐거움으로, 힘들어 편안함으로, 어려움이 쉬움으로, 흉함이 길함으로 역전할 수 있는 희망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희망적인 사고는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정신적인 치유를 가져올 수 있다. 위기의 순간을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 주역은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떤지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한다(김동완, 2022).

주역연구와 함께 정약용은 강진에 유배된 18년 동안 경학연구에 집중적으로 매진하였다. 이는 현실 생활을 도외시한 공허한 관념의 유희만을 즐기는 당시 학문풍토를 비판하고, 하나의 경전이라도 능통하여 실생활에 유익하게 쓰일 수 있는 경세치용(經世致用) 적인 경학을 주장한 성호 이익의 사상을 이어받은 것이었다. 사서(四書) 중심의 주자학적 경학 체계를 탈피하고 선진(宣鎭)의 경전체계로 돌아가고자 하는 정약용만의 경학의 입장을 보여주기 위해 사서보다는 육경을 앞세워 ‘육경사서(六經四書)를 자신의 경학 체계로 삼았다. 이러한 입장은 주자(朱子)의 형이상학적 경전 해석과 한대(漢代)의 훈고학적 경전 해석의 왜곡된 세계관에서 벗어나 경전의 본래 정신을 재발견하고자 하는 것이었고, 나아가 당시 현실을 반영하여 경전의 의미를 재해석하고자 하는 노력의 산물이었다. 정약용은 「중용강의보(中庸講義補)」에서도 주자를 비롯한 송대(宋代) 유학자들의 경전 해석이 불교의 영향으로 공자의 본래적 경전 정신으로서의 ‘수사구론(洙泗求論)’과 어긋나고 있음을 지적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해 송대의 성리학의 경전 해석을 재정립함으로써 공자의 정신으로 돌아가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⁹⁾이를 기반으로 한 자신만의 경학 체계를 구축하였다.

8) 김동완(2022) 『오십의 주역공부』 pp.17-18.

9) 이을호(1975) 『다산학의 이해』 pp.209~233을 참조하여 내용을 정리함

정약용은 역경 속에서 역경이 자기에게 온 이유를 생각하고 자기반성을 통해 치유를 시작했다. 이러한 이유에서 고난과 역경을 마주하고 굳건한 마음으로 받아들여 온전히 학문을 탐구하고 정진하여 고난의 길을 이겨 낼 수 있었다.

둘째, 저술작업이다.

정약용은 유배 생활을 하면서 저술작업에 몰두하였다. 다음은 정약용이 유배지 강진에 도착하여 본격적인 저술작업에 생애를 바치기 시작한 뜻을 비추는 내용으로 「자찬묘지명」에 기록되었다.

“용이 해상(海上 강진을 말함)으로 유배되어 가서 생각하기를 ‘소싯적에는 학문에 뜻을 두었으나 20년 동안 세로(世路)에 빠져 다시 선왕(先王)의 대도(大道)가 있는 줄을 알지 못했는데 지금 여가를 얻게 되었다’ 하고 드디어 혼연히 스스로 경하하였다. 그리하여 육경과 사서를 가져다가 침잠(沈潛)하여 탐구하고, 한위(漢) 이래로 명청(明清)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유자(儒者)의 학설로 경전에 보익이 될만한 것은 널리 수집하고 두루 고증하여 오류를 정하고 취사하여 일가(一家)의 서(書)를 갖추었다”(장승희, 2020).¹⁰⁾

정약용은 자신의 인생을 학문적 업적으로 평가받고자 하였다. 그의 연구와 저술들(정민, 2005)을 보면, 학문과 지식탐구 방법과 체계들이 얼마나 깊고 방대한지 놀랄 정도이다. 다루지 않은 영역이 없을 정도로 다방면의 저술을 완성하였다. 육경사서(六經四書)를 연구하는 경학(經學)으로부터 세상을 경륜(經綸)하는 경세학(經世學, 『경세유표』·『목민심서』·『흠휼심서』에 이르기까지 본말(本末)을 갖춘 데다, 역사·지리·문학·과학·건축·공학·의학·약학·천문학·음악 등 미치지 않은 분야가 없을 정도로 백과전서적 경지에 이르렀다(박석무, 2022).

정약용은 주역탐구를 통해 자기치유를 하고 이와 더불어 저술작업을 통해 자아실현을 하고자 하였다. 정약용이 살던 시대는 오직 사서육경(四書六經)만을 중심으로 유학에 대한 학문이 중시되는 시대였다. 유학을 통해 사람 되는 공부를 했다면, 살아가는 삶에 대한 공부도 마땅히 하지 않을 수 없다. 사람 되는 학문이 수신(修身)이라고 한다면, 세상과 나라를 위한 일을 하는 학문은 치인(治人)이다. 정약용은 수기와 치인을 겸하는 학문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¹¹⁾

이러한 주장은 정약용에게 자기완성을 위해 사서오경을 탐구하고 치인을 위해 『일표이서』를 완성하고자 하는 기대를 품게 하였다. 그렇지만, 폐족이 되어버린 처지에서 살아생전에 경세의 꿈을 이루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유표(遺表, 유언으로 남기는 정책 건의서)나 심서(心書, 마음으로나마 백성을 돌보고자 쓴 책)라는 책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후세에 활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술의 기록을 남겨 두었

10) 『茶山詩文集』 권16, 「自撰墓誌銘」

11) 박석무, 2022년 한국실과교육연구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다(박석무, 2022).

『경세유표』는 훗날에라도 현명한 군주가 나타나 자신의 경세에 대한 비전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지은 책이고, 『목민심서』는 자신이 직접 백성을 다스려 보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는 처지에서 마음으로는 백성들을 잘 다스려보고자 하는 소망이 담겨있다. 『흙흙심서』는 사람의 생명이 달린 옥사 문제를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지침과 판례를 제시해서 백성의 생명과 권리를 지키고자 하는 정약용의 애민정신이 실려있다.

정약용의 저술은 1922년 문집에 넣기 위해 비교적 자세히 기록된 자찬묘지명(自撰墓誌銘)의 집중본(集中)12)을 기준으로 육경사서의 연구서인 경학집(經學) 232권과 일표이서를 포함한 경세학서(經世學書) 138권에 시문집과 기타 저술을 포함한 문집 260권을 합하여 총 630권에 달한다. 이 저술들은 육경사서·일표이서·시문집 세 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 있으며, 육경사서로써 수기(修己)하고 일표이서로써 치인(治人)함으로써 수기치인(修己治人)의 본말을 갖추고 있다(윤해린, 2018).

이처럼 정약용은 자신이 처한 현실에서의 어려움에 낙담하여 포기하지 않고, 직접 실천할 수 없는 일이라도 저술작업을 통해 행동으로 실천하고자 하였다. 위와 같은 실천적 행동들을 통해서 정약용은 행복을 실현코자 하는 자기완성의 목표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다.

<표 8>은 정약용의 학문의 범주와 주요 내용이다.

<표 8> 정약용의 학문 범주와 주요 내용(출처: 윤해린, 2018)

경학 經學	육경 六經	시(時)	『모시강의』 12권 외 『시경강의보』 3권이 있다. 시는 간림(諫林)이라 하여 권선징악의 윤리적 기능을 중요시 하며, 악사들로 하여 조석으로 연주하게 해 왕자가 그 선함을 듣고 감동하고 악함을 듣고 깨우치게 하니 엄함이 춘추보다도 더하다고 하였다.
		서(書)	『매씨상서평(梅氏尙書平)』 9권, 『상서고훈(尙書古訓)』 6권, 『상서지원록(尙書知遠錄)』 7권이 있다. 『매씨상서』는 위서(僞書)로서 『사기』 양한서(兩漢書) 등의 기록에 자세히 나타나 있다. 『선기옥형(璿璣玉衡)』은 상천(上天)의 의기(儀器)가 아니요 『홍범구주(洪範九疇)』도 정전형(井田形)을 본뜬 정치이념일 뿐이라 하였다.
		역(易)	『주역사전(周易四箋)』 24권, 『역학서언(易學緒言)』 12권이 있다. 역에는 4법이 있는데 추이(推移)·물상(物像)·효변(爻變)·호체(互體)로서 십이벽괘는 4시를 상징하고 중부(中孚)·소과(小過) 두 괘는 오세재윤(五歲再閏)을 상징한다. 역에는 역수만 있고 순수는 없기에 선천괘위(先天卦位)의 설은 이치에 합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12) 박석무·정해림 공역(2001) 『다산시정선』 참조

	춘추(春秋)	『춘추고징(春秋考徵)』 12권이 있다. 좌씨(左氏)의 책서(策書)는 춘추의 전이 아니요, 그의 경의(經義)의 해석도 한나라 학자들이 저지른 지나친 잘못이다. 체는 오제(五帝)의 제사이다. 주례에서 체제를 말하지 않은 까닭은 그들이 오제를 제사 지낸다고 한 것이 바로 체제이기 때문이다. 춘추시대에도 상기(喪期)에는 변함이 없기에 두예(杜預)의 설은 준수할 필요가 없다 하였다.
	예(禮)	『상례사전』 50권, 『상례외편』 12권, 『사례가식(四禮家式)』 9권이 있다. 관혼상제 등 사례 중에서도 상례에 치중한 이유는 천주교와 상대적 입장에서 유교의 본령을 밝히려는 뜻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태뢰(太牢)·소뢰(少牢)·특생(特牲)·특돈(特豚)의 예에서 그의 변두나 궤형의 수에는 일정한 법도가 있다. 군왕·대부(大夫)·사(士)의 계급에 따라 차등이 있어, 멋대로 증감해서는 안 된다 하였다.
	악(樂)	『악서고존(樂書孤存)』 12권이 있다. 5성(聲) 6률(律)은 본래 같은 것이 아니고, 6률로써 제약(制樂)하므로 악가의 선천이요 5성으로써 분조(分調)하므로 악가의 후천이 되기 때문이다. 추연(鄒衍)·여불위(呂不韋)·유안(劉安) 등의 취률정성(吹律定猩)의 그릇된 학설을 따지는 한편 삼분손익(三分損益)·취처생자(娶妻生子)의 설이나 괘기월기(卦氣月氣)·정반변반(正半變半) 등의 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였다.
사서 四書	논어(論語)	『논어고금주(論語古今註)』 40권이 있다. 『논어』는 다른 경전에 비해 이의(異義)가 너무 많다. 총 520여장 중 170여장의 이의를 하나로 묶어 『원의총괄(原義總括)』이라 하였다. 그 중 한 예를 들어 효제가 곧 인(仁)이니 인이란 총체적으로 불인 이름이요, 효제는 분목(分目)으로서 주자의 심덕(心德)·애리(愛理)의 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였다
	맹자(孟子)	『맹자요의(孟子要義)』 9권이 있다. 성(性)이란 기호(嗜好)인데 형구(形軀)의 기호와 영지(靈知)의 기호가 있다 하였다. 본연지성(本然之性)은 본래 불가의 책에서 나왔고, 우리 유가의 천명지성(天命之性)과는 서로 빙탄(氷炭)과 같아서 상호 비교할 길이 없다고 하였다.
	중용(中庸)	『중용자잠(中庸自箴)』 3권, 『중용강의보(中庸講義補)』 6권이 있다. 용(庸)이란 끊임없이 항상 오래감을 의미한다. 보이지 않는 것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 들리지 않는 것은 내 귀에 들리지 않는 것이기에 그것은 곧 하늘의 모습이고, 하늘의 소리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대학(大學)	『대학공의(大學公議)』 3권, 『희정당대학강의』 1권, 『소학보전(小學補箋)』 1권, 『심경밀험(心經密驗)』 1권이 있다. 명덕이란 효·제·자(孝弟慈)삼덕으로 사람의 영명(靈名)이 아니고, 격물(格物)의 물은 물유본말(物有本末)의 물이요, 치지(致知)의 지는 지소선후(知所先後)의 지다.
경제학 經世學	일표 이서 一表 二書	경제유표 (經世遺表)	48권이 있으나 미완본이다. 관제·군현제도·전제(田制)·부역·공시(貢市)·창저(倉儲)·군제·과제·해세(海稅)·마정(馬政)·선법(船法)등 국가경영을 위한 제도론으로 현실적인 실용여부는 불구하고 기강의 대경대법을 서술해 구방(舊邦)을 유신코자 하였다.
		목민심서 (牧民心書)	48권. 현재의 법도로 인민을 다스리고자 한 것이니 율기·봉공·애민을 3기(紀)로 삼았고 여기에 이·호·예·병·형·공을 6전(典)으로 삼아 진황(賑荒)을 끝으로 하였다. 부정행위를 적발해 목민관을 깨우치게 함으로써 그 혜택이 백성에게 돌아가도록 하였다.
		흠흠신서 (欽欽新書)	30권. 인명에 관한 옥사를 다스리는 책을 적었기 때문에 경사(經史)에 근본 하였거나 공안(公案)에 증거가 있는 것을 모아 옥리들로 하여 참고하게 함으로써 원한의 소지를 없애고자 하였다.

셋째, 제자 양성이다.

정약용은 유배지 강진에서 독서와 저술을 함과 동시에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많은 정성을 들였다. 유배 시기 초기 8년 동안에는 주로 아전들의 자제들이 글을 배우러 왔었지만 1808년 봄 정약용이 거처를 다산 초당으로 옮겨간 이후 10년 동안의 제자들은 다신계(茶信契)의 18 제자들로 사대부 집안 자제들이었다. 정약용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그들과 학술 논쟁을 벌이고 저술활동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다. 읍내 아전 출신 제자들 중에는 황상과 이청 등이 두각을 나타냈다. 특히 이청은 경학연구나 기타 저서 저작에 도움을 많이 주었고, 황상은 정약용의 만년까지 고향으로 찾아와 지속적으로 교류를 하였다. 18 제자는 정약용이 해배 명령이 나자 ‘다신계’라는 결사를 만들었고 결사의 약속과 참여 제자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 글 「다신계절목(茶信契節)」은 지금도 전해지고 있다. 18 제자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이유회·이강희 형제, 이기록, 정학연·정학유 형제, 정수철, 윤종문, 윤종영, 윤종기·윤종벽·윤종삼·윤종진의 4형제, 윤종심·윤종두 형제, 윤자동·윤아동 형제, 이택규, 이덕운 등이 그들이다. 정학연 형제는 정약용의 아들이고, 윤종기 등 4형제는 초당 주인 윤단의 큰아들 윤규노의 아들이고 윤종심 형제는 윤규노의 아우 윤규하의 아들이었다. 윤종문과 윤종영은 정약용 외가 외사촌들의 아들이었다. 경학연구에 가장 큰 도움을 준 제자는 자신의 아들 형제 이외에 이강희와 윤종심이였다. 이 외에도 정약용의 사위 윤창모도 초당에서 글을 배워 후에 진사로서 이름이 높았고,

윤창모의 아들 방산 윤정기는 정약용의 외손자로 외할아버지 밑에서 학문을 익혀 많은 저술을 남긴 학자였다. 이들은 정약용의 학문 경향을 따라 실학자로서의 저술이 많았으며 오늘날 학계에서는 다산 정약용의 제자 집단을 ‘다산학단(茶山學團)’이라고 명명했다(박석무, 2022). 「다신계절목」 끝에는 ‘읍성제생좌목(邑城諸生座)’을 추가하여 강진 읍내 동문 밖 주막집에서 배운 제자 여섯의 명단을 기록했다. 손병조, 황상, 황경, 황지초, 이청, 김재정 등이며 특히 황상과 이청은 정약용의 큰 제자로 오랜 인연을 이어온 사이였다.

승려들로 구성된 ‘전등계(傳燈契)’에 속한 제자들도 있었다. 「다신계절목」에 “수룡(袖龍)과 철경(掣鯨)은 승려로서 인연을 맺은 사람들이다”라 언급되었고, 혜장과 혜장의 제자인 수룡색성(袖龍曠性)과 기어자홍(騎魚慈弘)과 대둔사(대홍사)의 초의는 직접 글을 배운 제자였다. 하지만 전등계에 대한 기록은 제대로 전해지지 않는다. 정약용은 제자들에게도 서간을 보내어 당부하는 말 등을 훈계하였는데, 생업을 기반으로 생활기반을 확보하고 독서로 인격 향상을 추구하는 일을 병행할 것을 강조하는 당부를 하였다(금장태, 2005). 또한, 과거제도를 맹렬히 비판하였음에도 실재하는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그런 제도를 통해서만 사회활동을 해야 하는 현실을 받아들여 과거 공부에 심혈을 기울이라는 충고도 제자들에게 당부했다.

학자로서의 정약용을 살펴본 결과는 유배라는 위기의 순간을 학문에 열중하라는 데 주어진 희망의 시간으로 받아들여 본격적인 자신만의 연구 기간으로 삼았다. 그동안 하고자 했던 분야의 저술들을 집대성하고 이에 도움을 주던 제자들과 당시 제자들을 가르치던 다산 초당은 다산학의 산실이 되어 저술 활동의 황금기를 함께 했고 이후 학자로서의 이름을 떨친 제자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했다. 18년의 유배살이라는 역경을 학자 정약용은 오히려 기회의 시간으로 반전시켜 500여 권이라는 방대한 저서를 완성해 200여 년이 지난 현시점에 유네스코 세계위인의 반열에 오르는 결과를 가져왔다.

다산학의 학맥은 <표-9>와 같다.

<표-9> 다산학의 학맥(출처: 남양주 다산문화관)

다산학	가학의 계승	정학연, 정학유, 윤창모(사위), 윤정기(외손)
	강진읍내 제자	황상, 이청, 황취, 황지초, 손병조, 김재정 등
	다산초당 제자	윤중문, 윤중영, 윤자동, 윤아동, 윤중기 윤중벽, 윤중삼, 윤중진, 윤중심, 윤중두 이유화, 이강희, 이기록, 정수철, 이택규 이덕운, 이시헌
	방외의 학연들	혜장, 수룡, 체경, 기어, 초의 등

2) 정약용의 가족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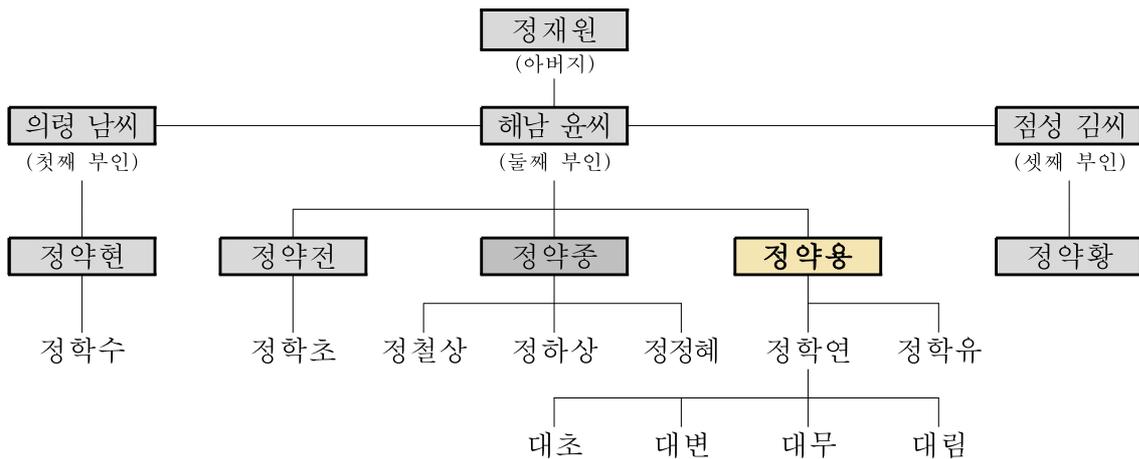
정약용의 가족체계에서는 가족 구성과 가족관계를 살펴보는 것을 통해서 가족체계가 기능하는 방식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1) 가족 구성

정약용은 1762년(영조38년) 경기도 광주군 초부방 마현리(지금의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마재마을)에서 5남 3녀 중 넷째아들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진주목사를 지낸 정재원(丁載遠, 1730~1792)으로 압해 정씨이고, 어머니는 해남 윤씨(海南尹氏, 1728~1770)이다.

<그림 5>는 정약용의 가계도로 연구자가 참조 자료를 근거로 재구성하였다.

<그림 5> 정약용 가계도(출처: 다산기념관 참조 연구자가 재구성)



정약용의 집안은 기호 남인에 속했으며, 선조 가운데 연달아 8대에 걸쳐 홍문관(옥당) 벼슬을 역임하여 ‘8대 옥당가문’ 이라고도 칭한다. 어머니 해남 윤씨는 고산(孤山) 윤선도(尹善道) 후손으로 학자이자 화가로 유명한 공재(恭齋) 윤두서(尹斗緒)의 손녀였다. 학문과 벼슬로 이름이 높았던 호남의 대표적인 남인계 집안이었다. 정약용의 형제들로는 가장 큰 장형인 정약현(丁若)은 이복(異腹)으로 의령 남씨 소생이고, 정약현의 부인은 천주교 전파에 앞장선 ‘이벽’의 누이였다. 또, 정약현의 딸은 천주교 신자인 황사영과 혼인하였다. 어머니 해남 윤씨 소생으로는 둘째 형, 정약전(丁若銓)과 셋째 형, 정약중(丁若鍾)이 있다. 그리고 누이가 천주교 사건으로 순교한 이승훈(李承薰)과 혼인했다. 서모 김씨 소생으로 정약황(丁若橫)이 있다. 13)

13) 다산연구소;www.edasan.org/sub02/sub01.html

(2) 가족관계

① 친가

정약용 친가의 가계를 먼저 살펴보면, 5대조인 정시윤은 인조 말엽에 태어나 숙종 말엽까지의 인물로 진사과 급제를 시작으로 바로 벼슬길에 올라 금정 촉방·감찰·현감 등의 벼슬을 지내다가 문과에 급제하여 옥당을 거쳐 순천부사, 길주 목사, 병조참의, 영월 부사를 역임했다. 정시윤은 정도태·정도복·정도제 3형제를 두었는데 정도복은 또, 문과에 급제하여 옥당에 들어가고 더 높은 벼슬에 올랐다. 정약용은 큰 아들 정도태의 후손이지만 정도복 때문에 9대 옥당 집안이라고 집안 자랑을 하기도 했으며 고조부 정도태는 아들 형제를 두었다. 큰아들 정항신(1691~1733년)이 증조부이고, 정항신은 4형제를 두었는데 큰아들 정지해(1712~1756년)가 정약용의 할아버지다. 증조부 정항신은 젊어서 진사과에 급제했지만, 남인들이 세를 퍼지 못하던 때여서 벼슬길에 오르지 못했고 할아버지 정지해도 벼슬길에 오르지 못하고 마흔다섯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정지해도 3형제를 두었는데, 큰아들 정재원이 정약용의 아버지였다. 5대조 정시윤과 증조부 정도복 이후로 벼슬길에 오르지 못하다가 영조 말년 정재원에 이르러서야 벼슬길에 오른다. 아버지 정재원은 정약용이 태어나던 해인 1762년 서른셋의 나이에 생원과에 합격하였고, 같은 시파로 높은 벼슬에 있던 체제공의 추천으로 미관말직 벼슬을 시작했다. 영조가 죽고 정조가 왕위에 오르면서 시파에게도 기회가 오고 이에 정재원도 여러 고을의 원님을 역임했다. 경기도 연천 현감, 전남 화순 현감, 경상도 예천 군수, 울산 도호부사, 진주 목사 등을 지내고 예순셋에 세상을 떠났다.¹⁴⁾

② 외가

정약용 외가 가계를 살펴보면, 같은 남인 시파 집안이며 어머니 윤씨 부인은 해남 윤씨 사람으로 고산 윤선도의 후손이자 공제 윤두서의 손녀였다. 윤선도는 예학(禮學)의 대가에 시조 시인으로 명성을 날렸고 윤두서는 고산의 증손자로 뛰어난 학자이면서 삼재(三齋) 화가로서 조선을 대표하는 화가 중의 한 사람이었다. 아버지와 어머니 두 집안의 핏줄로 태어난 정약용은 양가의 출중함을 이어받아서인지 어려서부터 영특하고 글에도 뛰어났음을 「자찬묘지명」에서도 밝혔다.

아홉 살이던 1770년 11월 어머니 윤씨가 세상을 뜨면서 정약용은 크게 상심하였으며, 자신의 정신이나 성품은 대부분 외가에서 이어받았다고 말할 정도로 외가와 어머니에 대한 사모의 마음이 컸다. 어머니를 여의고 본격적으로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아 경서(經書)와 사서(史書)를 공부하던 때 정약용을 돌봐주던 사람은 정약용의 이복형 정약현의 부인인 큰 형수 이씨였다. 형수 이씨는 경주 이씨로, 이조 참판을 지내고 문학으로 명성이 높았던 이정형의 후손이다. 할아버지는 무과 출신으로

14) 박석무(2022) 『다산 정약용 평전』을 참조 연구자가 내용을 정리함.

병마절도사를 지낸 이달(李達)이라는 기골이 장대한 인물이었고, 아버지는 큰 선비였던 이보만 이었다. 형수의 아우 이격(李格)은 무과 출신으로 병마절도사를 지냈고 이석과 정약용에게 천주교를 전파한 이벽 또한 아우였다. 황사영은 형수 이씨의 사위였다. 어머니 없는 개구쟁이 어린 시동생을 사랑으로 보살피 주었던 형수 이씨의 고마움을 정약용은 「구수공인이씨묘지명」을 통해 아깝게 일찍 세상을 떠난 형수의 일대기를 글로 칭송하였다.

“시어머니 섬기기 쉽지 않나니/ 계모인 시어머니는 더욱 어렵네
 시아버지 섬기기 쉽지 않나니/ 아내 없는 시아버지는 더욱 어렵네
 시동생 보살피기 쉽지 않나니/ 어머니 없는 시동생은 더욱 어렵네
 이런 모든 일 유감없이 잘했으니/ 이게 바로 형수의 너그러움일세”

1771년 정약용의 나이 열 살 되던 해, 아버지 정재원은 처녀 황씨(黃氏)를 맞아다가 측실로 삼았지만 오래지 않아 요절하자 1773년 서울 사는 20살 처녀 김씨를 측실로 삼았다. 이 서모가 형수 이씨를 이어 정약용의 어린 시절을 돌봐 준 마음 따뜻한 분이였다. 정약용이 귀양살이 후 해배 되어 돌아왔을 때 서모가 60세 나이로 세상을 떠난 지 5년째 되던 해였다. 정약용은 아버지 정재원에게 시집와 63세로 돌아가실 때까지 꼬박 20년을 수발해 주었기에 아버지도 편안한 노후를 보냈고 자신도 결혼 전까지 별 탈 없이 어린 시절을 마칠 수 있었음이 모두 서모의 공덕이라 칭찬을 아끼지 않고 「서모김씨묘지명」을 지어 찬양해 주었다.

“처음 우리 집에 올 때 내 나이 12세, 머리에 서캐와 이가 많고 또 부스럼이 잘 났다. 서모는 손수 빗질해 주고 또 그 고름과 피를 씻어 주었다. 그리고 바지·적삼·버선을 빨래하고 꿰매며 바느질하는 수고도 또한 서모가 담당하다가 장가를 든 뒤에야 그만두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자매 중에서 특히 나와 정이 두터웠다.”¹⁵⁾

③ 처가

정약용은 1776년 2월 한 살 위인 풍산홍씨 홍혜완과 혼례를 올렸다. 정약용의 처가인 풍산홍씨는 대대로 벼슬한 집안으로 장인 되는 홍화보(1726~1791년)는 넉넉한 가세(加勢)에 인물까지 잘나서 명성이 높았다. 홍화보는 무과에 급제하여 높은 벼슬인 병마절도사를 여러 곳에서 지냈지만, 글을 잘하던 솜씨로 문과 출신이 주를 이루던 승지의 벼슬도 역임한 사람이었다. 홍화보가 세상을 떠난 뒤 「함경북도병마절도사홍공묘갈명」에서 밝히길 그는 무인으로 뛰어난 장수여서 지략과 용맹이 있었고, 병법에도 밝았다. 기개가 높아 세도가인 홍국영에게도 굽히지 않아 귀양살이까지 떠났다고 하였다. 외동딸을 사위로 맞은 정약용을 무척 아끼고 사랑됨을 인정해주어 둘의 사이가 좋았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정약용이 아내와 함께 경상남도

15) 박석무(2022) 『다산 정약용 평전』을 참조 연구자가 내용을 정리함.

병마절도사였던 장인을 뵈러 진주에 갔을 때, 장인 홍화보는 측석루에서 연회를 베풀어 주고 영조가 하사했던 각궁(角弓)을 사위에게 주면서 사랑과 기대를 보였다(금장태, 2005). 정약용의 처가는 경제적 능력이 있었기에 유배를 가 있는 동안에도 장인이 예전에 무남독녀인 딸에게 농장을 준 덕택에 큰 어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었다. 정약용의 시 중에 “장인어른 일찍이 산살 돈을 주었네(婦翁曾賜買山錢)”라는 구절은 1787년경 장인 홍화보가 전답 2경(頃)인 약 80두락¹⁶⁾을 구매하게 해 준 것을 말한다. 처가의 홍씨들 중에는 장인의 사촌인 판서를 지낸 홍수보(洪秀輔)가 있고, 그의 아들로 홍인호와 홍의호가 있다. 홍의호는 정약용의 결혼 초 시기에 처남 매부로 매우 가깝게 지냈으며 정약용의 서울 생활에 도움을 주었고, 홍석주·홍길주·홍현주 형제도 정약용의 해배 이후 시를 짓고 학문을 함께 논하며 서로 지지한 사이였다(박미해, 2019).

④ 매부와 사돈

정약용의 인척으로 정약용에게 영향을 준 인물로는 자형인 이승훈(李承薰 1756~1801)¹⁷⁾과 큰형수 이씨의 남동생인 이벽(李穡 1754~1786)¹⁸⁾이 있다. 이승훈은 정약용보다 6세 위이고, 이벽은 정약용보다 8세 위인 선배들로 서로 절친한 사이였다. 북경에서 천주교에 입교한 조선 최초의 세례자이던 이승훈은 이벽에게 영세를 주고 함께 천주교 서적을 연구하였다. 누이의 남편인 이승훈은 정약용에게 실학과 천주교를 소개해 준 인척으로 혼인 후 서울을 드나들며 명례방에서 정약용에게 이승훈은 성호학파의 중심인물이었던 이가환(李家煥 1741~1801)을 소개해 주었다. 이승훈의 외삼촌이자 이익(李穡 1681~1763)의 종손인 이가환을 통해 성호 이익의 사상을 접하게 된 정약용은 이익을 스승으로 여기고 큰 학문을 하고자 결심한다. 1787년 정약용은 이승훈과 명례방에서 과거 준비를 한다는 명목하에 천주교 교리 비밀강습회를 열기도 하였다. 조선 최초 천주교 교리 연구자였던 이벽은 1784년 4월 18일 누이의 제사를 지내고 서울로 돌아오는 배 안에서 정약용 형제에게 이승훈이 가져왔던 천주교 서적을 보여주었다(금장태, 2011).

이벽에게서 천주교 관계 서적을 받아서 읽고 천주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일, 후에 이벽과 교류하면서 더 많은 책을 읽고 천주교에 마음을 기울인 일 등 이런 일들이야말로 정약용의 인생에서 맞이한 가장 큰 사건 가운데 하나였고, 이벽이 32세로 요절한 1785년 정약용도 차례로 천주교와 관련되어 고초를 겪게 되었다.

정약용의 가족체계를 살펴본 결과, 8대 옥당 집안의 남다른 혈통을 자랑하는 본가와 외가 쪽의 시화에 뛰어난 자질과 아울러 경제적으로 도움 되는 운택한 처가의

16) 논밭의 면적을 나타내는 마지기는 한자로는 두락(斗落)이며, 1마지기는 200평이다. 대체로 1마지기당 소출을 2석으로 보면, 80두락은 160가마니로 적은 소출은 아니다.

17) 자는 자술(子述), 호는 만천(蔓). 본관은 평창(平昌). 세례명은 베드로이다. 아버지는 이동욱, 어머니는 이가환의 누이, 정재원 딸과 혼인하여 정약용의 자형이 된다.

18) 자는 덕조(德祚), 호는 광암(曠菴). 본관은 경주. 세례명은 요한.

상황 등 이 모든 것이 정약용에게는 득이 되는 가족 환경 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예로부터 학문하는 집안의 가풍을 이어받아 학자로서의 자세를 겸비하여 학문을 이어 나갈 수 있었고,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부임지를 따라 다니며, 벼슬에 있는 관리로서의 행동과 자세를 가까이서 보고 배워 관직에 나아갈 때 지침으로 삼을 수 있었다. 비록 일찍이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여의었지만, 형수와 나이 어린 서모의 아낌없는 관심과 애정 어린 사랑으로 보살핌을 받은 덕택에 순조롭게 어린 시절을 보낼 수 있었다. 학문의 깊이가 남다른 매형과 사돈의 교류로 새로운 학문을 접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소개받고 교류한 경험도 그의 학문발전에 도움을 주었다.

이러한 요인은 정약용의 역경 상황에도 긍정적인 작용을 하여 처가의 경제적 지원으로 경제적 돌봄을 하지 못하는 가족들의 가계 부담도 덜어 주었고 선대에서부터 내려온 옥당 가문의 위풍당당함과 깨끗한 선비정신 및 외가에 대한 정약용의 자랑스러운 가문에 대한 정신적 기개 등은 정약용이 학문에 정진하여 학자로서 성장하는데 기반을 마련해 주는 정신적 토대가 되었다. 반면에 가족 중에 천주교에 연루된 정약전, 정약중, 정약용 형제와 인척인 매부 이승훈과 사돈 이벽, 그리고 조카사위 황사영으로 인해 가문의 지위는 폐족이라는 처참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고, 이러한 위기로부터 가족체계가 위태로워졌다. 정약용은 가문을 지켜내기 위해 가족구성원들의 분산을 막고 단결을 도모하고 서로를 돌보고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친밀한 관계가 이어지도록 노력하였다. 한순간 왕의 총애를 받는 촉망 받는 신하로 추대되었지만, 순간에 닥친 위기는 결국 한 개인을 위기로 몰아넣었고, 이러한 위기는 가족체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가져왔다. 종합하자면, 정약용의 가족체계는 사대부 명문가로서 정신적·환경적으로 우위에 있는 배경으로 작용하였지만, 개인이 당면한 위기상황에서 가족체계는 함께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정약용은 단단한 가족체계가 발휘하는 힘의 원천을 알기에 가족체계를 지키고 화합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3) 정약용의 사회체계

사회체계는 거시적 수준의 체계로 지역사회와 전체사회 수준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문화와 사회에서의 요소들을 말하는 것으로 정약용의 사회체계는 지역사회에서의 사회적 친분관계와 시대적 배경으로 선정하여 살펴보고려고 한다.

(1) 사회적 친분관계

① 향촌 윤씨

정약용이 강진으로 유배 가서 가장 먼저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향촌 윤씨들이었다. 향촌 윤씨들은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정약용에게 도움을 주었다. 정약용이 강

진으로 유배 오고 1년이 지난 시점에야 비로소 감시가 소홀해지자 아버지의 친구였던 윤광택이 찾아왔다. 강진의 향촌(項村)에 사는 윤광택은 소문난 부호로 의협심이 강하고 기개가 큰 사람이었으며,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인물이었다. 정약용은 17세 때 화순 현감이던 아버지를 따라 외가에 놀러 가는 길에 윤광택의 집에 들르기도 하였다(박미해, 2019). 윤광택의 아들 윤서유는 정약용보다 2살 아랫사람으로 어린 시절부터 정약용과는 친구였고, 어려서부터 정약용의 외종형택인 진산에 찾아가 윤지충 밑에서 과거 공부를 한 적도 있고, 또 서울에 유학하여 이가환도 찾았고 정약용의 형제들과도 가까운 사이였다. 이러한 이유로 1801년 신유옥사가 일어났던 해 천주교도로 오해받아 강진 감옥에 갇히고 말았다. 조사를 받고 혐의가 없어 풀려났으나 공포와 두려움으로 강진으로 유배 온 정약용을 찾을 엄두를 못 내다가 1802년 겨울 아버지 윤광택의 명에 따라 사촌 동생을 시켜 술과 고기를 정약용에게 전했다. 죄인들을 감시하는 이속(吏屬)들이 이를 알고 왕래함을 막지 않았다.¹⁹⁾ 이후(1812년), 정약용의 외동딸을 윤서유의 아들 윤창모(1795~1856, 榮喜라고도 했음)에게 시집보내 사돈 관계가 되고, 사위와 외손자는 정약용의 제자가 되어 정약용의 유배살이는 이들로 인해 한결 수월하게 되었다. 윤씨 집안은 정약용의 권유로 정약용의 고향 마을에서 가까운 귀어촌(歸魚村)으로 이사를 갔고, 그곳에서 서울 출입을 하던 윤서유는 1816년 문과에 급제하여 사간원 정언에 오른다. 사위 윤창모도 다산 초당 제자의 한사람으로 학문에 정진하여 소과에 급제하고 진사에 오르기도 했다. 윤창모의 아들이자 정약용의 외손자 윤정기(1814~1879)는 호가 방산(防山)으로 정약용 슬하에서 공부하여 다산의 많은 실학 관계 저서를 남긴 큰 학자가 되었다(박석무, 2022).

② 곽동 윤씨

강진 곽동마을에 살던 해남 윤씨들은 정약용에게 경제적·학문적·정서적 도움을 준 사람들이다. 유배자 신분이었던 정약용은 주거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서 마음도 안정되어 학문적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 정약용과 곽동 윤씨는 서로 호혜적인 관계로 정약용이 곽동 윤씨 자제들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대신 곽동 윤씨들은 정약용의 의식주 문제를 도와주었다. 또한, 곽동 윤씨들은 정약용이 학문적 결실을 보게 해준 실질적인 조력자들로 곽동 윤씨들이 자제들을 불러모아 주고 많은 장서들을 보게 해 주었기에 정약용은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 방대한 저서를 완성할 수 있었다. 해배 이후에도 제자들은 계모임을 조직하여 스승에게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고자 하였다(박미해, 2019).

1807년 초여름, 46세 정약용은 백련사를 출입하다가 1808년 봄 다산 초당으로 이사를 온다.²⁰⁾ 곽동은 해남 윤씨들의 집성촌인데, 윤씨 마을 대표적인 선비인 굴림처사(橋林處士) 윤단(尹傳)이 초당에 많은 장서를 비치해 두고 독서 하며 손자들을 가

19) 정약용. 「용산윤공묘지명」; 박석무(2022), p.395 재인용.

20) 정민(2011), p.301

르치던 곳이 바로 다산 초당이였다. 윤단과 그의 아들 윤규노(1769~1837)와 윤규하 형제가 중심이 되어 정약용을 다산 초당으로 초빙하여 제자들을 가르치고자 하였다. 곽동 윤씨는 정약용 외가인 해남읍 연동(蓮洞) 윤씨와는 윗대에서 형제로 갈려난 집안으로 고산 윤선도의 증조부가 곽정(橋亭) 윤구(尹衢)이고 윤구의 아우가 윤단의 선조되는 행당(杏堂) 윤복(尹復)이었으니 멀지 않은 집안 사이였다. 정약용이 연동 윤씨들의 외손이었으니 곽동 윤씨들도 집안의 외후손으로 생각하여 가까운 정을 지닐 수 있었다(박석무, 2022).

정약용과 곽동 윤씨의 호혜적 관계는 정치적 판세의 변화와 서로의 필요에 의해 늦게 이루어졌다. 곽동 윤씨가 정약용이 유배되어 온 지 7~8년이 지난 시점에 되어 서야 정약용을 살핀 것은 천주교를 탄압했던 정순왕후가 1805년 사망함으로써 정치적 분위기가 완화되었을 때이다. 당시 정약용은 강진 읍내 제자 이칭의 집에서 1806년 가을부터 1808년 봄까지 2년 정도를 얹혀 살았으나 제자의 부모가 시중을 들어주는 것을 불편해하였다.²¹⁾ 마침 곽동 윤씨 집안의 교육적 필요와 정약용의 재정적 필요가 합치되면서 상호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인다(박미해, 2019).

정약용은 곽동 윤씨 도움으로 차츰 주거도 안정 되어갔고 주체적이고 자급자족적인 생활을 계획하며 호를 다산(茶山)이라 하고 초당을 가꾸었다. 강진 읍내 제자들과 윤규노의 도움으로 채마밭을 일구고, 연못을 가꾸며 초당의 임시 부엌인 행주(行廚)에서 음식도 만들 수 있게 하였다. 백련사의 주지 혜장스님이 보낸 승려 제자는 정약용에게 글을 배우고, 생선요리를 해 바치기도 했다.²²⁾

정약용이 다산으로 옮겨 오면서 초당은 그대로 두고 동암(東庵)과 서암(西庵)을 새로 지어 정약용은 동암에 거처하고 제자들은 서암에 기숙하면서 글을 배웠고, 동암과 서암에 1천여 권의 책을 쌓아놓고 연구를 하였다. 이들의 도움으로 다산 초당에서 정약용은 곽동 윤씨가 장서들을 참고하여 제자들과 방대한 저술작업을 이뤄낼 수 있었다.

③ 연동 윤씨

정약용의 외가인 해남의 연동 윤씨들은 고산 윤선도(1587~1671)를 중심으로 아랫대에서 형제가 갈린 집안으로, 윤선도의 증손자가 윤두서이고, 그의 셋째아들이 윤덕렬이며, 윤덕렬의 딸이 정약용의 어머니이다. 정약용의 직계 외가는 주로 윤두서를 중심으로 한 연동 윤씨를 말한다. 정약용이 유배 기간동안 연동의 외사촌들이나 외삼촌으로부터 직접 물질적인 도움을 받은 자료는 없으나, 강진 유배 시절, 정약용이 산을 만나질 이상 넘어 연동 윤씨들에게 책을 빌려 지게로 날랐다고 한다. 당시의 연동 외가가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었음을 정약용이 외가 자제들이자 제자에게 보낸 편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1814년 정약용은 제자 윤중문에게

“스러져가는 연동의 외가를 성심껏 잘 유지해야 하며, 뽕나무와 모란을 심어서

21) 정민(2011), p.298.

22) 금장태(2011), p.190

각각 비용을 충당한 후에 시를 짓고 벼슬을 하라”고 조언한다.

“금방이라도 전복될 듯한 우리 외가를 부호한다면, 어찌 어질고 효성스럽고 본분을 다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연곡을 보존시키지 못한다면, 자네들은 다 숲을 잃은 사슴이요, 마른 수레바퀴 자국의 붕어가 될 것이다”라고 적고 있다.²³⁾

연동 종가의 어려운 사정으로 정약용을 물질적으로 도와주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정서적으로 가깝게 지낸 이로는 외육촌인 윤규범이 있다. 윤규범은 정약용보다 10세 연상이며 연동 윤씨의 종손으로 윤덕희의 손자이자 윤위의 아들이었다. 윤규범은 정약용과 함께 죽란시사(竹欄詩社)의 한 구성원이었고, 시우들은 정약용의 명례방 집에 모여 달빛과 촛불에 비친 국화꽃 그림자의 아름다운 모습을 즐겼다. 정조 사후 사직하고 12년을 은거하다가, 정약용이 해배 된 다음 해 찾아와 서로 회포를 풀기도 하였다.²⁴⁾

윤지눌은 정약용의 외육촌으로 유배 가기 전에 가장 자주 어울린 죽란시사의 시우였다. 서울에서 윤규범과 정약용이 국화 그림자를 보고 즐길 때 윤지눌도 함께하였다. 정조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윤지눌은 정약용과 가깝다는 이유로 벼슬이 풀리지 않게 되어 세상을 떠돌다 53세 나이로 생을 마쳤다. 정약용은 신유옥사때 죄인으로 몰린 자신을 감싸주었던 신의를 언급하며, 윤지눌이 자신에게 고기를 끓여 먹이고, 울면서 이불 속에서 서로 껴안은 채 잠을 잤다는 일화를 말하며, 말세에 몇 안 되는 의인이라고 추모했다.²⁵⁾

정약용은 연동 윤씨들 사이에서는 물질적 지원보다는 정서적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연동 윤씨는 정약용과 더 가까운 외가 친척들로 정약용이 평소 어머니 윤씨의 외가만 생각하면 자부심과 큰 긍지를 느끼며, 어머니 핏줄에서 자신이 형성되었음을 자랑스러워했던 마음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2) 시대적 배경

① 정치·사회적 배경

정약용이 살았던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반은 조선 후기에서 말기로 넘어가는 역사적인 전환기라고 할 수 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두 차례에 걸친 외적의 침략으로 사회는 극심한 피폐와 지배계급 간 분열로 인한 국정 문란 및 양반지배체제의 붕괴로 전면적인 사회의 체제 개편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정치적으로는 치열하게 전개된 당파의 분열과 당쟁의 폐단이 있었다. 당쟁은 조선의 정치체제에서 왕과 관료들의 권력 남용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치적 현상이었다. 양반세력의 균형과 왕권의 안정 위에서만 정치질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지만, 당

23) 강진군 다산기념관(2008).

24) 금장태(2011), p.252.

25) 정규영 편, 송재소 역주(2014), p.245.

쟁의 성격이 변질되어 결과적으로 왕권의 약화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집권 세력만이 아니라 전국의 양반은 물론이고 서민들까지 당파로 분열되어 폐단이 극도에 이르러 국가의 통치력은 위기에 빠져 자멸의 길을 재촉하고 있었다(금장태, 2005). 영조는 이러한 붕당(朋黨)의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 탕평책(蕩平策)을 시도하는 등 해결책을 찾으려 하였으나 표면적인 대립을 완화하는데, 그치고 말았다.

정조에 이르러 문예 중흥의 새로운 기풍이 시도되었지만, 당시 사회에 뿌리내린 관료의 부패와 고질적인 당쟁으로 인한 심각한 문제는 해결의 기미를 찾을 수 없었다. 당시 정약용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한 문제는 사회적 모순의 현실이었다. 정약용이 33세에 경기도 암행어사로 연천지방을 돌아볼 때 당시 농민들 앞에 놓인 궁핍함과 지방 관리들의 부패를 목격하고, 이를 통렬하게 고발하여 비판하였다. 이를 통해 정약용은 국가의 책임과 관리 의무에 소홀함을 각성하고 고질적인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학적 사고를 인식하게 되었다.

민생의 참담하고 고달픈 현실을 직시하면서 정약용은 사회제도와 기강의 대대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사회개혁론을 위한 제도적 구성을 치밀하게 설계함으로써 조선 후기의 실학의 경세론을 집대성하고, 심각한 모순에 놓인 사회문제를 시문(時文)으로 표현하여 실학적인 문학세계를 펼치게 되었다.

순조가 집권하는 19세기에 접어들면서 붕당정치마저도 무너지고 노론이 장악했던 왕실 외척들에 의한 세도정치가 시작되자, 사회적인 침체는 더욱 가속화되어 지방의 수령들은 개인의 사리사욕을 챙기기에 급급하게 되어 각종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국가의 기강은 급속히 무너져 갔다(신창호, 2010). 과거제도마저 혼란에 빠지면서 매관매직(賣官賣職)이 성행하였고, 그러한 방법으로 등용된 지방 관리는 세도가와 손을 잡고 부정부패를 일삼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러한 잘못을 바로잡아야 할 암행어사도 세도가의 부패한 권력에 대응할 수 없었다. 결국, 이러한 문제는 백성들의 지배층에 대한 불신과 사회 전반에 대한 반감을 불러일으켰다. 당파싸움에서 이겨 권력을 손에 쥔 세력 외에는 전반적으로 인간소외 현상이 극에 달아 백성들은 전통사회의 모순에서 벗어난 새로운 질서를 지향하는 분위기가 익어 갔다. 경제적으로 삼정(三政)이 문란해져 백성들의 삶은 도탄에 빠졌고 그간 쌓여왔던 사회적 모순이 극심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기였다. 전란(戰亂)으로 인해 농경지가 황폐해져 임진왜란 전 152만 결이었던 것이 불과 54만 결 밖에 되지않을 정도로 농경지의 유실이 심하였다. 이와 더불어 귀족들이 농경지를 소유하고도 토지대장에서 고의로 누락시켜 재정이 어려워졌고, 탐관오리들은 황폐한 토지에도 세금을 부과하는 등 국정은 극도로 문란해졌다(최한규, 2004). 이러한 삼정(三政)의 문란은 결국 1862년 진주민란을 비롯한 전국 농민봉기를 일으키는 배경이 되었다(금장태, 1999).

② 사상적 배경

영·정조 시대에 접어들면서 조선 후기 사회는 새로운 문화적 변성으로 문예 부흥기를 맞이했다. 정조는 자신이 학문을 즐기고 원하는 학자 임금이었으며, 규장각(奎章閣)을 설치하는 등 학문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후원하였다. 이에 정조 시대는 조선 후기에 들어 문화적으로 가장 융성한 발전을 이룩하였다. 이러한 권학(勸學)적 분위기에 힘입어, 조선사회의 통념으로 여겨져 왔던 성리학에 대한 새로운 사상적 조류가 형성되었다.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의 조선은 왕조의 지배 체제가 흔들릴 정도로 혼란 상태로, 이러한 상황은 성리학에서 실학으로의 사상적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즉, 성리학의 권위로 획일화되었던 사상적 풍토가 전반적으로 흔들리는 전환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성리학은 철학적 문제를 관심의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지만, 중세기 성리학은 철학 영역에 국한하지 않고, 정치와 경제, 사회 전반을 지배하는 하나의 이데올로기였다. 성리학적 관점에서는 인간의 모든 도덕질서나 제도 등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지 않았기에 모든 것을 인간의 힘으로 바꾸려 해서는 안 된다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성리학의 세계관을 비판하며, 안으로는 성리학적 화이론(華夷論)²⁶⁾에 근거하여 명나라를 높이고 청나라를 배척하는 숭명배청론(崇明背淸論)과 청나라를 정벌하여 병자호란의 치욕을 씻어야 한다는 북벌론(北伐論)을 거부하고, 청나라의 선진적인 문물과 학문을 배워야 한다는 북학론(北學論)이 등장하였고, 밖으로는 성리학 이론에 따른 엄격한 이단배척론(異端排斥論)에도 불구하고 서양의 과학과 천주교 교리를 포함한 서학사상이 유입되고 전파되면서 다양한 사상이 복합적으로 충돌하거나 침투하는 사상적 다변화가 확산되고 있었다. 이러한 새로운 사상의 조류가 실학(實學)이었다.

당시의 실학사상은 노론계열의 북학과와 남인계열 성호학과라는 두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하지만, 공통된 이들의 입장은 당시 사회이데올로기인 배청의리론과 화이론을 재검토하는 것이었다. 이들은 중국을 세계의 중심으로 삼아 하나로 통합하는 세계관인 대일통론에서 벗어나 국가마다 자기중심의 시각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자주 의식을 각성시키고 있었다. 이에 실학자들은 청나라의 우수한 문물을 주체적으로 배우고 받아들여 조선사회의 낙후한 과학기술과 생산유통의 경제적 실효성을 얻고자 하였다.

18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실학자들이 성리학의 형이상학을 벗어나 독자적 세계관을 제시하면서 사상의 조류는 성리학 이념으로 획일화된 사유체계를 무너뜨리고 있었다. 실학자들이 성리학의 형이상학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도입하고 활용하던 사상은 양명학과 서학, 그리고 고증학 세 가지였다. 이와 같이 형이상학적 기반을 달리하는 다양한 사상이 한 시대의 사상에서 풀려나오게 되자 정통주의 성리학의 이념은 활력을 잃고 형식주의에 빠져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새로 등장하는 사상들이 보여주는 다원화된 세계관은 갈수록 복합적으로 얽히는 상황을 보여주었다.

26) 세계를 중화(中華)와 이적(夷狄) 두 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중화를 높이고 오랑캐를 물리친다는 당위성을 주장하는 ‘화이론’은 중국 고대로부터 존재해 온 동아시아의 기본적 세계관 중 하나였다. 우경섭(2010).

우선 양명학 내지, 심학(心學)은 16세기부터 조선 사회에 전래 되어 왔지만, 성리학의 정통론에 의해 선학(禪學)과 동일시되어 배척을 받으면서 표면화되지 못했다. 17세기 말 하곡 정제두鄭齊斗(1649~1736)는 양명학의 이해를 본격적으로 심화시켰고 하곡의 양명학을 계승하는 강화학파(江華學派)에서는 이긍익(李肯翊)과 신작(申綽) 등의 실학자들이 출현하였다. 또한, 성호학파의 권철신(權哲身)도 양명학에 대한 이해가 있었고, 정약용도 양명학에 대한 호의적인 이해를 나타냈다. 이러한 18세기 후반 실학자들 사이에 양명학에 대한 이해가 심화되어 가는 것은 주자학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유를 다양화시키는 통로의 하나로서 양명학이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서학에 내포된 서양과학과 기술 및 서양종교의 교리는 18세기 실학자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은 집권층에게는 전통적인 사회체제를 흔드는 것으로 여겨져 탄압의 대상이 되었지만, 18세기 전반 활동하던 성호 이익(李瀾)은 서양과학의 합리성과 정확성을 확고히 인정하여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다. 반면에 천주교의 교리에 대해서는 불합리하고 환상적인 것이라 비판적 자세를 취했다. 그러나 성호의 문하인 성호학파에서는 분열이 일어났는데, 천주교리를 비판한 신후담(愼後聃)과 안정복(安鼎福) 등의 공서파(攻西派)와 서양과학에 관심을 가졌다가 차츰 천주교를 종교로 받아들인 이가환(李家煥)과 권철신(權哲身) 등의 신서파(信西派)로 구분되었다. 이벽(李蘖)과 이승훈(李承薰)을 비롯한 정약용도 성호학파의 신서파에 속하였다. 북학파의 홍대용(洪大容)도 서양과학의 세계관을 받아들이면서 음양오행설에 근거한 성리학적 자연관을 극복하고 새로운 실학의 자연관을 서양과학의 기초위에 구축하려 하였다. 또한, 이 시기에 서양이라는 전혀 새로운 세계질서를 배경으로 하는 천주교가 전래 되어 정약용과 가까운 친우들 사이에서 받아들여졌고 국가의 사학(邪學)금지령 아래 서민층 속으로도 파고들면서 조선사회의 유교적 질서가 흔들리게 되는 국면을 맞았다.

한편 고증학은 청조(淸朝) 실증적 학풍으로 특히 경학(經學)연구에서 성리학의 의리에 따른 해석을 탈피하고 객관적인 사실의 증거와 고증을 중요시했다. 성호 이익의 경학이 주자의 해석을 존중하면서도 주자의 권위에 억압받지 않고 자유로운 해석을 추구하였다고 한다면, 정약용에서는 한편으로는 성호 이익에 의한 경학의 학풍을 계승하면서 동시에 청조의 고증학을 직접 수용해 경전 해석의 실증적 틀을 확립하였다. 이러한 고증학의 실증적 학문 자세는 경학뿐만 아니라 역사, 지리, 언어와 풍속 등 실학의 국학(國學)적 관심에도 발휘되었다.²⁷⁾

이러한 상황에서 정약용은 기존의 성리학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동시에 양명학, 서학, 고증학 등 당시 새롭고 진취적인 여러 사상 조류들을 폭넓게 수용하고 체계적으로 종합함으로써 자신만의 실학사상의 학풍을 구축하게 되었다.

정약용의 사회체계를 사회적 친분관계와 시대적 배경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27) 금장태(1999) 『다산 정약용』을 참조 연구자가 내용을 정리함

시대적 상황은 정약용을 위기상황에 놓이게 하는 배경으로 작용하여 개인체계와 가족체계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요소로 확인되었다. 당시 국가권력 집권층의 당파싸움과 보수적이고 체제 유지적 성향을 지니고 있던 주자학의 권위주의화의 반대편에 섰던 정약용은 천주교에 연루된 사유로 인하여 혹독한 탄압의 대상이 되어 집권체계에서 배제되는 국면을 맞이했다. 그렇지만, 정약용은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체감한 현실적 한계를 깨닫고 통탄에 빠진 백성을 구하고 국가를 개혁하고자 하는 의지를 품게 되었다. 지역 사회에서 친분관계를 형성한 사람들이 정약용이 가진 학자로서의 자질과 학문적 능력을 신뢰하여 그들의 자제들이 정약용의 가르침을 받고자 희망하였다. 정약용은 강진 유배지에서 이렇게 형성된 사회적 관계자본의 도움을 받아 학자로서, 또한 정치적 지도자로서 당시 사회상황에서 초래된 현실의 모순을 깨닫고 사회변화를 위한 실천의 계기를 마련했다. 당시 사회구조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분야에 걸쳐 개혁안을 제시하여 실학을 집대성하였고, 당시의 상황에서는 진보적인 개혁안이 당장은 정책에 반영되어 실행될 수 없음을 예견하고 많은 저술과 교육 활동 등 자신의 사상을 전수할 수 있는 제자를 양성하고 이들에 의한 사상적 전파를 통해 사회를 개혁하려고 노력하였다.

결국, 정약용에게 사회체계는 혹독한 고통과 시련을 안겨준 중심축이었지만, 이러한 위기의 순간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 사회체계의 개혁을 이루어 내는데 기반을 이루는 방대한 저술과 사상을 완성하는 업적을 남기게 되었다.

5. 정약용의 가족 레질리언스

가족은 생애주기를 통해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로, 각각의 구성원과 감정과 정서를 함께 나누는 일차적인 집단이다.

가족 레질리언스는 회복탄력성에 기초한 개념으로 가족이 위기나 스트레스에 적응하고, 가족관계에서 역기능이 유발되는 상황 속에서도 그 역경으로부터 회복하는 능력을 의미한다(Hawley & Dehaan, 1996). 가족 레질리언스는 가족이 건강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건강성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적응적이고 탄력적인 특성을 갖는 능력으로, 가족체계 내에서의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를 하나의 기능적 단위로 인식하는 개념이다(양준석 외, 2017).

본 연구는 Walsh(2002)의 가족 레질리언스 구성요인을 근거로 하여 정약용의 가족 레질리언스를 분석하였다. 우선 첫 번째 구성요인으로 가족신념체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1) 가족신념체계

가족신념체계는 가족의 내·외적 환경을 관찰할 수 있는 렌즈와 같은 역할을 함으로써 가족 경험을 해석하여 재조작하는 역할을 하는 요인이다. 우리는 경험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위기와 역경에 대처해 간다. 신념은 우리가 누구이고, 경험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는지에 대한 본질이다. 신념체계에는 넓게 가치 및 확신, 태도와 편견, 가정이 포함된다. 이것은 정서적 반응을 일으키고, 결정을 하게 하며, 행동의 지침이 되는 기본 전제를 형성하여 연합시킨다. 유익한 신념은 문제 해결과 치료, 성장의 대안을 증진 시키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무리한 신념은 문제를 지속하며 대안을 제한한다(Wright et al., 1996).

<표 10>은 정약용의 가족 레질리언스 중 신념체계를 분석하여 정리한 표이다.

<표 10> 정약용의 가족신념체계

하위요인	내용
역경에 대한 의미부여	① 학문적 성장을 위한 기회의 시간으로 여김 ② 폐족이 된 집안의 현실 상황에서 자녀들이 독서를 통한 학문적 성취를 일구어 가문의 부흥을 기대함
긍정적 시각	① 사고의 전환 ② 용기와 격려를 통한 자신감 고취시키기
초월과 영성	① 자기치유를 위한 마음공부 ② 자연에 심취함

(1) 역경에 대한 의미부여

역경에 대한 의미부여는 관계적 레질리언스에서 핵심신념을 표현한 것으로, 협력에 가치를 두고 서로가 함께 역경을 극복하는 능력을 강화시켜준다. 강점을 바탕으로 상호협력을 통한 희망과 창조적인 행동을 불러일으켜 도전으로서의 위기에 대항하여 함께 극복하는데 기초한 핵심신념이다.

정약용은 자신에게 주어진 역경을 기꺼이 받아들여 학문 성장의 기회로 여기고 그동안 애쓰지 못한 학문탐구에 생애를 바치기로 결심 하였다. 자녀들 또한, 심층적인 독서를 통한 학문적 경지에 이르도록 하는 시간으로 삼아 이러한 것들이 바탕이 되어 과거 흥했던 가문의 위상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도록 자녀들의 각성을 촉구하였다.

① 학문적 성장을 위한 기회의 시간으로 여김

조선이 서양문명과 충돌하고 정치적 권력 투쟁의 비극이 만들어 낸 신유옥사로

정약용과 가문은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정약용은 현실로 닥친 고통에 의미를 부여하여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는 도전으로 여기고 위기를 다루었다.

“이제야 내가 겨를을 얻었다.” 라는 생각으로 “마침내 혼연히 스스로 기뻐하여 육경사서를 가져다 깊이 연구하였다”²⁸⁾ 에서 알 수 있듯이 정약용은 본격적으로 역경의 시간을 학문연구에 몰두하는 시간으로 삼도록 역경을 개념화시켰다.

“내가 저술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은 당장의 근심을 잊기 위해서만이 아니다. 한 집안의 아버지나 형이 되어 귀양살이하는 지경에 이르러서 저술이라도 남겨 나의 허물을 벗고자 하는 것이니, 어찌 그 뜻이 깊다고 하지 않겠느냐?” (정약용, 박석무 역, 2021, p.40).

정약용은 자신이 저술에 집중하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육경과 사서를 읽고 설명하고 기록하여 이를 통해 마음을 다스리며 학문에 매진하여 나갔다.

② 폐족이 된 집안의 현실 상황에서 자녀들이 독서를 통한 학문적 성취를 일구어 가문의 부흥을 기대함

정약용은 몰락한 폐족 집안의 자제로 좌절과 실의에 빠진 자녀들에게 현실의 고통을 이겨 내고 미래에 대한 기대를 품을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파손되거나 찢어진 것을 어루만지고 다듬어서 완전하게 만들어야만 바야흐로 그 공덕을 찬탄할 수 있듯이, 죽을병에 걸린 사람을 치료해 살려야 훌륭한 의원이라 하고 위태로운 성(城)을 구해내야 이름난 장수라고 일컫는다. 지금 명문가 고관 자제들처럼 좋은 옷과 멋진 관을 쓰고 다니며 집안 이름을 떨치는 것은 못난 자제라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이제 너희들은 폐족(廢族)집안 자손이다. 그러므로 더욱 잘 처신하여 본래보다 훌륭하게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기특하고 좋은 일이 아니겠느냐?” (정약용, 박석무 역, 2021, pp.42-43).

“폐족으로 잘 처신하는 방법은 오직 독서밖에 없다. 너희들처럼 중간에 재난을 겪은 젊은이들만이 진정한 독서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정약용, 박석무 역, 2021, p.43).

“아무쪼록 너희들은 이런 점을 생각해 다시 분발하여 공부해서 내가 이어온 실낱 같은 우리 집안 글하는 전통을 더욱 키우고 번창하게 해보아라. 그러면 세상에서

28) 『茶山詩文集』 권16, 「自撰墓誌銘」

다시 빛을 보게 될 것은 물론 아무리 대대로 벼슬 높은 집안이라 하더라도 우리 집안의 청귀(淸貴, 고귀함)와는 감히 견줄 수 없을 것이니, 무엇이 괴롭다고 이런 일을 도모하지 않느냐?” (박석무, 2021, p.48).

기능을 잘하는 가족들은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그들이 자신과 타인의 삶에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을 공유한다. 불확실한 상황에 의미를 부여하고 인생의 새로운 비전과 목적을 가지고 변화할 수 있게 해준다. 정약용은 1802년 유배 초부터 심혈을 기울여 완성한 주역사전(周易四箋)에서 “역은 무엇 때문에 만들어졌는가? 성인이 하늘에 명을 물어서 그 뜻을 따르기 위한 것이다.”²⁹⁾ 라고 하여 사람은 고난 속에서 하늘의 뜻을 묻고 자신의 허물을 뉘우침으로써 자기치유를 시작한다고 하였다. 정약용은 자신에게 역경이 주어진 이유가 있고 이러한 순간이 영원하지 않으며 반전될 수 있다는 희망적인 사고를 품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에 기인하여 자녀들에게 인과적이고 설명적인 신념들을 통해 고통과 위기상황을 다루는 방법적인 실천과 노력으로 가문의 부흥을 회복할 수 있다고 역경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에 대처하는 방법을 자녀들에게 전했다.

(2) 긍정적 시각

긍정적 시각은 레질리언스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불굴의 인내, 용기와 격려, 희망과 낙관주의, 그리고 적극적인 행동은 역경으로부터 회복하고 견디는데 필요한 강점을 구성하는 핵심요인들이다.

정약용은 특유의 낙관적인 자세로 자신에게 닥친 위기의 순간을 현명하게 대처하고 그러한 유연한 자세를 자녀들에게도 전하여 가족 모두가 고통의 시간을 현명하게 받아들여 지혜롭게 이겨 나가도록 하는 힘을 제공했다.

① 사고의 전환

“즐거움은 괴로움으로부터 발생하니 괴로움은 즐거움이 뿌리이다. 괴로움은 즐거움에서 발생하니 즐거움은 괴로움의 씨앗이다. 괴로움과 즐거움이 서로가 서로를 낳은 것이 마치 움직여서 양이 되고 고요하여 음이 되는 것이 서로 뿌리가 되는 것과 같다. 이것을 통달한 사람은 즐거움과 괴로움이 서로에게 의지하고 숨어있음을 살피고 그것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을 계산하여 내 마음이 대상에 응할 때 항상 보통 사람의 정과는 서로 반대되게 한다. 그러므로 즐거움과 괴로움이 나뉘어져 나가다가도 그 형세를 줄이은 것이 마치 경수창의 상평법이 곡식이 너무 쌀 때는 곡식을 사들여서 값을 올리고 반대로 너무 비쌀 때는 곡식을 싸게 하여 항상 곡식 가격을 고르게 유지하는 것과 같다. 이것이 괴로움과 즐거움에 대처하는 방법이다.

29) 『周易四箋』 권4, 「易論」, “易何爲而作也? 聖人所以請天之命而殉汽旨者也.”

” 30)

정약용은 즐거움과 괴로움이 상호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즐거움이 괴로움을 낳기도 하고 또한, 괴로움이 즐거움을 낳기도 한다고 이해하여 즐거울 때는 괴로움을 대비하고 괴로울 때는 즐거움을 바라보며 마음을 평정하게 해야 한다고 하였다.

“집에 책이 없느냐? 몸에 재주가 없느냐? 눈과 귀가 총명하지 못하냐? 무슨 까닭에 자포자기하려 드는 게냐? 폐족이라 그런 것이냐? 폐족은 다만 과거와 벼슬길에 꺼림이 있을 뿐이다. 폐족이 성인이 되거나 문장가가 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폐족이 통재달식(通才達識)의 선비가 되는 데는 아무 거리낄 것이 없다. 거리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크게 유리한 점이 있다. 과거에 얽매임이 없기 때문이다. 빈고하고 곤궁한 괴로움이 또 그 심지를 단련시켜 지식과 생각을 푹 퇴워주고, 인정물태(人情物態)의 진실과 거짓된 형상을 두루 알게 해주기 때문이다.” 31)

폐족이 되어 스스로를 천하게 여겨 얽잡아 보고 비참하게 만들고 있는 자녀들에게 정약용은 빈고와 괴로움은 정신을 성장시키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이치를 깨닫는데 도움이 되고, 독서와 학문이 과거시험과 벼슬길을 얻기 위한 출세나 세속적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신적 자유로움을 찾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사고의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② 용기와 격려를 통한 자신감 고취시키기

“지금 우리집안은 폐족이 되었고, 여러 일가들도 갈수록 쇠약해지고 있다. 옛날 우러러볼 만한 풍류나 문장들이 근자에 와 삭막해졌는데, 너희들은 본래 우리 집안이 이렇구나 생각하고 선조들을 따르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나 끝을 보면 근본을 헤아릴 수 있고, 흐르는 물을 건너다보면 수원지를 찾아낼 수 있다는 말이 있으니, 우리 집안이 참으로 어떤 집안이었나 알아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아무쪼록 너희가 힘을 합쳐 30년 전의 옛 모습을 만회할 수 있다면 너희야말로 참으로 효자이고 어여쁜 자손이라 할 것이다.” (정약용, 박석무 역, 2021, pp.97-98).

“너희들의 편지를 받으니 마음이 놓인다...중략) 부디 자포자기 하지 말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부지런히 책을 읽는데 힘쓰거라...중략) 폐족이 되어 글도 못하고 예절도 갖추지 못하면 어찌되겠느냐. 보통 집안 사람들보다 백배 열심히 노력해야만 겨우 사람 축에 끼일 수 있지 않겠느냐?” (정약용, 박석무 역, 2021, p.126).

30) 『茶山詩文集』 권 12, 「贈別李動協虞候詩帖序」

31) 정민(2007), 『다산어록청상』, p.182

Seligman(1998)은 학습된 낙천주의는 가족 레질리언스 강화와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희망을 주는 지지적 관계는 구성원들에게 압도적인 고통에 직면해서도 용기를 갖고 유지하게 할 수 있다.

기능적인 가족들은 인생에 대해 비관주의보다는 낙관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Beavers & Hampson, 1990).

정약용은 자신만의 특유의 낙관적인 자세로 자녀들에게도 위기의 순간에 희망의 의미를 부여해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격려하고 현실을 회피하여 도망가지 않도록 하였다. 당면한 현실을 자세히 일러주고 극복하기 위해 용기를 심어주고 또한, 자녀들의 심정을 헤아리고 격려를 통한 이해를 불러일으켜 함께 극복하여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자 독려하였다. 유배지에서조차 삶을 긍정하고 의미를 찾고자 하는 그의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사고는 만년에 노인이 되어서도 품어져 나왔다. 노인이 되어 눈과 귀가 멀어지고, 치아가 모두 빠지고, 머리털마저 빠져 대머리가 된 상태에서 정약용은 이 모든 것을 고통으로 보지 않았다. 머리털이 다 없어지니 감고 빗질하는 수고로움도 없고 백발의 부끄러움도 면할 수 있어서 좋고, 치아가 다 빠지니 치통의 고통이 없어서 또, 좋고 시력이 나빠지니 문자에 사로잡혀 시비를 따지는 일에서 벗어나 자유로울 수 있고, 귀가 멀게 되니 세상 시비다툼을 듣지 않아도 된다고 스스로를 위로했다.³²⁾

정약용은 어디에서나 어느 때에서나 불평과 원망보다는 현실 속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바라보고 낙천적으로 살아가자 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역경을 극복하고 행복한 삶을 완성하는 기제로 작용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3) 초월과 영성

초월적인 신념은 우리 자신과 가족에게 역경을 뛰어넘는 의미와 목적을 제공한다(Beavers & Hampson, 1990). 삶의 더 큰 의미를 찾고자 하는 욕구는 영적 믿음과 문화유산을 통해 공통적으로 충족된다. 또한, 이것은 깊은 철학적, 심리적, 또는 정치적 확신과 같은 이념적 시각으로 표현될 수 있다(Wright et al., 1996). 초월적 신념은 삶에 대한 명확성뿐만 아니라 고통 안에서 위안을 주며, 예상치 못했던 사건의 위협을 감소시키며, 변화할 수 없는 상황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영성은 ‘한 가지를 모든 것과 연결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Griffith & Griffith, 1998). 영성은 의미, 내적 전체성, 다른 사람과의 연대감을 가져오는 내적 가치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도록 한다. 이것은 궁극적인 인간의 생태나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체계에 대한 신념, 최고 권력에 대한 신념, 또는 인간사회와 자연, 우주를 아우르는 전체적 일체성에 대한 신념을 포함할 수 있다.

고통은 우리를 영성적 영역으로 초대한다(Wright et al., 1996). 종교와 영성은 역경에 직면할 때, 이해를 넘어서는 의미와 평안을 제공한다. 개인적 믿음은 우리가

32) 민족문화추진회 편, 『국역 다산시문집』Ⅲ, 「老人一快事」(서울: 솔, 1996), pp.140-145). 참조

도전을 극복할 수 있다는 신념을 지지해 준다.

Werner와 Smith(1992)는 영성적 연대성에 의한 의미부여가 장기적인 레질리언스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믿음은 종교적 의식이나 활동에 빈번히 참여하는 것보다 더 잘 유지될 수 있다. 영성적 연속성과 회복은 자연과의 교감- 산의 경치, 숲속의 산책, 일출, 해변가 파도의 리듬 등에서도 발견될 수 있고, 자연에 대한 아름다움은 여러 형태로 영적, 치유효과를 가질 수 있다.

정약용은 유배생활을 하는 동안 제한된 환경에서 보다 큰 가치와 목적을 위해 자기 성찰을 위한 마음공부를 통해 삶의 의미를 찾고, 먼저 살다간 역사적 인물의 경험을 자신과 비교하여 마음의 안정을 찾고 치유하였다. 그리고, 인위적 인간세계가 아닌 스스로 그러한 자연의 세계에 심취하여 현실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자 노력하였다.

① 자기치유를 위한 마음공부

“서글퍼라 내인생 좋은 때를 못 만나/ 가는 앞길 험난해 자주 죄에 걸렸네.
기특한 제주 안고서 오락가락 맴도니/ 못사람 하찮게 여겨 재앙을 끼치누나
내 자신을 반성해 행실 더욱 닦았지만/ 억울하고 번뇌로움 사라지진 않는다네.
내 스스로 살펴보면 깔끔하고 해맑으니/ 죄를 비록 씌운대도 마음 어찌 상하리.
이미 천명 신봉하여 어기지를 아니 하니/ 한스러워 할 것이 또한 뭐가 있으리”³³⁾

정약용은 첫 유배지 장기에서 지은 「석지부(惜志賦)」에서 인생에 대한 회환과 억울함 앞에서도 떳떳하여 부끄러움 없음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고 하늘의 뜻에 따라 수용하려는 의지와 자기 위안을 나타낸다.

정약용에게는 인간세계와 자연세계 위에 초월적 존재가 있었다. 상제는 무시로 정약용과 대화하고 속삭이고 타이르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존재였다.

“다른 사람은 못 들어도 나는 홀로 듣는데(하늘의 소리는) 더할 나위 없이 상세하고 엄하여 고하는 것 같기도 하고 훈계하는 것 같기도 하다. 간곡하게 타이르기를 뿐이겠는가!”³⁴⁾

유배기에 쓰여진 정약용의 저술에는 인격신에 대한 강력한 주장이 있다. 성리학에서 최고 존재인 태극은 인격적인 의미가 거의 없다. 그런데 정약용은 유교의 천(天)을 성리학적으로 태극이나 리(理)로 해석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인격적 상제로 해석하고자 하였다(장승구, 2016, p.224). 초월적 존재에 대해 부끄러움 없이 당당한 삶을 살려고 했던 정약용은 마음속에 상제를 마주하면서 그를 통해 위로받고 고난을

33) 『다산시문집』 제1권, 부(賦), 「惜志賦」

34) 『中庸自箴』 권1, 3면, “人所不聞, 而已獨諦聽. 莫詳莫嚴, 如詔如誨. 奚但諄諄已乎!”

이기는 힘을 얻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 정약용이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쓴 자찬묘지명 마지막에서도 “힘써 상제를 밝게 섬겨야 마침내 경사 있으리라”³⁵⁾라고 기약하여 상제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였다.

다산 사상 전체를 관통하는 초월자로서 상제천의 존재는 스스로 몸가짐을 조심하는 신독(慎獨)의 자세로 나타난다. 강진 유배지에 처음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정약용을 독이 든 사람인 양 취급하며 가까이하지 않았다. 그 상황에서 정약용은 “천도는 은미하나 뚜렷이 나타나므로 군자는 신독을 하며, 신독을 하므로 내면을 살펴 부끄러움이 없는 것”(전남대 호남학연구원, 1986, p.255)이라 하여 마음공부를 강조하였다. 정약용에게 신독은 단순히 홀로 거처하는 것인 독처(獨處)가 아닌 ‘남들은 알지 못하지만, 자신만은 혼자 아는 일’을 의미하며, 이것을 극진히 함으로써 양심이 나타나도록 하는 마음공부이다(전남대학교 호남학 연구원, 1986, p.167, 177).

정약용은 유배기 어려움에 처한 자신의 상황을 역사 속에서 자신과 같은 고난을 겪은 다른 위인들의 삶과 비교하여 영감을 얻고 새로운 가능성을 계획하여 아픔을 달래고 치유하고자 하였다.³⁶⁾

유배기의 정약용은 자신의 처지를 한나라 시절 오랑캐에 잡혀 19년을 고통 속에 있던 소무(蘇武)와 비교하였고, 큰 재능을 지니고도 시기하는 사람들의 모함에 의해 오랜시간 유배지를 떠돌았던 송나라 소식蘇軾(1037~1101)에 대해 마음으로 공감하며 자신의 아픔을 치유하였다. 소식이 귀양살이를 하면서 고향의 아미산을 그리워 하면서 아미도를 그렸던 것을 회상하면서 자신의 고향 소내의 풍경을 그린 소계도(笱溪圖)를 그려서 두고 보면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랬다.³⁷⁾ 또한, 당나라 한유韓愈(768~824)가 불교를 공격하다가 남쪽으로 팔천여리나 먼 곳으로 유배를 갔던 사실을 생각하면서 자신이 장기로 유배 간 것은 한유에 비하면 십 분의 일인 팔백리 밖에 되지 않는다고 여기며 스스로를 위로하였다.³⁸⁾

고난을 겪은 역사적 인물의 아픔을 자신의 상황과 비교함으로써 자신의 아픔은 상대화되고 객관화되어 사람이 살면서 인간 세상에서 겪게 되는 하나의 사건으로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인식으로 고통은 더 이상 괴로움이 아니라 자신을 단련하기 위한 하늘이 준 신성한 수련의 기회로 여기게 된다. 정약용은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하늘이 자신을 유배지에 보내 평소 시간이 없어 정진하지 못했던 학문연구에 집중하게 된 것이라고 여기게 되면서 역경을 다스릴 수 있게 되었다

35) 『茶山詩文集』 권16, 「自撰墓誌銘(集中本)」, “俛焉昭事, 乃終有慶”

36) 정약용은 자신의 처지와 비슷한 역경에 맞선 역사적 여섯 인물의 행적과 덕을 찬미한 「謫中六夫子畫像贊」을 지어서 굴원·가의·이백·한유·소동파·채원정의 삶을 기렸다.

37) 민족문화추진회 편, 『국역 다산시문집』 II, 「희작소계도戲作笱溪圖」(서울: 숲, 1996), p227. 참조

38) 민족문화추진회 편, 『국역 다산시문집』 II, 「아사고인행我思古人行」(서울: 숲, 1996), pp.207-208. 참조

② 자연에 심취함

현실의 고통을 잊기 위해 상처받은 사람들은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어한다. 자연은 특유의 크고 장엄한 아름다움으로 인간세계의 모든 고통과 번민을 초월하게 해준다. 『다산시문집(茶山詩文集)』 5권에 기록된 시에서는 정약용이 자연의 아름다움이 주는 심미적 위안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홀연히 흘러보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약캐는 사연(探藥詞)」과 「연을 심는 사연(種蓮詞)」의 시에서는 정약용이 자연의 이치를 들여다보려는 깊이 있는 태도가 드러난다. 또한, 유배지 강진의 다산초당으로 거처를 옮기고 나서는 자신의 거처 주변 경관이 마음에 들어 바로 여덟 곳 경치를 정하고 아름다운 표현으로 「다산팔경사(茶山八景詞)」라고 하여 담을 스치고 있는 산복숭아 나무와 밭에 부딪히는 버들개지, 따뜻한 날에 들리는 꿩 소리, 가랑비 속에 물고기를 먹이는 일, 비단 바위에 얽혀 있는 단풍나무, 못에 비친 국화, 언덕에 푸르른 대나무, 만학의 소나무 물결 등을 이야기하였다. 이와 더불어 다산에 꽃이 피고 지는 과정을 묘사한 「다산화사(茶山花史)」라는 20수의 시는 자연에 대한 관찰과 묘사, 그리고 감상까지 드러나 있어 정약용은 자연을 관찰하고 묘사하면서 자신의 마음도 치유하고자 하였다. 또한, ‘자연 신비주의(nature mysticism)’의 경험은 자연과 계절 변화에서 초월성을 경험하게 되다. 자연 신비주의란, 아름다운 자연경관 등을 계기로 촉발되는 신비적 합일로(성혜영, 2014, p.262) 인간의 초월에 대한 지향을 보여주는 경험으로, 이와 같은 초월의 경험은 도덕적 성찰과 도약의 계기를 제공해 주기도 한다(장승희, 2020, p.126-127). 「늦은 봄(晩春)」이라는 시에서 “우리 모두 부처 사는 인생임을 알았으니/ 매여 사는 게 떠돌이보다 나은 건 또 뭐인가?” 하며 삶에 대한 공경과 겸손을 보이며, 제비가 집을 짓는 것을 보고는, “집 없는 떠돌이 신세 부끄럽네.” 라고 자신의 신세와 비교하기도 하였다. 봄은 복사꽃과 배꽃, 수양버들과 장다리꽃에 나비가 앉은 것을 관찰하여 묘사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자기 성찰에까지 이르고 있다. 정약용은 자연을 소재 삼아 심신을 다스리고 삶의 의미를 깨치는 성찰적 자세를 보였다. 이렇게 자연에 기대어 주어진 삶을 유유히 받아들이며 유연하게 대처하는 태도는 고난에서 발생하는 고통으로 자신을 파괴하기보다 험난한 유배 생활을 헤쳐나가는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였다.

2) 가족조직과정

가족은 다양한 방법으로 가족 구성원의 성장과 복지에 관한 본질적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생활을 구조화해야 한다. 또한, 위기와 지속적인 역경을 효과적으로 다루도록 자원을 동원하고, 스트레스를 중재하며, 변화하는 조건에 적절하게 재조직해야 한다. 가족의 조직유형은 가족 단위의 통합을 지지한다(Watzlawick Beavin, & Jackson, 1967; Minuchin, 1974). 가족조직과정은 가족 완충장치로 관계적 레질리언

스의 핵심과정이다.

<표11>은 정약용의 가족 레질리언스 중 가족조직과정을 분석하여 정리한 표이다.

<표 11> 정약용의 가족조직과정

하위요인	내용
융통성	① 선비로서의 가계 생계유지 방법 지시 ② 생활인으로서의 자세
연결성	① 가문의 책임자로서 가족윤리의 확립 ② 아버지의 결핍을 느끼지 못하도록 서간으로 사랑을 전달함
사회 및 경제적 지원	① 친가, 외가, 처가의 보기 드문 우수한 집안 배경 ② 경제적으로 윤택한 처가와 관계자원의 경제적 지원 ③ 유배지 강진에서 주목집 노파의 도움

(1) 융통성

모든 가족은 긍정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 융통성이 있으면서도 안정성과 변화의 균형을 이뤄야 한다. 가족은 변화하는 발달적 환경적 요구에 적응하기 위해 시간의 경과에 따른 도전에 적합하도록 복귀와 재조직, 적응을 해 나가야 하는 체계이다.

① 선비로서의 가계 생계유지 방법 지시

“국화 한 이량은 가난한 선비의 몇 달 식량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니 한낱 꽃구경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지황, 반하, 도라지, 천궁(川芎)따위나 꼭두서니 등에도 모두 마음을 기울여 잘 가꾸어 보도록 하여라” (정약용, 박석무 역, 2021, p.74).

“의복과 음식이 근원이 되는 것은 오직 뽕나무와 삼을 심고 채소와 과수를 기르는 일이며, 부녀자가 길쌈을 부지런히 하는 것도 꽤 권할 만한 일이다” (정약용, 박석무 역, 2021, p.206).

“뽕나무 심어서 누에치는 일은 선비로서의 명성도 잃지 않으면서 큰 이익도 얻을 수 있으니 세상에 이러한 일이 또 있겠느냐? (정약용, 박석무 역, 2021, p.210).

정약용은 오랜 유배 생활로 남겨진 가족의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렇지만 사대부로서 함부로 이윤을 남기기 위해 장사에 손을 대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큰아들이 의원행세를 하는 것에도 못마땅하게 생각하였다. 몰락한 집안이지만 사대부 명문가의 선비로서 품위는 유지하되 경제적인 실효성은 획득하여야 했

기에 이에 대한 대책으로 뽕나무를 심고, 소득 창출이 좋은 국화를 가꾸어 선비로서의 체면도 유지하고 생산적인 이득을 취하여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융통성을 발휘하였다. 양계를 할때에도 사대부답게 농서(農書)를 잘 읽고 좋은 방법을 골라 시험해 가면서 책을 읽는 선비로서 수준 있게 실천할 수 있도록 자식들에게 안내하였다.

② 생활인으로서의 자세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자신의 생활에 도움을 줄 자원을 적극적으로 물색하여 이들로 부터 다방면의 도움을 받아 유배 생활을 안정적으로 해 나갈 수 있었다. 정약용은 1801년 강진으로 귀양 가서 처음 자신의 생활을 돌봐주던 제자 황상의 부친이 술병으로 죽기 전부터 이미 1806년 강진 읍내 남쪽의 목리(牧里)에 있던 제자 이청(李晴)³⁹⁾의 집으로 옮겨가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미리 계획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였다. 또한, 다신계(茶信契)를 통해 제자와 해배 이후에도 연락을 지속할 수 있었는데, 제자들은 자신들이 모은 갯돈 서른다섯 냥을 스승에게 드리고, 정약용의 강진 땅을 계답(契畓) 삼아서 계를 이어가고자 하였다.⁴⁰⁾ 『다신계절목(茶信契節目)』에는 정약용이 18년간 강진의 다섯 지역에 18마지기의 땅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마재에서 아내와 아들이 특용작물 재배 등으로 마련해 보낸 돈과 정약용이 땀 흘려 모아 산 것으로 추정되며,⁴¹⁾ 이것은 정약용의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생활인의 면모를 보여준다. 정약용은 자신의 환경적, 재정적 절실함에 맞서 주체적으로 자원을 구하여 활용하는 생활인으로서의 적극성을 보여주었고, 이러한 태도는 정약용이 유배지에서도 자신의 삶을 능동적으로 생활해 가는 실천적 자세를 토대로 꾸려나갔음을 알 수 있다. (박미해, 2019).

(2) 연결성

고통스러운 순간이라도 가족 구성원들은 지지와 상호협력을 위해 서로에게 의지하고 함께 끌어당겨 주는 것이 위기를 이겨 내는 가장 중요한 과정 중의 하나라는 것을 발견했다(Stinnett & DeFrain, 1985; Stinnett et al. , 1981). 건강한 가족에서 개인들은 분화되는 동시에 연결되어 있다. 밀착된 가족에서 정서적 친밀도와 충성심은 강력하고, 유리된 가족에서는 가족 구성원 서로를 보호나 책임의 의무가 없어서 단절되어 있다고 느낀다. 또한, 건강한 가족의 리더십은 명확하다. 책임을 맡은 성인은 그들의 권위나 책임감을 포기하지 않고 자녀들에게 긍정적 행동을 지지하고, 관계를 강화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정약용은 가족들이 서로 강하게 연결되어 위

40) 정약용이 백련사와 대둔사의 승려 제자들과 맺고 있었던 전등계(정민, 2011, p.355)의 기록은 전하지 않으나, 이 전등계에서의 소출로 생계비를 마련하였을 것이다(박석무, 2014, p.503).

41) 정민(2011), p.354, 379.

기를 잘 극복하여 기울어진 가문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가족의 친밀함을 확고히 하여 서로 간의 응집력을 결속시키기 위해 가문의 강력한 리더로서 자녀들과 가족을 이끌었다.

① 가문의 책임자로서 가족윤리의 확립

정약용은 가문이 폐족이 되어버린 현실에서 일가친척이 뿔뿔이 흩어져 서로를 원망하여 관계가 소원해질까 염려하였다. 이에 가문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서로 먼저 도움의 손길을 주어 친밀한 응집력으로 관계가 원만히 유지되기를 희망하였다. 이러한 바램을 이루기 위해 가족들이 실천할 수 있는 가르침을 일러주었다.

먼저, 부모에 대한 도리에서 정약용은 부모의 사랑에 대한 응당한 갚음과 보답하려는 행위 그 자체가 바로 ‘효(孝)’라고 규명하고 아버지는 올곧고 어머니는 자애로우며 형은 우애 있고 아우는 공경하며 자식은 효도하는 삶이 모든 일의 근본이라고 하였다.

‘사소한 일에 유의하여 효도하는 길’ (정약용, 박석무 역, 2021, p.50)과 ‘큰아버지 섬기기를 아버지처럼’ (정약용, 박석무 역, 2021, p.69)에서 자녀들의 정성스러운 마음과 경애로운 행실이 ‘효’의 근본정신이라 하였고, 어머니뿐만 아니라 큰아버지도 제 아버지 모시듯 극진히 공경해야 함을 당부하였다. 정약용이 행하는 ‘효’는 부모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부모의 지친(至親)에게도 정성을 기울여 공경해야 한다고 하였다.

자녀에 대한 도리에서, 윗사람이 먼저 아랫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아랫사람도 윗사람을 공경할 수 있다고 하여, ‘자(慈)’는 부모의 자연 발생적인 사랑의 의무인 동시에 자식의 도리보다 선행되어야 한다는 당위적 성격을 지닌다. 정약용은 가족윤리는 가족 모두가 각자의 도리를 다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규정하였다(김민옥, 2005).

‘막내아들이 죽었다니’ (정약용, 박석무 역, 2021, p.132)에서 정약용은 어린 아들의 죽음을 대하는 애절한 아버지의 마음을 절절하게 표현하였다. 또한, 이와 동시에 품안의 자식을 잃은 부인의 애절한 아픔을 남아있는 자녀들에게 이해와 위로의 보살핌을 주라고 간곡히 부탁하였다. 한 집안의 가장으로 아내와 자식에 대한 사랑과 보살핌을 멀리 유배지에서도 끊어짐 없이 가족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였다.

다음으로, 형제간의 도리에서는 형제간에 사랑이 있고 도리를 다하여 그릇되지 않는 것을 말하는 형우제공(兄友弟恭)을 강조하였다. 지극히 가까운 육친이 화목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말할 것 없다고 하였다.

‘너희들이 중형제들에게 모범을’ (정약용, 박석무 역, 2021, p.72)에서 비단 친

형제만 아니라 중형제 사이도 동기처럼 서로 사랑하고, 백부와 숙부를 섬기기를 제 아버지처럼 섬겨 다른 아이의 모범이 되도록 엄하게 타일렀다. 또한, 중형(仲兄) 정약전의 죽음에서는 존경하는 형님의 죽음을 대하는 애절한 마음을 자식들과 제자에게 통곡하여 표현함으로써 형제간의 우애 있음을 몸소 보여주었다.

부부간의 도리에서 정약용은 부부윤리에서 평등을 제시하여 인격적 관계의 당위성을 제시하였다. 제가(諸家)의 도리는 부부 화합에 있고 부부는 가족 구성의 시작이고 주체이며 인간질서의 기본이 된다. 정약용은 부부의 화불화(和不和)가 가정의 존망성쇠의 기틀로 보고 인간관계의 기초가 되는 부부윤리를 중요시하였다. 전통사회에서는 부부관계가 상하, 분업 관계였지만, 정약용은 일찍이 부부를 ‘조화와 평등의 관계’로 인식하고 종속 관계가 아닌 상호보완 관계라 보았다(김민옥, 2005).

‘하피첩(霞岬帖)’ (정약용, 박석무 역, 2021, p.148)에서 부인 홍씨가 시집을 때 입고 왔던 여섯 폭 다홍치마를 보내니 정약용은 부인의 마음을 헤아려 비단 치마를 재단하여 두 아들에게 교훈을 담은 글을 써 주고, 시집가는 외동딸에게는 매조도(梅鳥圖)를 선물해 동반자적 평등한 부부애가 자녀들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지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친척과 이웃에 대한 도리에서는, 효의 의미를 확대하여 사회적 윤리로 적용하였다. 친척과 이웃들과 좋은 사귀를 하면 아름다운 인간관계가 이루어짐을 강조하였다.

‘선조의 행적과 일가친척을 알라’ (정약용, 박석무 역, 2021, p.58)와 ‘가난한 친척을 도와라’ (정약용, 박석무 역, 2021, p.138)에서 비단 직계 선조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보다 넓은 사회관계로의 친(親)을 행해야 하며, 일가친척들을 돌봐주고 궁핍히 여겨 먼저 은혜를 베풀라 하였다. 이웃에 대해서도 ‘남의 도움을 바라지 말고 도와주라’ (정약용, 박석무 역, 2021, p.67)에서 항상 약자를 불쌍히 여겨 베풀 마음의 준비와 위민의 자세를 가지라 하였다.

② 아버지의 결핍을 느끼지 못하도록 서간으로 사랑을 전달함

정약용의 자녀에 대한 인간적인 부정(父情)은 숭고한 사랑과 아버지로서 자세를 견지한 실천적인 행동으로 유교의 위계적 권위를 탈피한 자녀와의 대화는 정약용의 새로운 교육관이라고 할 수 있다. 18년의 긴 유배 생활에서도 77편의 서간문을 통해 자녀 교육과 애절한 사랑을 전달하였다.

“도연명 자식보다 나은 편이구나/ 아비에게 밤 부쳐온 걸 보니
따지면 한 주머니 하찮은 것이지만/천 리 밖 배고픔 생각해서 한 것이지
아비 생각 잊잖은 그 마음 예쁘고/봉할 때 그 손놀림이 아른거리누나

먹으려 하니 되레 마음에 걸려/물끄러미 먼 하늘을 바라다보네” 42)

한양에서 유배지 경상도 장기까지의 거리가 천 리에 해당하는 거리로, 아들이 천 리 밖에 있는 아버지의 배고픔을 생각해서 보내준 밥을 보면서 아들에 대한 사랑과 애타게 보고 싶은 마음을 전하였다. 또한, ‘억유녀’ 43)는 딸이 어릴 때 놀던 모습을 유배지에서 회상하며 적은 글로, 집 떠나올 때 재롱부리던 작고 귀여운 딸이 눈에 선하여 자식 보고픈 마음을 글로 전하였다. 귀양살이 때문에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기에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자신의 미안한 마음을 멋쩍은 듯이 토로하지만 언제나 자식들을 그리워하는 아버지의 부정을 많은 소재를 빌어 글로써 표현하였다. 이렇듯 서간을 통해 자녀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달함으로써 부모 자녀 간의 정서적 거리를 좁혀갔다.

“너희들 학문은 뿌리 없는데/경전 한 권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구나
참으로 학자라는 이름만 얻는다면/나는 이제 늙고 추하다 해도 달갑겠구나
숨어 살면서 채마밭 가꾸다가 /벼슬을 하려면 반드시 사양할 건 없단다
기름진 땅에 마늘 심고/부드러운 땅에 파나 부추 심거라
미개한 사람들과는 가까이 하지 말고/친구는 신중히 가려 사귀어야지
영락한 선비의 몇 마디 말이지만/또한 좌우명은 충분하다고 하겠구나
네 돌아가 일을 주관해 잘 처리하면/아마 내 허물도 없어질 테지” 44)

오랜 유배 생활에도 좌절하지 않고 현실의 아픔을 멀리하고 아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미래를 준비하도록 지도하는 정약용은 인생을 살면서 먼저 경험한 삶에 대한 지혜를 자식들에게 전하며, 주어진 삶을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지침이 되어 주고자 하였다. 애절하게 뿔어져 나오는 자녀에 대한 아버로서의 사랑을 서간을 통해 주고받으며 아버지로서의 자리를 하나씩 메꾸어 나갔다. 애뜻한 사랑과 훈계가 담긴 엄고 위엄있는 자세로 한 집안에서 자녀교육을 담당하는 부모의 역할에 결핍이 생기지 않도록 실천해 가는 공동 양육자로서의 훌륭한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3) 사회 및 경제적 지원

가족치료자들(Satir, 1988; Whitaker & Keith, 1981)은 기능적 가족을 마치 살아있는 세포(Beavers & Hampson, 1993)처럼, 명확한 개방체계이면서 침투할 경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체계는 경계 내에서 고도로 상호작용하는 강점과 강도를 가지고 있고, 외부세계와의 만족스러운 교환허용에 있어서도 충분히 침투적이다.

42) 민족문화추진회(역), 『다산시문집2』, 「치자기울지」, 민족문화추진회, 1994, p.232.

43) 여유당전서』 제1집 제4권, 「억유녀」, 경인문화사, 1989, p.281.

44) 박석무·정해림(역), 『다산시정선 하(下)』, 「장학가재보은산원」, 2001, p.522.

긍정적으로 기능하는 가족의 구성원들은 낙관주의와 희망을 가지고 세상에 참여하고, 거기에서의 만남을 통해 얻은 다양한 소득을 다시 가족으로 갖고 온다.

확대된 친지와 사회적 네트워크는 실제적 원조와 절대적으로 중요한 지역사회 연결을 제공한다(Walsh, 2002).

① 친가, 외가, 처가의 보기 드문 우수한 집안 배경

정약용의 친가는 8대 옥당 가문으로 조선 왕조에 들어와 최초로 벼슬하여 승문원(承文院)교리를 역임한 정자급(丁子級)부터, 참판 정수강, 판서 정옥형, 좌찬성 정응두, 대사헌 정윤복, 관찰사 정호선, 교리 정언벽, 참의 정시윤에 이르기까지 모두 홍문관에 들어간 다산의 직계 선조이다.

이를 두고 영의정을 지낸 변암 체제공은 『변암집』의 「통훈대부진주목사정공묘갈명(通訓大夫晉州牧使丁公墓碣銘)」에 선조인 정시윤이 혁혁한 명문가 후계임을 칭찬한 내용을 기록하기도 했다. 아버지 정재원 또한, 훌륭한 목민관이자 학문에 돈독한 학자로 정약용이 기록으로 남긴 「선인유사(先人遺事)」와 변암 체제공이 지은 정재원 일대기인 「통훈대부진주목사정공묘갈명」에서 아버지 정재원은 다방면에서 아들들을 훌륭하게 키워 낼 인품과 능력을 갖춘 인물로 평가하였다. 『사암선생연보』에서는 “다산 공의 덕기(德器)가 관후(寬厚)하고 경학(經學)이 정미(精微)했던 것은 전적으로 가정에서 아버지의 양육을 제대로 잘 받았기 때문이었다”라고 하였다.

정약용의 외가 또한, 우수한 집안으로 어머니 윤씨 부인은 고산 윤선도의 후손이자 공재 윤두서의 손녀였다. 윤선도는 예학의 대가이면서 시조 시인으로 이름을 떨쳤고, 윤두서는 고산의 증손자로 뛰어난 학자이면서 조선을 대표하는 화가 중 한 사람이었다. 정약용은 양가의 출중함을 이어받아서인지 「자찬묘지명」 집중본에서 “어려서부터 영특했고 글에도 뛰어났다” 했고, 「자찬묘지명」 광중본에서는 “어린 시절 영특하였고 어른이 되어서는 학문을 좋아했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정약용의 처가도 조선 왕조 후기, 영·정조 시기에 잘나가던 풍산홍씨 집안으로 고관대작과 학자들이 많이 배출된 집안이었다. 대대로 벼슬이 이어진 집안으로 장인 홍화보는 넉넉한 가세(家勢)에 인물까지 좋아서 명성이 높았다.

정약용이 태어난 조선 시대는 본가, 외가, 처가의 집안, 이 세 가지 환경이 잘 갖춰져야만 살아가는데, 편하고 출세의 길이 열리기 쉬웠다. 이 시대는 성씨를 따지고 가문을 따지는 신분 사회의 질서가 강건했던 시대로 정약용의 이러한 유리한 집안 배경은 사대부로 당시에 살아가는데 유리한 장점으로 작용하였다.⁴⁵⁾

45) 박석무, 2022, pp.79-92 참조.

② 경제적으로 운택한 처가와 관계자원의 경제적 지원

정약용의 가족관계와 사회체계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정약용의 처가는 대대로 벼슬한 집안으로 장인 홍화보가 농장을 마련해 준 경제적 도움 덕분에 정약용이 유배를 가 있는 동안에도 가족들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외가와 친척 관계에 있는 윤씨 일가의 도움으로 다산에 정착하게 되면서 그곳을 찾아와 글을 배운 집안 자제들을 가르친 덕분에 생활비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였다(박석무, 2022, p.387).

③ 주막집 노파의 도움

“신유년(1801년) 겨울 나는 영남(장기)에서 체포되어 서울에 올라왔다 또 다시 강진으로 귀양 가게 되었다. 강진은 옛날 백제 남쪽 변방으로 지역이 비루하고 풍속이 색다르다. 그 당시에 그곳 백성들은 유배 온 사람을 마치 큰 독을 지닌 사람인 듯 보아 가는 곳마다 모두 문을 부수고 담장을 무너뜨리면서 달아나 버렸다. 그런데 한 노파가 나를 불쌍히 여기고 자기 집에서 살도록 해주었다. 그때부터 나는 창문을 닫아걸고 밤낮으로 혼자 앉아 있었다. 누구와도 함께 이야기할 수 없었다” 「상례사전서(喪禮四箋序)」 (박석무, 2022, p.382).

유배 초 강진에 도착했을 때, 역적 죄인이라고 아무도 정약용을 가까이하려 하지 않았으나 주막집 노파가 잠을 재워주고 먹을 것을 제공해 주어 정약용은 기거할 곳을 마련할 수 있었다. 주막집은 비록 바람과 비를 막아주는 비좁은 토담집이었지만, 노파의 도움이 있었기에 정약용은 그 당시 유배길에 오르면서 지쳐있었던 몸과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이후 노파의 주막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살던 아전들의 자식들이 정약용에게 교육을 받기 위해 찾아오면서 정약용은 이곳을 ‘사의재(四宜齋)’ 라고 명명하여 학문의 요람으로 삼았다(박석무, 2022, p.386).

3) 가족 의사소통 과정

좋은 의사소통은 가족 기능에 필수적이다.

의사소통 과정은 가족 구성원들이 위기와 역경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보교환을 하는 기능을 의미한다. 의사소통이 모든 가족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 레질리언스를 강화하려는 개입 노력은 가족 구성원이 욕구와 관심사를 표현하고 반응할 수 있고, 위기 시에는 새로운 요구충족을 위해 체계변화와 협상할 수 있는 능력향상에 초점을 둔다.

<표 12>은 정약용의 가족레질리언스 중 가족 의사소통 과정을 분석하여 정리한 표이다.

<표 12> 정약용의 가족 의사소통 과정

하위요인	내용
명료성	① 명확하고 지속적인 말과 행동의 메시지 ② 애매한 것을 정확하게 말하기
개방적인 정서표현	① 기쁨과 고통 ② 자신의 감정과 행동에 대한 책임
상호협력적 문제 해결	① 문제 예방 및 미래의 도전에 대한 준비 ② 문제에 대한 대안 제시

(1) 명료성

효과적인 가족 기능을 위해서는 의사소통의 명료성이 필수적이다. 건강한 가족의 의사소통은 직접적이고 명확하며, 구체적이고 정직하다. 가족 구성원들은 그들이 의미하는 바를 말하고, 그들이 말한 것을 의미한다. 메시지는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게 빗나가거나 간접적으로 전해지기보다는 의도했던 사람에게 바로 전달된다. 언어적, 행동적 메시지는 일관성이 있으며, 일치하고 또한 이해가 공유된다. 의사소통이 애매하고, 왜곡되거나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을 때 가족 구성원들은 오해와 혼돈을 일으킬 수 있다.

① 명확하고 지속적인 말과 행동의 메시지

“너희들은 어찌하여 여러 일가에서 황급히 달려와 너희들의 위급하고 어려운 일을 도와주길 바라는 것이냐? 남이 어려울 때 자기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서 남이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기만 바라는 것은 너희들이 지닌 그 나쁜 근성이 아직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석무, 2022, p.69)

“몸과 마음을 다해 남을 대할 줄도 모르면서 남이 먼저 자기에게 도움을 주기만 바라고, 가정에서의 행실을 잘 닦지 않고서 이웃 사람들의 칭찬이나 바라고 있으니 될 법이나 한 일이냐” (박석무, 2022, p.70)

정약용은 자녀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 잘못된 점은 분명히 알도록 명확하게 지적하여 그러한 행동을 하게 한 원인이 무엇이고 또 그러한 행동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 정확히 알려주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직시하게 하였다. 어려운 처지에 처한 자신들을 친척들이 돌봐주지 않음에 섭섭해하는 것을 보고, 남의 은혜를 받고

자 하는 생각을 버리면 저절로 마음이 편안해지고 누군가를 원망하는 병통은 사라질 것이라고 조언한다. 그리고, 원망을 품지 말고 미루어 용서하는 마음으로 도움을 줄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도와줄 힘이 미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원망하는 소리를 절대로 입 밖으로 옮기지 말아야 함을 이야기한다. 정약용이 자녀들에게 전달한 가족과 친척의 화합에 관한 이러한 메시지는 명료하고 간결하여 자녀들이 자신들의 행동을 스스로 점검하여 수정하도록 하는 가르침을 주었다.

② 애매한 것을 정확하게 말하기

“그는 나를 모욕해도 좋은 폐족으로 여겨 먼저 편지를 보내지 않는데 내가 이제 머리를 치켜올리고 얼굴을 우러르며 동정을 받으려 애걸하는 편지를 먼저 보내야 한다니 천하에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느냐?” (박석무, 2022, p.142)

“남들이 이 아버지를 짐승처럼 업신여기고 있는데도 너희들은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비굴한 짓을 하라고 보채며, 저들이 비웃으며 찔찔맞게 하는 말들을 감히 내게 전한단 말이냐” (박석무, 2022, p.146)

정약용은 큰아들 학연이 아버지의 귀양을 풀어보고자 당시 요직에 있던 세력가에게 접근하여 행하였던 행동을 보고 자신의 생각을 명백하고 단호하게 표명하여 전달하였다. 아들이 귀양을 풀어보고자 애쓰는 이 문제를 애매하게 받아들여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당위적이고 명료하게 설명하기에 이른다. 옳고 그름과 이롭고 해로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렇게 된 상황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며 마음을 편히 갖고 세월을 기다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여 귀양의 고통도 순순히 받아들이겠다고 자신의 생각을 정확히 전달하였다.

(2) 개방적인 정서표현

적절하게 잘 기능하는 가족들에게는 구성원들의 광범위한 감정, 이를테면 사랑과 감사, 희망, 행복, 위로, 기쁨부터 분노, 공포, 슬픔, 절망 등의 고통스러운 감정까지 자연스럽게 표현되고 각 구성원들은 이를 관대하게 수용할 수 있다. 가족 구성원들이 화를 내거나 충족되지 않는 욕구를 표현할 때, 다른 사람들은 말과 행위 모두로 반응함으로써 감정이입의 관심을 최대로 보여줄 수 있다.

잘 기능하지 못하는 가족에서는, 공포와 불신의 분위기는 비판과 회유, 비난, 속죄양 만들기를 통해 존속된다(Satir, 1988). 정서적 표현은 격양되고, 공격적이며, 비판적이 된다(Bowen, 1978; Walsh & Anderson, 1988).

① 기쁨과 고통

“초가 주막 새벽 등불 푸르스름 꺼지려는데/ 일어나 셋별 보니 이별할 일 참담해
두 눈만 말뚱말뚱 돌이 다 할 말 잃어/ 애써 목청 다듬으나 오열이 터지네” (박석
무, 2022, p375).

정약용은 1801년 중형 정약전과 함께 유배길에 올라 나주읍 밤남정이라는 주막거리
에서 형님과 영원한 이별을 앞두고 한스러운 마음을 애절하게 나타내었다. 정약전
과는 세상에 하나뿐인 지기(知己)로서의 애뜻한 마음을 강조하며 평생을 학문연구
에 대한 뜻을 나누며 우애를 쌓아갔다. 정약전의 죽음 이후에는 아들들에게 편지하
여 심오한 학문과 정밀한 지식을 두루 갖춘 분을 자식과 조카가 알아주지 못하였음
을 안타까워하는 감정을 표현하여 함께 슬퍼하며 비통해했다.

“천 리 먼 길에 종 아이가 가져온 편지 받고/ 초가 주막 등잔 아래서 홀로 긴 한
숨이라/ 어린 아들 학포조차 아버를 닮았건만/ 병든 아내 옷 꿰매 보냈으니 여전히
남편 사랑하나 봐/ 음식 기호 생각해 멀리 찰밥 싸서 보내고/ 굶은 사람 구하려고
철투호를 새로 팔았다네/ 답장 바로 쓰려 하니 달리 할 말 없어/산뽕나무나 수백
그루 심으라 채근했지” (박석무, 2022, p390).

정약용과 가족들은 편지로 서로의 안부를 물어 감정을 공유하며 유배 기간을 지내
왔다. 아내와 아들들의 편지와 숙부의 편지를 받고 자신을 생각해 주는 가족들의
온정을 느끼며 기뻐하는 감정을 기록하였다.

‘가신 이의 그리움’ 46)에서는 유배 생활로 인한 자신의 병세를 고통스럽다고 호소
하면서도 어린 딸과 아들의 병세가 날로 악화되어 가는 것에 대한 걱정을 서로 나
누었다. ‘막내아들이 죽다니’ 47)에서는 자식의 죽음에 간장을 후벼파는 비통함을
절절히 표현하면서도, 이를 감당해 내야 하는 아내의 고통을 애달파 하며, 다른 가
족에게 마음과 뜻을 다 바쳐 자식 잃은 어미의 마음을 헤아리도록 고운 태도와 부
드러운 낮빛으로 매사를 기쁘게 해드려 슬픔에서 빨리 회복하도록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고 하였다. 가족에게 닥친 사건이나 사고들로 인해 경험하게 된 감정들을 서로
솔직히 표현하여 감정을 공유하고 이를 건강하게 회복하도록 가족 모두가 기능적으
로 대처하도록 하였다.

46) 정약용, 박석무 역, 2021, p.38.

47) 정약용, 박석무 역, 2021, pp.132-133.

② 자신의 감정과 행동에 대한 책임

“옛날에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와 남거(南居) 한공(韓公) 48)은 특별히 사이좋은 벗이었는데 두 분 모두 효자였다. 또한, 옛날 우리 할아버지와 사곡(沙谷) 윤정자공(尹正字公)49)도 아주 사이좋은 벗이었는데 그분들도 효자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살아 계셨을 때 훌륭한 명성을 잃지 않으셨다. 나에게 이르러서는 벗을 고르는 일이 바르지 못하여 화살 끝을 갈고 칼날을 버리며 서로 시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옛날 친하게 사귀던 사람들이었기에 이 점을 반성하고 있다” (정약용, 박석무 역, 2021, p.156).

“ 이 늙은 아버가 세상살이 오래 경험하였고 또 어렵고 험난한 일을 고루 겪어보아서 사람들의 심리를 두루 알고 있다. 무릇 천륜(天倫)에 야박한 사람은 가까이해서 안되고 믿어서도 안 되며, 비록 충직하고 인정 있고 부지런하고 재빠르게 온 정성을 다하여 나를 섬기더라도 절대 가까이해서는 안 된다. 이들은 끝내 은혜를 배반하고 의리를 잊어먹고 아침에는 따듯이 대해주다가도 저녁에는 차갑게 변하고 만다” (정약용, 박석무 역, 2021, pp.155-156).

정약용은 자신의 사적 관계 맺기에 대한 잘못됨이 있었음을 아버지나 할아버지와 비교하여 되짚어보았다. 이에 과거 관계를 맺어 잘 지내왔던 사람들이 훗날 적이 되어 자신의 앞길에 비수를 꽂는 현실을 마주하면서 고통을 경험하기도 했지만 이러한 일에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옛 친구들을 생각하며’에서도 유배된 이후로 절친하던 친구들이 모두 끊어졌고, 사람들이 헌신짝처럼 자신을 버리고 말았음에 마음 아파하고 이러한 경험을 ‘친구를 사귄 때 가려야 할 일’에서 드러내어 자녀들에게 어떤 친구를 사귀어야 하는지 자신이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좋은 사람을 가려 사귄 수 있도록 이야기하였다.

(3) 상호협력적 문제 해결

효과적인 문제 해결 과정은 가족 기능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갑작스런 위기나 지속적 도전을 다루는데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Epstein 등(1993)은 효과적인 문제 해결과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우선, 가족 구성원들은 문제를 인정하고 문제에 관여된 사람 및 잠재적 자원이 될 수 있는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호협력적 브레인스토밍은 문제의

48) 정약용 아버지의 친구인 한광부(韓光傅)의 호

49) ‘사곡’은 정약용 할아버지의 친구인 윤명상(尹命相)의 호. 승문원 정자를 지내서 ‘윤정자공’이라고 한 것이다.

경중을 고려하여, 가능한 대안 및 자원, 압박과 계획 결정에 대한 검토를 가능하게 한다. 그 다음은 행동을 개시하여 수행하고 노력을 점검하고 성공을 평가해야 한다. 기능적 가족은 문제를 가장 효율적으로 해결해낼 수 있다. 의사소통, 의사결정과 행동을 순차적으로 유연하게 할 수 있다.

① 문제 예방 및 미래의 도전에 대한 준비

정약용은 비록 유배 생활하는 동안에는 죄인의 처지여서 드넓은 곳에서 생활하지 못하지만, 곧 가문의 위상도 회복하고 자녀들이 학자로서 기세를 펼칠 방안도 조밀하게 계획하여 실천하도록 하였다.

“진정으로 바라노니, 너희들은 항상 심기를 화평하게 하여 벼슬길에 이르러서는 사람들과 다르게 생활하지 말거라. 아들이나 손자세대에 이르러 과거에 응시할 수 있고 나라를 경륜하고 세상을 구제하는 일에 뜻을 두도록 마음을 먹어야 한다. 천리(天理)는 돌고 도는 것이니 한번 넘어졌다고 결코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하루아침의 분노를 이기지 못하여 서둘러 먼 시골로 이사 가버린다면 무식하고 천한 백성으로 일생을 끝마치고 말 뿐이다” (정약용, 박석무 역, 2021, pp.174-175).

“네 학문도 점점 때를 넘기고 있는데, 너는 집안 사정으로 봐서는 집을 떠나 유학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중략) 너도 허송세월을 해서는 안 된다” (정약용, 박석무 역, 2021, pp.61-62).

정약용은 집안이 화를 당했다고 하여 먼 곳으로 도망가서 살게 되면은 문명의 혜택이 닿지 않아 보고 듣는 것이 실속 없고 비루한 이야기뿐이라 영영 다시 돌아오기 힘들다고 하였다. 사람은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미래를 생각해서는 문명세계를 떠나지 말아야 한다고 하여 가세가 살아나면 서울 근교로 나아가 여러 가지 선진문물을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자녀들 학문의 정진 상태를 점검하고 대학자로서 이름을 떨칠 것을 기대하여 이를 행하기 위해 실천해야 할 것들에 대해 제시하였다. 현재 상황을 파악하여 점검하고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목록으로 나열하여 위기태세를 전환 시켜 미래를 준비하도록 대안을 설정하여 실천해나가는 방법으로 가문의 부흥을 이루어 나갈 준비를 하였다.

② 문제에 대한 대안 제시

정약용은 18년이란 긴 시간을 가정경제를 돌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족의 생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사대부의 신분으로 자녀들이 장사를 하거

나 의원행세를 하는 것도 탐탁치 않게 여겼다. 이러한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사대부의 체면을 지키면서 생계도 꾸릴 수 있는 방도를 해결책으로 제시한다.

‘과일·채소·약초를 재배하도록’ 50) 에서 국화 한 이랑은 가난한 선비가 몇 달 동안 먹을 식량이 될 수도 있다고 하면서 많이 가꾸어 활용을 잘 하면 살림에 도움이 된다고 제시하였고, ‘뽕나무의 효과’ 51) 에서는 과일을 파는 일은 본래 깨끗한 명성을 남길 수 있지만, 장사에 가까운 것이라 삼가지만, 뽕나무를 심어서 누에 치는 일은 선비로서 명성을 잃지 않으면서 큰 이익도 얻을 수 있는 일이라 하여 적극적으로 권하였다.

정약용의 생애에 나타난 가족 레질리언스를 살펴본 결과, 가족신념체계에서 정약용은 자신의 삶을 위태롭게 만든 역경 앞에서 이러한 고통의 시간을 마주하게 된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역경에 의미를 부여하여 위기의 순간들을 유연하게 이겨 냈다. 정약용은 역경을 학문적 성장을 위한 가치 있는 시간으로 받아들여 학자로서의 학문적 깊이를 더하고 벼슬하는 동안 하지 못했던 저술작업에 몰두하여 방대한 분량의 저술을 편찬하게 되었고, 자신만의 학문적 토대를 완성하여 많은 제자를 길러내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신념체계를 자녀들에게도 전수하여 폐족이 되어 과거를 통해 벼슬길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 학문연구에 몰입하게 하였다. 이러한 의미 있는 행동들이 학자로서의 학문성취를 이루게 하여 가문의 부흥을 기대할 수 있기에 오히려 기회의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정약용은 역경을 긍정적 시각으로 바라보며 괴로움이란 것이 영원히 지속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기대하여 고통의 시간에 매몰되어 있지 않고 용기와 격려를 통해 자녀들이 자신감을 회복하여 학문연구에 매진하도록 하였다. 또한, 정약용은 큰 가치와 목적을 위한 초월적 신념을 통해 자기 성찰을 위해 마음공부와 인위적 인간세계가 아닌 스스로 그러한 자연의 세계에 심취하여 현실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였다.

가족 조직과정에서 정약용은 안정성과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여 역경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였다. 가족과 떨어져 유배 생활을 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생계문제를 융통성을 발휘하여 재조직하였다. 사대부 명문가 집안의 품격에 위배 되지 않도록 국화를 재배하거나 양잠을 한 소득으로 생계를 이어가도록 하였고, 자신은 유배지에서 제자들을 가르쳐 받은 이윤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몸은 비록 떨어져 있지만, 가문의 책임자로서 가족윤리를 확립하여 가족들이 분리되지 않고 결합하기 위해 행동하였고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결핍을 느끼지 않도록 서간으로 자식들에게 사랑과 가르침을 전달하여 자녀교육에도 힘썼다. 물리적으로 떨어져 지냈지만, 정약용은 가족과 연결되어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였다. 사회 및 경제적 자원의 적절한 활용은 정약용의 유배 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친가와 외가의 우수한

50) 정약용, 박석무 역, 2021, pp.73-74.

51) 정약용, 박석무 역, 2021, p.210.

집안 배경은 어릴적부터 정약용에게 많은 경험과 폭넓은 사람들을 만남으로써 학자로서의 자질과 학문적 발판을 넓혀 가는데 유리하게 작용하였고, 경제적으로 윤택한 처가는 유배 생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도움을 주었다. 먼 친척 관계에 있는 윤씨 일가의 경제적 도움으로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생활면에서 도움을 받았지만, 무엇보다도 자신의 학문의 입지를 다지고 넓히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윤씨 일가의 도움으로 정약용의 가르침을 받으려 하는 제자들을 모을 수 있었고 제자들로 인해 자신의 학문적 기반을 갖추고 수많은 저서를 편찬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학문 업적은 유배지 강진을 다산학의 산실로 만든 결과를 가져왔다.

정약용의 가족 의사소통 과정은 가족 기능을 활성화하는 명료성과 개방적인 정서표현으로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고 문제 상황에서는 합리적인 해결방법을 찾아 대안을 제시하고 미래의 도전에 준비하는 자세를 취했다. 모호하고 애매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고 지속적인 메시지로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표명하였다. 또한, 유배 상황에서 자신이 느끼는 감정들과 서간을 통해 가족의 소식을 전해 듣고 느끼는 감정을 개방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가족 구성원들과 상호감정이입으로 가족애를 형성할 수 있었다. 문제 상황에서는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해 최선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가족들과 함께 상호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였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제시에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대안을 적용한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주고받았으며,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미래의 도전에 대한 준비 자세를 겸하는 합리적인 행동으로 대처하였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되는 현대 사회에서 수많은 어려움에 놓여 있는 현대인들에게 역경이 왔을 때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를 다산 정약용의 역경의 삶을 통해 살펴보았다. 정약용의 생애사를 통해 위기와 역경을 극복한 힘의 원천인 성격강점과 가족 레질리언스를 생태체계를 기반으로 살펴보았으며, 본 연구의 목적은 다산 정약용이 역경을 극복하고 실현한 행복한 삶이 건강 가족의 긍정모델로 작용하여 다양한 위기와 역경을 마주한 현대 가족들에게 개인이 처한 위기상황을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가족의 안정성과 건강성을 회복하는데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이 과거 역사 속의 인물인 이유로 문헌을 통한 내용분석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Peterson과 Seligman(2004)의 VIA분류체계를 사용하여 정약용을 역경에서 벗어나게 해준 성격강점이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둘째, ‘환경 속의 인간’에 기초한 생태체계 관점으로 인간이 생활하는 환경들과 발전적으로 상호조절하는 과정에 관심을 가지는 생태체계이론의 한 분야인 Kemp(2001)의 미시수준(개인체계), 중간수준(가족체계), 거시수준(사회체계)을 적용하여 정약용의 생태체계를 살펴보았다.

셋째, Walsh(1998)의 가족 레질리언스 구성요인을 적용하여 정약용의 가족 레질리언스가 어떤지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약용의 생애를 네 시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출생에서 성장하여 15세에 상경해 22세에 소과에 합격하면서 성균관에 입학 후 28세에 대과에 합격하여 문신으로 뽑히기까지의 수학기로 체제공, 이가환을 비롯하여 이승훈, 권철신 등과 교우하고 이들과 성호 이익의 유고에 접하여 유학을 사상적 토대로 형성한 시기이다. 다음은 사환기로, 초계문신으로 발탁되어, 실학자로 성장해 나간 시기이며, 유배기는 천주교 문제로 정치에서 물러나 경상도 장기와 전라도 강진으로 18년을 집을 떠나 귀향 간 시기이고, 마지막 시기는 해배 이후의 시기로, 유배에서 풀려나 75세로 세상을 마칠 때까지의 평정을 찾고 학문과 사상을 정리해 실학자로 완성된 시기이다. 정약용은 사환기에 정조의 총애를 한 몸에 받으며 학문적 입지를 다지고 수원화성을 건설하는 등의 커다란 기술적 업적을 남기기도 했지만, 이벽과 이승훈 등과 접촉하여 천주교에 입교하면서 정치적 발판에 커다란 장애를 만나게 되어 유배라는 역경의 삶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유배기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든 시기였지만, 정약용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였음을 알 수 있다. 유배기는 정약용에게 있어 역경의 시기였지만, 정약용의 사상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하고 현실을 통해서 실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한 학문과 사상의 원숙기로 작용한 결과를 낳았다. 이 시기 동안 정약용은 학문연구와 당시의 사회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통해 실학을 집대성하고 유배지 강진은 정약용의 학문의 산실로 자리 잡아 후대에 길이 남을 500여 권의 저서를 완성한 요지가 되었다.

둘째, 정약용의 생애에 나타난 역경을 살펴보았다.

정약용의 삶에 있어 역경은 잠시나마 이벽과 이승훈에 의해 천주교에 대한 서적을 받아 읽고 함께 천주교에 대해 관심을 가졌던 것에서 비롯되었다. 정약용의 외종형 윤지충이 어머니상을 당하고 신주를 불사르고 제사를 지내지 않아 발생한 신해년(1791년) 진산사건은 당시 수백 년 동안 유교의 윤리적 논리로 국가 체제가 유지되어왔고 국가 이념이 유교인 지배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여겨져 천주교를 엄한 법령으로 다스려 국가 질서를 바로잡고자 하는 지배층의 행동으로 이어졌다. 이후, 책룡사건과 신유옥사가 거듭되면서 천주교에 대한 탄압은 더욱 거세어졌고 이와 더불어, 정치적 배경을 달리하던 반대파 공서파의 정치적 공격이 가세해 상황은 갈수록 정약용에게 위협적이었다. 더구나 이러한 상황에서, 정약용을 보호해주었던 재상 채제공과 임금 정조의 승하에 정약용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학자로서 또한, 충신으로서 인정하고 격려해주었던 두 사람의 죽음은 정신적 심리적으로 정약용을 더욱 고통에 내몰리게 하였다. 결국, 천주교 탄압으로 인한 정치공세에 내몰려 18년의 긴 유배 생활을 해야만 했던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겪게 된 짧은 생을 마감한 자식의 죽음과 평생토록 지기로서 존경한 정약전 중형의 죽음을 거듭 경험하게 되면서 정신적으로 참담하고 피폐한 삶을 마주하게 되었다. 천주교 탄압으로 시작되어 자신의 가치를 알아주고 인정해 준 존경하는 재상과 임금의 죽음,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을 차례로 맞이하면서 역경의 삶을 이어간 18년의 유배 생활은 정약용의 생애에서 견디기 힘든 고통과 시련의 시간이었다.

Tedeschi와 Calhoun(1996)은 역경을 “인간이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도전적인 상황과 그에 대한 투쟁의 결과로 얻게 되는 긍정적 심리적 변화”로 Post-Traumatic Growth(PTG)라고 하였고 경험하게 되는 사건 자체의 객관적 특성보다 그 사건에 대해 개인이 가지게 되는 인식과 심리적 반응이라고 하였다. 역경을 겪으면서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이런 경험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위해 끊임없이 회상과 음미를 반복하게 되며, 역경 사건 초기에는 역경 상황에 대한 반추가 자동적이고 침투적인 특징을 지닌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 공개나 사회적 지지 경험들이 반추와 상호작용하면서 긍정적 작용으로 활성화되어 어느 순간 역경이 자신의 삶에 대한 자의적인 성찰과 통찰의 과정으로 진보하는 것이라고 보았다(Tedeschi & Calhoun, 1996, 2004; 임선영 재인용, 2013).

권석만(2008)은 역경과 고통의 의미는 우리의 인생과 삶을 재평가하게 만들고, 이를 통해 개인에게 새로운 변화와 성장과 같은 긍정적 역할로 변화가 촉진된다

고 하였다. 정약용은 역경이 자신에게 왔음을 인지했을 때, “이제야 겨를 얻었다’라고 긍정적으로 인식하여 받아들이고 통찰과 성찰의 자세로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를 계획하고 실천하였다. 그러한 결과로, 학자로서 정약용은 성호의 학문을 이어받고 북학파들의 학문과 사상을 이어받아 종합하여 집대성한 학문체계를 완성했다.⁵²⁾ 또한, 가문의 재건도 이루었다. 1852년 큰아들 정학연에게 선공감 감역(監役)⁵³⁾이라는 중9품의 벼슬이 제수되어 마침내, 폐족에서 청족으로 복귀되는 경사를 맞이했다. 이를 이어 정학연의 아들이자 다산의 장손(長孫) 정대림은 진사과에 급제하여 선릉 참봉을 지내면서 집안의 가통을 계승하였고, 그를 이은 아들(계자) 정문섭(丁文燮)은 문과에 급제하여 증조할아버지 다산이 역임했던 승지 벼슬에 올라 집안의 명예를 완전히 회복하기에 이르렀다. ⁵⁴⁾ 역경이 있고 나서의 성장은 인간이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환경에 대한 매우 도전적인 투쟁의 결과가 얻어지는 것이다. 삶의 변영은 역경의 다음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Brown et al. 2017).

정약용은 오히려 역경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자각하고 성찰하여 자기가 가진 잠재력을 충분히 발현할 수 있도록 하여 성장의 결과를 이루어 냈다. 삶에서 역경이나, 또는 일상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개인이 문제를 대하는 태도는 매우 중요하다. 자신이 처한 환경을 주의 깊게 살피고 조망하여 위기를 기회로, 그리고 난관을 자기 성장의 계기로 받아들이는 관점은 앞으로의 삶에 대한 긍정적 변화를 유도한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역경에 노출될 가능성은 매우 많다. 따라서, 이런 역경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거나 스스로 회복해 나가는 건강한 내적 힘과 성장의 가능성을 주목하고 갖출 필요성이 대두된다. 바람직한 삶에 대한 방향성을 갖춘 인물을 본보기로 삼아 타인의 삶을 들여다보며, 자신의 행동을 반추하고, 건강하고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정립해 나가는 자기 발전을 위한 개인의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정약용의 역경을 통해 본 성격강점을 살펴보았다.

Peterson과 Seligman(2004)의 VIA분류체계를 사용하여 분석한 정약용의 성격강점은 여섯 개의 덕목에서 골고루 나타났다. 역경을 극복하고, 오히려 성장을 위한 기회로 삼아 행복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중요하게 작용한 대표강점은 학구열, 끈기, 사랑, 이타성, 시민의식, 신중성, 자기조절, 낙관성과 심미안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일시적인 행운보다는 경험에 기반을 두고 형성되는 폭넓은 강점은 역경에 제대로 맞설 수 있는 요소가 된다(Brown et al. 2017). 강점은 역경을 경험함으로써 확장될 수 있다. Niemiec(2019)은 역경과 관련한 성격강점의 세 가지 기능을 제안하였다. 첫째는, 완충(buffering)의 기능으로써, 역경 이전에 성격강점의 활

52) 박석무, 2022, p.553

53) 학자나 선비에게 초직으로 내리는 깨끗하고 귀한 벼슬로 ‘징사徵士(임금의 부름을 받는 선비)’라고 하여 조선시대 선비들이 몸을 닦고 학문을 익히는 이유중의 하나가 징사가 되는 일이었다.

54) 박석무, 2022, pp.608-609.

용은 문제를 예방하는 효과를 갖는다. 둘째, 역경 동안 문제를 설명하거나 재해석 해주는 재평가(reappraisal)기능과, 셋째 역경 이후 회복을 촉진하는 탄력성(resilience)의 기능을 갖는다.

정약용이 지닌 이러한 대표적인 성격강점은 역경을 견디고 극복하는데 긍정적인 자원으로 작용하였다.

성격강점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부적 영향을 완화 시키고 역경에서도 긍정성을 유지하게 하여 적응적이고 효과적인 대처를 촉진 시킨다. 또한, 역경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성격강점 자체가 계발되거나 함양된다고 하였다. 개인이 가진 강점은 어려움이나 역경을 이겨 나갈 수 있는 내적 자산이 된다. 이에 자신의 강점을 개발하고 발견하여 키워나가는 것과 동시에 자신의 성격강점을 활용해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삶에 대한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현대사회는 지역마다 여러 기관에서 대상자의 욕구에 따라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지원되고 있다. 문제해결 능력이 취약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에게 성격강점을 무료로 실시하여 자기의 대표강점을 파악하고 계발하는 서비스를 보급하고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개인 역량을 강화시키고 자기 성장의 발판을 도모한다면 위기상황을 유연하게 대처하는 문제해결 능력이 강화될 것이다.

넷째, 정약용의 생태체계를 Kemp의 3수준 이론을 적용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정약용의 개인체계는 아버지와 학자로서의 개인적 역할과 행동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았다. 유배지라는 제한된 환경에서 물리적으로 떨어져 홀로 지내면서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되자 서간을 주고받으며 충실히 아버지 역할을 이행해나갔다. 학자로서의 정약용은 유배 생활을 학문을 하기 위한 시간으로 삼고 그동안 시간적 여유가 없어 할 수 없었던 깊이 있는 학문연구에 몰두하여 학자로서의 업적과 기반을 형성하였다.

가족체계는 친가와 외가 모두 훌륭한 집안으로 명성을 지니고 있었고 이러한 집안 배경은 정약용이 목민관과 학자로서의 태도 및 행동을 익히는데 도움을 주었다. 운택한 처가의 경제적 도움 또한, 어려운 역경을 이겨 내는데 필요한 소중한 자원이 되었다. 그렇지만, 집안에 천주교에 연루된 자들이 대거 나오게 되면서 가문의 지위가 폐족으로 떨어지는 상황을 겪었다.

사회체계는 사회적 친분관계와 시대적 배경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정약용이 강진에서 유배 생활을 하면서도 사회적 관계자원의 도움으로 생활면에서도 편하게 지낼 수 있었고 정약용이 가진 학자의 수준을 높이 추앙한 주변 지지체계의 도움으로 제자들을 모으고 이들로 인해 저술 편찬 등 학문의 발전에도 도움을 받았다. 사회적 지지는 개인을 둘러싼 가족, 이웃, 친척, 친구, 지인, 동료 등으로부터 다양한 정서, 정보, 지식, 물질 등의 도움을 제공 받을 수 있는 체계라고 할 수 있다(정재갑, 2020). 인간의 삶에서 사회적 관계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이러한 관계에서 형성되는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는 삶의 만족도를 높여

주며, 정서적·심리적 안정과 건강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사회적 지지의 필요성이 점점 증대되고 있다(강신기, 2014). 그러나, 시대적 배경은 정약용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였다. 집권층의 치열한 당파싸움은 반대파 정약용에 대한 공격을 더욱 거세게 내쳤고, 당시 조선 사회를 지배했던 유교 관념과 성리학의 이념은 천주교에 대한 탄압이 더욱 거세지도록 작용하였다. 정약용의 개인체계는 힘든 유배지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아버지 역할과 학자로서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충실히 역할수행을 하도록 주어졌기에 역경을 이겨 낼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가족체계는 자신의 과오로 인해 폐족으로 떨어진 가문의 위상을 찾고 재건해야 함을 과제로 안고 가문의 분열을 막고 가족들을 응집시키기 위해서라도 역경을 극복해야 하는 것으로 여겼다. 사회체계에서는 관계자원의 지지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받았지만, 당시의 사회적 배경은 개인이 이겨 내고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약용의 생태체계를 분석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어려운 난관에 직면했을 때, 미시체계, 중간체계에서 강점자원과 관계자본의 지원을 받아 위기를 극복해 나가더라도, 거시체계에서 정치와 사상을 토대로 형성된 이데올로기 및 문화적 배경 등의 장벽을 개인이 이겨 내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미시체계는 개인의 특성과 연관 있는 것으로 개인의 생물학적 특성을 포함하여 심리적 사회적 특성을 포함한다. 사람은 미시체계 내에서 가족이나, 친구, 이웃과 동료 등 다양한 구성원들과 직접 접촉하여 상호작용을 한다. 따라서, 이들과의 관계에서 건강한 관계 맺음을 통한 개인의 효능감 및 자아존중감을 긍정적으로 형성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위기나 역경에 직면했을 때, 기능적인 활동이나 역할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중간체계는 미시체계들이 서로 연결되어 이루어진 체계이다. 가족이나 친구 및 직장 동료 관계 등의 사회적 관계로 이러한 체계들 사이의 관계가 긴밀할수록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 하였다. 사회적 지지는 고난에 직면했을 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지닌다. 기능적이고 건강한 소통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관계 맺음의 중요성을 이해하여 사회적 체계를 넓혀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거시체계는 개인에게 매우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에 현대 사회에서는 거시체계가 가진 국가의 법률적, 제도적 한계로 인해 개인에게 야기되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다양한 정책 제도마련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다섯째, 정약용의 가족 레질리언스를 Walsh의 가족 레질리언스 구성요인을 적용하여 살펴보았다.

가족신념체계에서는 어려운 고비로 주어진 역경에 대해 학문을 하기 위한 기회와 시간과 추락한 가문의 재건을 위해 힘써야 할 시간으로 의미를 부여하였다. 긍정적 시각에서는 즐거움과 괴로움은 결코 다른 것이 아니라 즐거움이 있으면 괴로움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니, 평정심을 가지고 대해야 한다는 사고의 전환

과 고난과 어려움도 이겨 낼 수 있다는 용기와 격려를 통한 자신감을 자녀들에게 불어넣었다. 초월과 영성에서는 삶에서 더 큰 의미를 찾고자 하는 초월적 신념을 가지고 자기치유를 통한 마음공부와 아름다운 자연의 세계에 심취하여 역경의 고통을 이겨 내고자 하였다. 가족조직과정에서는 역경을 맞이한 돌발적 상황에서도 융통성 있게 변화에 대응하여 균형과 안정성을 찾고자 하는 상황이 드러났다. 역경의 상황에서도 가문의 책임자로서 정약용은 융통성을 발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선비로서 경제생활의 이윤을 품격있게 취하는 방법과 유배지에서 자신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적극적인 생활인의 자세를 취하여 어려움이 없도록 미리 계획하였다. 아버지의 부재를 느끼지 못하도록 가족들과 연결되어 부권의 책임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고 사회 및 경제적 자원으로 우수한 집안배경과 경제적으로 윤택한 처가의 도움, 사회적 지지자원의 도움은 역경을 이겨 내는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였다. 가족 의사소통 과정은 애매하고 모호하여 상대방의 행동에 혼란을 가져다주지 않도록 단호하고 명료하게 가족들과 소통하였고 유배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자신의 감정에 대해 솔직하고 개방적인 표현으로 정서를 나누었다. 해결해야 할 문제 상황에서는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환류 과정을 거쳐 상호협력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취하였다. 정약용은 18년이란 유배기 동안 물리적으로 가족과 떨어져 지냈지만, 가족이라는 지지체계는 역경을 극복해야만 하는 근거가 될 정도로 중요한 연결고리였다. 정약용은 여러 가지로 제한된 환경인 유배지에서조차 가족들과 자녀들을 위해 서간을 통해 가족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놓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정약용의 가족 레질리언스는 문제 상황에서 문제를 직시하고 문제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의 긍정적 전환을 통해 가족의 건강성을 강화시키고 회복하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 시대가 급변하면서 다양한 가족 형태가 등장하게 되었고, 이와 더불어 가족의 중요성이 간과되는 현실을 마주하게 된 시점이다. 외부 환경의 변화 및 고난이 가족 체계에 미치는 영향은 가족 레질리언스가 작동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가져온다. 역경과 위기상황에 탄력적으로 적응하는 능력의 부족은 가족 레질리언스 강화교육 및 프로그램 지원의 서비스 요구를 기대한다. 또한, 개인의 건강한 레질리언스는 가족 기능과 역량을 강화시키고, 상호관계 및 사회적 지지형성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가져온다.

정약용은 아버지로서, 학자로서, 가문의 대표자로서 건강하고 기능적인 역할과 행동을 통해 개인과 가족에게 당면한 위기와 역경을 해결하였다. 정약용이 가진 긍정자원과 역경을 대하는 태도는 위기에 처한 가족의 운명과 미래를 건강하게 기능하도록 변화시켰다. 가족 해체 현상이 사회문제로 부각 되면서 가족의 건강성에 대한 문제가 중요하게 나타났다. 역기능적인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지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적절한 사회적 문제를 완화 시키고 건강한 가족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절실하다. 각 가정의 구성원들이 주체적이고 기능하는 가족 구성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가족복지를 담당하는 기관에

서는 가족 역량을 강화시키는 새로운 서비스를 발굴해야 한다.

한 생명이 태어나 개인으로 나아가는 첫 출발점은 가족이다. 다양한 이유로 인해 개개인의 가족에게 처한 현실은 각기 다르겠지만, 가족 구성원으로서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자각하고 가족의 힘으로 가족에게 닥친 위기를 이겨 내는 가족 레질리언스의 중요성을 부각하여 건강하고 기능적인 가족체계를 확립해 나가야 하겠다.

본 연구는 급속하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어려움에 봉착한 현대인들에게 역경에 왔을 때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위인의 반열에 올라있는 정약용의 역경의 삶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가족학적 관점에서 현시대에 추앙받고 있는 위인의 역경을 극복한 삶의 생애사 연구를 진행하여 가족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가족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가족학적 관점에서 분석을 시도하였다. 가족학의 범주에서 나아가 정약용의 사상과 철학, 행정가, 학자의 영역에서도 다양한 연구가 진행된다면 정약용이라는 인물에 대한 깊이 있고, 폭넓은 연구가 완성될 것이라 사료 된다.

둘째, 역경을 극복하고 행복을 실현하는데 있어 성격강점의 중요성을 부각하여 현대를 살아가는 개인이 가진 성격강점을 개발하고 활용하여 개인과 가족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행복을 달성하도록 하는 성격강점개발프로그램의 보급 및 실시가 요구된다.

셋째, 역경을 이겨 낸 국내외 다양한 위인들의 연구를 활성화하여 학교현장에서 청소년들에게 폭넓은 위인의 삶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교육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강숙희. (2013). 국내 학위논문을 통해서 본 생애사 연구의 최근 동향. **교육연구**, 28(1), 1-22. <http://www.riss.kr/link?id=A105246569>
- 강신기. (2014). **중년층의 재무교육, 은퇴기대, 사회적 지지가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 강진영. (2014). **울산광역시 조손가족 손자녀가 지각한 역경과 가족 레질리언스에 관한 질적연구** [석사학위 논문, 울산대학교 일반대학원].
- 강재란, 안미순, 박양균. (2014). 청소년의 기질, 양육태도와 학교적응과의 관계에서 성격강점의 매개 및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21(10), 147-165.
UCI : G704-000387.2014.21.10.015
- 공진수. (2006). **아버지 됨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 곽은실. (2012). **가족레질리언스가 장애아동 부모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행정복지대학원].
- 권석만. (2008). **긍정심리학: 행복의 과학적 탐구**. 학지사.
- 권석만. (2011). **인간의 긍정적 성품: 긍정심리학의 관점**. 학지사.
- 권혜민. (2018). **알콜중독자가 지각하는 가족레질리언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생태체계관점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 금장태. (1999). **다산 정약용**.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금장태. (2005). **다산 정약용: 유학과 서학의 창조적 종합자**. 살림.
- 금장태. (2011). **다산평전: 백성을 사랑한 지성**. 지식과 교양.
- 김광수. (2019). **긍정심리학 성격강점 기반 인성교육: 아동과 청소년 행복을 위한 상담과 교육**. 학지사.
- 김광수, 김수연. (2014). 기타 초등교육: 성격강점기반 행복증진 프로그램이 초등 학생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효과. **한국초등교육**, 26(2), 261-277.
DOI : 10.20972/kjee.25.2.201406.261
- 김광수, 박효진, 김은향. (2014). 인기아동의 성격 강점 분석. **초등상담연구**, 13(3), 331-347. <http://www.kece.or.kr>
- 김광수, 한선녀. (2015). 성격강점을 활용한 아동의 인성교육 방안. **초등상담연구**, 28(1), 1-25. <http://www.kece.or.kr>
- 김광은, 윤유경, 권석만, 하승수. (2010). 긍정심리학적 관점에서 본 사관생도의 성격강점과 행복 및 생활적응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1), 233-248. UCI : G704-000523.2010.22.1.002
- 김경식. (1998). 생애사적 연구를 통한 고교 중퇴생 삶의 문화탐구. **교육사회학연구**, 8(1), 123-144. <https://www.soe.or.kr>

- 김규리. (2021). **중년여성의 생태체계 요인이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서울한영대학교 대학원] .
- 김동완. (2022). **오십의 주역공부**. 다산초당.
- 김미선, 박성희, 김진영. (2013). 청소년의 성격강점과 행복추구경향 간의 관계. **한국심리치료학회지**, 5(1), 53-71. <https://www-riss-kr/link?id=A105778113>
- 김미옥. (2001). **장애아동가족의 적응과 아동의 사회적응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교] .
- 김미준. (2017). **다산 정약용의 자녀교육에 대한 고찰: 유배지에서보낸 편지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
- 김미진, 황해익. (2015). 성격 강점에 기반한 유아교사의 행복증진 프로그램 적용 및 효과. **유아교육연구**, 35(5), 301-333. DOI : 10.18023/kjece.2015.35.5.014
- 김민옥. (2005). **정약용의 가정교육에 관한 연구: 두 아들에게 보낸 서간문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인대학교 대학원] .
- 김밀양. (2014). **위기가족 가족레질리언스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변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목포대학교 대학원] .
- 김선용. (1997). **개인성장 관계발달 가족기능화**. 중앙적성출판사.
- 김성숙. (2012). 예비유아교사의 성격 강점과 행복과의 관계. **유아교육연구**, 32(4), 35-53. DOI : 10.18023/kjece.2012.32.4.002
- 김수린. (2010). **여성결혼이민자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적 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
- 김안자. (2005). **가족레질리언스가 한부모가족의 가족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대학원] .
- 김영순, 김진희, 강진숙, 정경희, 정소민, 조진경, 임한나. (2018). **질적연구의 즐거움**. 창지사.
- 김영천, 정상원. (2015). 질적 연구방법으로서 문서분석. **교육문화연구**, 21(6), 253-285. DOI : 10.24159/joec.2015.21.6.253
- 김영천, 정정훈. (2003). 잔인한 3월: 한국 초등학교 초임교사의 3월의 삶에 대한 생애사연구. **초등교육학연구**, 10(2), 49-78.
<https://www-earticle-net/Article/A2037>
- 김영천, 한광웅. (2012). 질적연구 방법으로 생애사연구의 성격과 의의. **교육문화연구**, 18(3), 5-43. DOI : 10.24159/joec.2012.18.3.5
- 김완석, 김영진. (1997). 주관적 안녕 척도: 공동생활 및 활동과의 연관.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3(1), 61-81. <https://www.koreanpsychology.or.kr>
- 김은정. (2008). **가족레질리언스가 위탁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대학원] .
- 김지영. (2016). 성격강점과 행복의 관계: 초·중·고등학생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1(4), 845-859. DOI :10.17315/kjhp.2016.21.4.010

- 김지현. (2017). **신사임당의 생애사를 통해 본 가족레질리언스 분석** [석사학위논문, 울산대학교 대학원].
- 김춘경, 이수연, 이윤주, 정종진, 최용용. (2016). **상담학 사전**. 학지사.
- 김현정. (2023). **화가 이중섭 생애에 나타난 작품경향과 생태체계 및 가족레질리언스 연구** [박사학위논문, 울산대학교 대학원].
- 남현우, 김광수. (2015). 마음챙김 활용 성격강점 증진 프로그램이 아동의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효과. **청소년상담연구**, 23(2), 105-134.
DOI : 10.35151/kyci.2015.23.2.006
- 류정희. (1990). **다산의 자녀교육 연구: 가계와 서간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 류태호. (2000). **체육교사의 직업정체성 형성에 관한 생애사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민성은·최성호·김영천. (2017). 생애사 연구의 개념적 모형에 대한 이론적 탐색. **교육문화연구**, 23(1), 465-500. DOI : 10.24159/joec.2017.23.1.465
- 문용린, 원현주, 백수현, 안선영. (2008). 부모가 지각한 아동의 성격강점 및 덕목 분석. **인간발달연구**, 15(4), 17-35. <https://www-riss-kr/link?id=A104581724>
- 문원정. (2009). **대학생의 성격강점이 학업 성취도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대학원].
- 박미라. (2016). **장애아동 어머니의 역경과 개인 및 가족 레질리언스에 관한 생애사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울산대학교 대학원].
- 박미혜. (2019). 다산 정약용의 ‘스폰서’ 친족. **한국한문학회**, 74, 173-206.
DOI : 10.30527/klcc.74.201906.005
- 박병금. (2006).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관한 생태체계요인 탐색.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339-406. <https://www-riss-kr/link?id=T10344432>
- 박석무, 정해림. (2001). **다산시정선 상. 하**. 현대실학사.
- 박석무. (2014). **다산 정약용 평전: 조선 후기 민족 최고의 실천적 학자**. 민음사.
- 박석무. (2022). **다산 정약용 평전**. 민음사.
- 박석무. (2022). **한국실과교육연구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3-8.
- 박선희, 이지영. (2016). 정서노동 상황에서 서비스 접점 종업원들의 대인관계 강점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29(2), 203-232.
DOI :10.24230/ksiop.29.2.201605.203
- 박은아, 김원. (2015). 유아교사의 성격강점과 행복과의 관계에서 직무스트레스 대처 방식의매개효과. **교육치료연구**, 7(3), 545-562.
<https://www-riss-kr/link?id=A101730373>
- 박정윤. (2012). 위기가족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7(4), 35-62.
UCI I410-ECN-0102-2013-590-002121533
- 박주연. (2011). **가족탄력성과 사회적 지지가 한부모와 청소년기 자녀의 심리적**

- 복지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
- 박휴용. (2014). **초보연구자를 위한 질적연구방법론**. 전북대학교출판문화원.
- 박혜경. (2010). **일반계 고등학생의 성격적 강점이 학업성취와 주관적 행복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대학원] .
- 박혜란. (2014). **한국 중년기 가족 레질리언스 척도 개발 및 타당화** [박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
- 박혜란, 전귀연. (2012). 가족레질리언스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현황과 과제. **한국생활과학회지**, 21(6), 1059-1082.
- 박혜숙, 정민자. (2023). 정약용의 자녀 양육태도를 통해 본 아버지됨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4(3), 353-371. DOI : 10.22251/jlcci.2024.24.3.353
- 배광일. (2011). **출산의도 및 출산행동에 대한 생태학적 접근** [박사학위 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
- 배광일. (2017). 노인의 자살생각에 대한 생태체계적 접근: 전년도 자살생각 여부집단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9(3), 35-63.
UCI(KEPA) : I410-ECN-0101-2018-338-001396770
- 서미, 이자영. (2012). 역경,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이점발견이 청소년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9(12), 275-300.
UCI I410-ECN-0102-2013-330-002496677
- 서신자, 정민숙. (2013). 가족탄력성이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3(5), pp.262-274. DOI :10.5392/JKCA.2013.13.05.2
- 서유진. (2018). **낙관성과 감사, 역경후 성장의 관계:정서인식명확성과 조망수용의 조절된 매개효과** [박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대학원] .
- 서현실. (2021). **빌게이츠 생애에 나타난 성격강점과 가족레질리언스 및 가족 정서체계연구** [박사학위논문, 울산대학교 대학원] .
- 성태제, 시기자. (2016). **연구방법론**. 학지사.
- 성혜영. (2014). **깨달음 체험과 완성의 의미**. 운주사.
- 송순인. (2010). **정신장애인 가족스트레스와 가족 적응간의 가족탄력성 조절효과 연구** [박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
- 송재소. (1994). **다산시문집**. C:Users/sec/Desktop/한국고전종합DB.html/
- 신미숙. (2013). **정신장애인 기능수준과 주부양 가족원의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가족 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
- 신연희. (2015). 출소준비 수형자의 가정실태와 가족재결합관련요인: 생태체계이론의 적용. **교정연구**, 67(0), 183-205.
- 신창호. (2010). **숙비 최씨, 영조를 가르치다**. 씨네스트.
- 심유화, 정미경. (2015). 직업군인 가족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적 요인. **한국군사회복지학**, 8(2), 61-95.

- 안양희. (2006). 가족탄력성(Family Resilience): 간호임상에의 활용. **간호학 연구**, 15(1), 5-24.
- 양옥경, 김미옥, 최명민 역. (2002). Walsh. F (1998). Strengthening Family Resilience. **가족과 레질리언스**. 나남.
- 양옥경, 김연수. (2003). 가족탄력성 증진을 위한 부모역할 프로그램 개발연구. **사회과학연구논총**, 11, 115-147.
- 양외금. (2022). **중년 후기 성인의 생태체계 관점에 따른 노후 준비와 성공적 노화 인식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울산대학교 대학원] .
- 양준석, 이정은, 유지영. (2017). 사별가족 치료 프로그램 연구동향과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한국 가족치료학회지**, 25(3), 645-670.
- 우경섭. (2010). **조선후기 지식인들의 세계관**. 문화재사랑.
- 우문식. (2013). **긍정심리의 긍정정서와 성격강점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안양대학교 대학원] .
- 우지만, 백중수. (2011). 한 중등체육교사에 대한 생애사연구. **한국스포츠학회지**, 18(2), 27-43.
- 윤병오. (2013). **성격강점 및 덕목에 대한 VIA 분류체계의 도덕교육적 의의** [박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 유철인. (1990). 해석인류학과 생애사. **제주도연구**, 7, 105-117.
- 유철인. (1998). 생애사 자료의 수집과 텍스트의 해석. **간호학탐구**, 7(1), 186-195.
- 윤경원. (2017). **위인 마리퀴리를 활용한 가족레질리언스 향상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효과** [박사학위논문, 울산대학교 대학원] .
- 윤종희. (2006). 건강가정지원 사업에서 가족중심 개입을 위한 개념모형 연구: 생태체계학적 접근. **대한가정학회지**, 44(3), 307-326.
- 윤해린. (2018). **다산 사상의 음악교육적 함의**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
- 윤혜란. (2010). **부설 유치원장들의 삶의 애환과 보람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대학원] .
- 이경옥, 정민자. (2020). 성격강점카드를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자아존중감과 행복도에 미치는 효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8(3), 67-82.
DOI : 10.7466/JKHMA.2020.38.3.67
- 이동성. (2011). 한 교사연구자의 변환적인 역할과 관점에 대한 자문화기술지. **교육인류학연구**, 13(3), 141-168. DOI : 10.17318/JAE.2011.14.2.003
- 이동성. (2015). 두 초등학교 남자 교원의 경력 경로 및 경력 발달에 대한 생애사 연구: 우연과 필연의 이중주. **교사교육연구**, 54(1), 102-119.
DOI : 10.15812/ter.54.1.201503.102
- 이민아, 김광수. (2019). 성격강점 연구 동향과 과제. **초등상담연구**, 18(3), 321-345.
DOI <https://doi.org/10.28972/kjec.2019.18.3.321>

- 이선애. (2004). **만성질환아동가족의 가족 탄력성이 가족 적응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
- 이소정. (2017). 간호사의 이직의도와 전문직업성, 팔로워십(followship), 성격강점의 경로분석.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7(6).553-565.
DOI : 10.35873/ajmahs.2017.7.6.051
- 이영 역. (1995). **인간발달생태학**.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 Experiments by Nature and Design, 교육과학사.
- 이을호. (1975). **다산학의 이해**. 현암사.
- 이재경 외. (2016).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성격강점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지역과 세계**, 40(2), 91-112.
DOI : 10.33071/ssricb.40.2.201608.91
- 이재인. (2004). **한국 기혼여자의 생애이야기에 나타난 서사유형과 결혼생활: Doctoral dissertation**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 이점우. (2006). **한 60대 초등학교 여교사의 삶과 가르침: 생애사적 사례연구** [박사학위논문,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
- 이정미, 구미향. (2014). 대표강점활용 긍정개입 프로그램이 발달장애아동 어머니의 삶의 만족과 행복, 그리고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장애아동인권연구**, 5(2), 35-53. <https://www-riss-kr/link?id=A105784726>
- 이정선. (2016). **애도경험이 역경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영성매개효과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국상담 대학원] .
- 이정연. (2011). 사회환경변화와 가족의 위기관리. **한국가족관계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13-28.
- 이정희. (2020). **이태석 신부의 생애에 나타난 생태체계와 가족레질리언스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울산대학교 대학원] .
- 이정희, 유희정. (2016). 관광계열 전공 대학생의 진로장벽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성격강점의 매개효과. **MICE관광연구**, 45(0), 37-56.
UCI : G704-SER000008985.2016.16.3.010
- 이호진, 김완일. (2016). 특성화 고등학생의 주도성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강점 활용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3(8), 311-333.
DOI 10.21509/KJYS.2016.08.23.8.311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사업연구회 역. (2012). **가족학대·가족폭력**, Kemp, A. R., 1998, Abuse in family: An introudction, Brooks/Cole Publishing Compony
- 이희경. (2006). 부정에서 긍정으로: 심리학의 새로운 접근.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40-41.
- 이희영. (2005). 사회학 방법론으로서의 생애사 재구성: 행위이론의 관점에서 본 이론적 의의와 방법론적 원칙. **한국사회학**, 39(3), 120-148.

- 인보영, 김인옥. (2012). 아동의 성격강점이 학교생활 행복에 미치는 영향. **한국웰니스학회지**, 7(1), 91-95.
- 임선영. (2013). **역경후 성장에 이르는 의미재구성 과정: 관계상실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임영진. (2012). 성격강점과 정신적 웰빙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1(3), 713-730. DOI : 10.15842/kjcp.2012.31.3.005
- 장승구. (2016). 다산 정약용의 자기치유와 행복관. **대한철학회논문집**, 139, 213-238.
- 장승희. (2020). 다산 정약용의 삶에서 행복담론과 윤리교육적 함의. **윤리연구**, 130, 23-55. DOI : 10.15801/je.1.130.202009.23
- 장애스더. (2021). **대학생의 성인애착과 역경후 성장의 관계: 긍정적자기자비, 적응적 인지적정서조절, 지각된 정서지지의 다중매개효과** [박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대학원].
- 장정문. (2017). **위기가족 유형들의 생태체계 분석: 위기상담 사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울산대학교 대학원].
- 장희선. (2017). 영유아교사의 성격강점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자기결정성의 매개효과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102, 23-50.
-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1986). **국역 여유당전서**. 전남대학교출판부.
- 전지예. (2020). **발달장애아동 부모의 양육부담이 역경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대처방식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정규영 편, 송재소 역주. (2014). **다산의 한평생: 사암선생연보**, 창비
- 정 민. (2005). **다산의 지식경영법**. 김영사
- 정 민. (2007). **다산어록청상**. 푸르메
- 정 민. (2011). **삶을 바꾼 만남, 스승 정약용과 제자 황상**. 문학동네.
- 정민자. (2016). 저소득층 조손가족의 십대 손자녀가 지각한 역경과 가족레질리언스에 관한 질적 분석. **복지상담교육연구**, 5(1) 21-41).
- 정성운. (2013). **다산 정약용의 자녀교육관: 유배지에서 보낸 가계와 서간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 정수경. (2010). 가족 레질리언스: 역경을 이기는 힘. **사회과학논총**, 26(1), 1-15.
- 정약용. (1989). **여유당전서**. 경인문화사.
- 정약용. (1991). 박석무 역.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창비.
- 정약용. (1994). 민족문화추진회 편, **국역 다산시문집 I II**. 솔.
- 정약용. (1996). 민족문화추진회 편, **국역 다산시문집 II III**. 솔.
- 정약용. (2021). 박석무 역.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창비.
- 정재갑. (2020). **사회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년여성의 자기결정성 요인과 정서적 안정감, 행복감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박사학위논문, 서울벤처대학교대학원].

- 정치영. (2007). **이순신장군의 지도자적 역량과 임진왜란 전쟁 수행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목포대학교 대학원] .
- 정해림. (2022). **사암 정약용 전기**. 창비.
- 조민혜. (2009). **공개입양가정의 가족 레질리언스가 입양아동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 조성호. (2003). 상담심리학 연구 동향: 상담 및 심리치료학회지 게재논문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4(1), 69-95.
DOI :10.23844/kjcp.2023.11.35.4.1687
- 조신호. (2015). **이순신 리더십의 성격과 교육적 가치** [박사학위논문, 대구카톨릭대학교대학원] .
- 차경호, 김명소. (2002). 청소년의 주관적 안녕감과 심리적 특성. **한국심리학회 연차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 203-209.
- 천혜정, 임유미. (2007). 모자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이혼여자 한부모 가족의 가족 탄력성이 가족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학회**, 19(3), 123-146
- 최용성. (2015). 행복·덕교육을 위한 긍정심리학 성격강점 활용교육 프로그램의 적용과 평가. **윤리교육연구**, 38, 137-176.
UCI I410-ECN-0102-2016-370-000545802
- 최은미. (2009). **성격적 강점이 성인의 삶의 만족도와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대학원] .
- 최인혁. (2015). **생애사 연구에 기반을 둔 개인 기록화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
- 최한규. (2004). **다산 정약용 목민사상의 실학적 담론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
- 최화강. (2012). **중장년층의 라이프스타일과 여가활동참여가 노후준비도 및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대학원] .
- 하승수. (2012). **청소년의 성격강점과 기질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 한복희. (2019). **안중근 생애에 나타난 역경과 가족레질리언스 및 가족생애사 연구** [박사학위논문, 울산대학교 대학원] .
- 허창덕. (2012). 브론펜브레너의 생태학적 체계이론에 의거한 장애인 복지정책 및 서비스의 분석, **재활복지**, 16(2), 57-80.
- 황정윤, 옥정. (2017). 지역아동센터 아동·청소년을 위한 성격대표강점 활용 집단 프로그램의 효과. **발달지원연구**, 6(2), 183-196. DOI : 10.22839/adp.2017.6.2.183
- 황해익, 탁정화. (2015). 보육교사의 성격강점에 대한 교육 요구도 분석. **유아교육연구**, 35(2), 411-438. DOI : 10.18023/kjece.2015.35.2.018

Adriansen, H. K. (2012). Timeline Interviews: A tool for conducting life history

- reserch. **Qualitatives Studies**, 3(1), 40-55.
<https://doi.org/10.7146/qs.v3i1.6272>
- Allison, S., Stacey, K., Dadds, V., Roeger, L., Wood, A., & Martin, G. (2003).
 What the family brings: Gathering evidence for strengths-based work.
Journal of Family Therapy, 25(3), 263-284.
<https://doi.org/10.1111/1467-6427.00248>
- Ambrosino, R., Heffernan, J., Shuttlesworth, G., and Ambrosino, R., (2012).
Brooks/Cole Empowerment Series: Social Work and Social Welfare: An Introduction, Cengage Learning.
- Antonovsky, A., & Sourani, T. (1988). Family sense of coherence and family
 adapta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0(1), 79 - 92.
<https://doi.org/10.2307/352429>
- Beaver, W. R. & Hampson, R. B. (1990). **Successful families: Assessment and
 intervention**. Norton.
- Beaver, W. R. & Hampson, R. B. (1993). Measuring family competence: The
 Beavers systems model. In F.Walsh(ED.). *Normal family processes
 (2nded)*. Guilford Press.
https://doi.org/10.4324/9780203428436_chapter_20
- Belsky, J., (1980). Child maltreatment: An ecological interation. *American
 Psychologist*, 35: 320-335. <https://doi.org/10.1037/0003-066X.35.4.320>
- Bertalanffy, L. V. (1990). **일반체계이론[General system theory]**. (현승일 역).
 민음사(원전 1968년 출판).
- Black, B. (2001). The road to recovery. *Gallup Management Journal*, 1(4),
 10-12.
- Black, K., & Lobo, M. (2008). A conceptual review of family resilience factors.
Journal of Family Nursing, 14(1), 33-35.
<https://doi.org/10.1177/1074840707312237>
- Bowe, M. (1978). *Family therapy in clinical practice*. Jason Aronson.
-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 Expreimints
 by Nature and Degin.
- Bronfenbrenner, U. (1992). **인간발달생태학[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Experiments by nature and design]**. (이영 역). 교육과학
 사(원전 1979년 출판).
- Brown, J., Arnold, R., Fletcher, D., & Standage, M., (2017). Human thriving
 aconceptual debate and literature review. *European Psychologist*, 22(3):
 167-179. DOI: 10.1027/1016-9040/a000294
- Bubolz, M. M. & Sontag, M. S. (1993). Human Ecology Theory. In P. G Boss,

- W. J. Doherty, R. LaRossa, W. R. Schumm, S. K. Steinmetz(Eds.). **Sourcebook of family theories and method: A contextual approach**, NY: Plenum Press.
- Byrne, R (2006). *The secret*. Atria Books/Beyond Words.
- Cole, Ardra L. (1994). **Doing Life History Research-In Theory and in Practice**.
- Coyle, J. P., Nochajski,, T., Maguin, E., Safyer, A., Dewit, D., & Macdonald, S (2009). An exploratory study of the nature of family resilience in families affected by parental alcohol abuse. **Journal of Family Issues**, 30(12), 1606-1623. <https://doi.org/10.1177/0192513X09339478>
- David G. Mandelbaum(1973). The Study of Life History: Gandhi. **Curren Anthropology** 14(3): 177.
- David L. Morgan & Margaret T. Spanish (1985). Social interction and the cognitive organisation of health relevant knowledge. **Social of health & amp; Illness**, 7(3). <https://doi.org/10.1111/1467-9566.ep10832349>
- Denzin, N. K. (1978). **The research Act: Theoretical Introduction to Sociological Methods**. McGraw-Hills.
- Emmons, R. A., & Crumpler, C. A.(1999). Religion and spirituality? The roles of sanctification and the concept of God. *The International Journal for the Psychology of Religion*, 9, 17-24. DOI: 10.1207/s15327582ijpr0901_3
- Epstein, N., Bishop, D., Ryan, C., Miller, I., & Keitnor, G. (1993). The McMaster model: View of healthy family functioning. In F. Walsh (Ed.), *Normal family processes* (2nd ed.). Guilford Press.
- Erikson, E.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orton.
- Goodson, I. F & Silkes, P.(2001). **Life History Research in Educational Settings** : Learning from Lives London: Open University.
- Griffith, J., & Griffith, M. (1998). *Sacred encounters*. Manuscript in Preparation.
- Harter, J. K. (1998). *Gage Park High School research study*. Princeton. NJ: The Gallup Organization.
- Hawley, D. R., & DeHaan, L. (1996). Toward adefinition of family resilience: Integrating life-span and family perspectives. **Family Process**, 35, 283-295. <https://doi.org/10.1111/j.1545-5300.1996.00283.x>
- Jonker, L. & Greeff, A. P. (2009). Resilience factores in families living with people with mental illnesse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7(7), 859-873. <https://doi.org/10.1002/jcop.20337>
- Kemp, A. (1998). **Abuse in the family** : An introduction Book/Cole.

- Kemp, A. R. (2001). **가족학대·가족폭력[Abuse in the family: An introduction]**. (이화여자대학교 사회사업연구회 역). (주)나남출판(원전 1998년 출판)
- Kouritzin, S. G. (2000). Bringing life to reserch: Life history reserch and ESI. **Tesl Canada Journal/Review Tesl Du Canada**, 17(2), 1-35.
<https://doi.org/10.18806/tesl.v17i2.887>
- Lee, I. S., Lee, E. O., Kim, H. S., Park, Y.S., Song, M. S. & Park, Y. H. (2004). Concept development of family resilience: a study of Korean families with a chronically ill child. **Journal of Clinical Nursing** 13, 636-645.
<https://doi.org/10.1111/j.1365-2702.2004.00845.x>
- Lewis, D. (2008). Using life histories in social policy reserch: The case of third sector/pubilc sector boundary crossing. **Jnl Soc. Pol**, 37(4), 559-578.
<https://doi.org/10.1017/S0047279408002213>
- Luthar, S. S., & Cushing, G. (1999). *Measurement issues in the empirical study of resilience: An overview*. In M. D. Glantz & J. L. Johnson(eds.). Resilience and development : **Positive life adaptation**. Kluwer Academic / Plenum.
- McCubbin, H. I. & Patterson, J. M. (1981). **Broadening the scope of family strength**: an emphasis on family coping and social support. In Family Strengths III: Roots of Welbeing (Stinnett N., Chesser B. & DeFrain J., eds).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Lincoln, pp.177-194.
- Merriam-Webster (2006). **Merriam-webster Online Dictionary**. Retrieved from www.m-w.com/dictionary on June 30, 2006.
- Minuchin, S. (1974). *Families and family therap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Mullin, W. J. & Arce, M.(2008). Resilience of families living in poverty.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11(4), 424-440.
<https://doi.org/10.1080/10522150802424565>
- Niemiec, R. M., (2019). Six Functions of Character Strengths for Thriving at Times of Adversity and Opportunity: a Theoretical Perspective. *Applied Research in Quality of Life*, 15(2): 551-572.
 DOI: 10.1007/s11482-018-9692-2
- Ojermark A. (2007). **Presenting life histories**: A literature review and annotated bibliography. Chronic Poverty Rearch Center, CPRC workingpaper 101.
- Olson, D. H. (1993).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s** In F. Osteen, J (2005). *Your best life now*. Wamer Faith.

- Park, N. (2009). Building strengths of character: **Keys to positive youth development**, *Reclaiming children and youth*, 18(2), 42-47.
- Patterson, J. M., & Garwick, A. W. (1994). **"The oretical Linkages: Family meaning and sense of coherence."** In H. McCubbin, E., Thompson, A. Thompson, & J. Fromer(Ed.), *Sence coherence and resiliency: Stress, coping, and health* Madison: Center for Excellence in Family studies, University of Wisconsin.
- Peterson. C (2006). *A primer in Positive Psychology*. Oxford University Press.
- Peterson, C., & Seligman, M. E. P. (2004). *Character and virtues: A handbook and classification*. Oxford University Association.
- Ringsmose, C. (2012). Social welfare and minding the achievement gap: **A view from Denmark**. *Childhood Education*, 88(3), 185-188.
<https://doi.org/10.1080/00094056.2012.682552>
- Roberts, B. (2002). **Biographical reserch**. Open University Press.
- Rothbaum, F., Weisz, J. R., & Snyder, S. S. (1982). Changing the world and changing the self: A two-process model of perceived contro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2, 5-27.
<https://doi.org/10.1037/0022-3514.42.1.5>
- Rutter, M. (1987). Psychosocial resilience and protective mechanism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7(3), 316-331.
<https://doi.org/10.1111/j.1939-0025.1987.tb03541.x>
- Satir, V. (1988). *The new peoplemaking*. Palo Alto. Science & Behavior Books.
- Seligman, M.E.P. (2002). *Authentic Happiness:using the new positive psychology to realize your potential for lasting fulfillment*. Nicholas Brealey Publishing.
- Seligman, M.E.P., Rashid, T., & Parks, A. C(2006). Positive psychotherapy. *American Psychology*, 61, 774-788.
<https://doi.org/10.1037/0003-066X.61.8.774>
- Seligman, M.E.P., Steen, T. A., Park, N. S., & Peterson, C. (2005). Positive psychology progress: Empirical validation of interventions. *American Psychologist*, 60(5), 410-421. <https://doi.org/10.1037/0003-066X.60.5.410>
- Sixbey, M. T. (2005). **Development of the family resilience assessment scale to identify family resilience**. A dissertation presented for the Graduate school of university of Flordin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philosophy, University of Florida.
- Stinnett, N., & DeFrain, J. (1985). *Secrets of strong families*. Boston: Little,

- Tedeschi, R. G., & Calhoun, L. G. (1996). The 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Measuring the positive legacy of trauma. **Journal of Traumatic Stress, 9**, 455-471.
- Tedeschi, R. G., & Calhoun, L. G. (1996). The 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Measuring the positive legacy of trauma. **Journal of Traumatic Stress, 9**, 455-471.
- Tedeschi, R. G., & Calhoun, L. G. (2004). Posttraumatic Growth: Conceptual Foundations and Empirical Evidence. **Psychological Inquiry, 15**(1), 1-18. https://doi.org/10.1207/s15327965pli1501_01
- Valentine, L. and Feinauer, L. L. (1991). Reality and myth in family life: Changes across generation. **Journal of Psychotherapy and the family, vol. 62**, 918-929.
- Walsh, F. (1996). The concept of family resilience crisis and challenge. **Family process, 35**(3), 261-281. <https://doi.org/10.1111/j.1545-5300.1996.00261.x>
- Walsh F. (1998). The Resilience of the Field of Family Therapy.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24**. 269-271. <https://doi.org/10.1111/j.1752-0606.19983tb01084.x>
- Walsh, F. (2002). **가족과 레질리언스[Strengthening Family Resilience]**. (양옥경·김이옥·최영민 역) (주)나남출판(원진 1985년 출판).
- Walsh, F., & Anderson, C. M. (1988). **Chronic disorders and families: An overview**. In F. Walsh & C. Anderson (Eds.), *Chronic disorders and the family*. Haworth Press.
- Walsh, F., & McGoldrick, M. (1991). **Living beyond loss**. Norton.
- Watzlawick, P., Beavin, J., & Jackson, D. (1967). **Pragmatics of human communication**. Norton.
- Werner, E. E., & Smith, R. S (1992). **Overcoming the odds: High risk children from birth to adulthood**.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Whitaker, C., & Keith, D. (1981). **Symbolic-experiential family therapy**. In A.S. Gurman & D. Kniskern (Eds.), *Handbook of family therapy*. Brunner/Mazel.
- Will Glennon (1995). **The collected wisdom of fathers**. 이종인 역 (2006). **파더링; 아버지가 된다는 것**. 즐거운 상상.
- Wright, L., Watson, W. L., & Bell, J. M. (1996). **Beliefs: The heart of healing in families and illness**. Basic Books.
- Yearly, L., H. (1990). **Mencius and Aquinas: Theories of virtue and conceptions of courage**,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강진 다산 기념관. (2008). 다산 정약용: 마파람이 바다 위에 불어.

<https://dasan.gangjin.go.kr>

남양주 다산문학관. (2019).

<https://blog.naver.com/starshine867/22158347928>

남양주시청 홈페이지. (2024).

[https:// www.nyj.go.kr/culture/1174](https://www.nyj.go.kr/culture/1174)

노컷뉴스. (2013).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함께 읽는다.

<https://v.daum.net/v/20130723170921224>

다산연구소. www.edasan.org

다음뉴스. (2023). ‘지선아, 사랑해’ 이지선, 모교 이화여대 후배 가르친다. 2023년

2월 24일 <https://v.daum.net/v/20230224/82555537>

서울신문. (2012). 르네상스적 인간 정약용의 부활. 2012년 9월 6일

<https://v.daum.net/v/2012090602561511>

수원화성 박물관. <https://hsmuseum.suwon.go.kr>

와이뉴스. (2023).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 초청 ‘다산 가르침’ 강연.

www.whynews.co.kr/news/article.html?no=194700

한국고전종합DB. <https://dbitkc.or.kr>

Abstract

A Study of Adversity, Character Strengths, Ecological System, and Family Resilience in the Life of Jeong Yak Yong

Hye-sook Park,
Major in Child and Family Welfare
University of Ulsan
Advisor Prof. Min-ja Jung

This study analyzes the life of Jeong Yak-yong, designated by UNESCO in 2012 as a world historical figure, to provide modern individuals, who face numerous difficulties in increasingly diverse and complex lives, with direction on overcoming adversity. The study employed a content analysis method based on biographical research and literature review.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ct as a positive family model for families in crisis facing various challenges and adversities. By doing so, it aims to guide individuals in successfully overcoming personal crises and restoring family stability and health. This study suggests that as a model of a healthy family, the strengths perspective—including character strengths and family resilience—can be effective in practical interventions for family issue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adversity, character strengths, ecological system, and family resilience in the life of Jeong Yak-yong are as follows:

First, this study analyzed the life of Jeong Yak-yong in terms of the period of study, the period of exile, and the period after his exile. The exile period was a time of severe suffering when he was forced to live away from home for 18 years in Janggi, Gyeongsang-do and Gangjin, Jeolla-do, due to the issue of Catholicism. However, it turned out to be the most meaningful period of his life, leaving behind great achievements that completed the system of his studies and ideas.

Second, an analysis of Jeong Yak-yong's adversities reveals that his temporary interest in Catholicism, sparked by reading Catholic literature, was perceived as a threat to the established social order and led to severe persecution. The death of his protector, Prime Minister Chae Je-gong, and King Jeongjo resulted in the loss of his only protective system. Consequently, political oppression exacerbated by factional strife, along with the deaths of his young son, nephew, and his only close friend and brother Junghyeong Jeong Yak-jeon, plunged Jeong Yak-yong into prolonged hardship.

Third, an analysis of Jeong Yak-yong's character strengths reveals several key

attributes. His zeal for learning solidified his scholarly achievements during his long exile. His courage and perseverance allowed him to endure difficult circumstances without compromising with power or giving up. Love and altruism fostered family unity and prompted him to help neighbors in need. His sense of citizenship and fairness manifested in his actions as a local magistrate, where he lamented the impoverished lives of the common people and governed with care. Prudence and self-regulation ensured that he avoided reckless behavior despite his family's fall from grace, maintaining discipline in his daily conduct. Optimism and appreciation of beauty enabled him to adapt to his painful reality, finding solace in nature and sustaining himself through his long exile.

Fourth, the ecological system of Jeong Yak-yong was examined in terms of the individual system, family system, and social system. In the individual system, despite the necessity of physical separation, he remained a devoted and loving father who conducted home education through letters. As a scholar, Jeong Yak-yong viewed moments of crisis as opportunities for academic research, ultimately producing a monumental achievement of over 500 written works.

In the family system, the benefits for Jeong Yak-yong came from the distinguished lineage of the main family, the talented maternal family of the Haenam Yun clan, and the economically affluent support from his in-laws.

Regarding Jeong Yak-yong's social system, it was examined through his social relationships and the historical context of his time. The people within his community, who recognized his scholarly qualities and academic abilities, provided him with relational capital that aided him during his exile. However, the historical context presented harsh trials due to factional power struggles and severe persecution of Catholicism by the ruling class.

Fifth, an examination of Jeong Yak-yong's family resilience reveals the following: In the family belief system, adversities were viewed as meaningful opportunities for academic research, and the hardships from these adversities were seen from a positive perspective, recognizing that they were not permanent, thus preventing the family from being engulfed in suffering. In terms of family organizational processes, Jeong Yak-yong displayed flexibility by engaging in chrysanthemum cultivation and silkworm farming to generate income without compromising his dignity as a scholar, even while living separately from his family.

Despite the physical separation, he continued to educate his children through letters. The appropriate use of social relational capital greatly assisted him during his exile. The excellent familial backgrounds of his paternal family, maternal family of the Haenam Yun clan, and his economically affluent in-laws contributed to his qualities and

development as a scholar.

The family communication process involved sharing emotions with clarity and open emotional expression, activating family functions. In problematic situations, they sought rational solutions, proposed alternatives, and adopted a proactive attitude towards future challenges.

The importance of family is often overlooked, and family disintegration is increasing due to changing family form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examines the life of a great man who overcame adversity from a family perspective, reminding us of the importance and essence of family.

Keywords: Jeong Yak-yong, Adversity, Life history, Character strengths, Ecological system, Family resilience